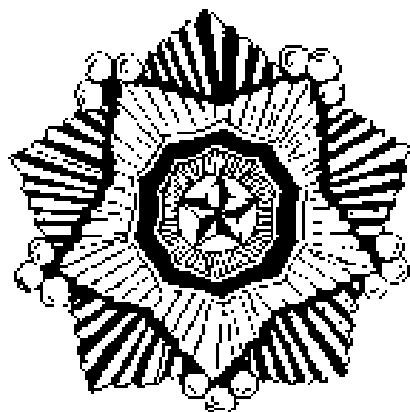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8

주체 93 (200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8(2004)년 제8호

(루계 제 682 호)

◆◆◆◆◆ 차 례 ◆◆◆◆◆

백두의 혁명정신이 맥박치는 혁명전통주제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4
오늘도 타오르네 그날의 그 불길.....	6
룡바위골 바위대문.....	7
초소에 온 편지	10
락원행 봄렬차가 떠나간다.....	11
칠보산명승가.....	14
우리의 그리움	14
동심과 흥미	15
승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19
상상을 초월하는 식견	20
가까이 제일 가까이	20
《해주-하성》서 온 편지	21
명언해설	40
끝나지 않은 고개길	41
갈 숲.....	43
녀성과 군복.....	57
림형빈교수	59
통일은 우리 손에.....	66

한줄기	67
복수하리라	73
단군대와 천주석	74
력사의 선언	75
소꼬리와 소꼬리털에 대한 이야기	75
이름없는 집	76
넌뛰기	80
머리가 돈 부쉬	80

백두의 혁명정신이 맥박치는 혁명전통주제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우리 혁명은 백두산에 그 뿌리를 두고있으며 주체조선의 정신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계승되는 백두산의 정신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치사상전선, 반제군사전선, 경제과학전선의 모든 부문에서 항일혁명선렬들이 물려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수령께 끝까지 충성다하는 충실성의 정신-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이며 자체의 힘으로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며 억천만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싸우는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이다.

혁명의 승리를 안아오는 백두의 혁명정신은 세대를 이어 계승하고 빛내여야 할 가장 값높은 재부이며 사람들을 수령님의 영원한 전사, 제자로 살며 싸워나가게 하는 귀중한 정신적량식이다. 그러므로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작가들이 문학형상에 구현하여야 할 귀중한 사상정신적바탕이며 백두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맥박치는 혁명전통주제작품을 그 어느때보다 더 왕성하게, 더 많이 창작하는것은 선군시대 우리 작가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량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영화와 소설 같은것을 많이 만들어내며 문학예술작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맥박치는 혁명전통주제작품을 창작하는것은 혁명발전의 요구이며 더우기 선군시대의 필수적요구이다.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선군시대의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선군시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백두의 혁명전통의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는 시대이다. 선군시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비상한 견인력을 가진 혁명전통주제작품들을 활발히 창작할것을 요구한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나래치는 혁명전통주제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지난시기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역사적교훈으로부터 우리 문학앞에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전통교양에 힘을 넣지 못하면 혁명선렬들이 피흘려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맡아먹고 나중에는 사회주의제도까지 무너지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보여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첫시기부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와 혁명전통교양자료들에 대한 학습을 강화할데 대하여서와 혁명전통주제작품들을 높은 수준에서 창작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회상기학습을 실속있게 하고 혁명전통주제작품창작에 깊은 관심을 돌려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수 있게 하고 앞으로 그 어떤 엄혹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온대도 백두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은 백두의 후손들답게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길로 억세게 꺾꽂이 걸어가게 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지난시기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전통주제작품들을 수 많이 창작함으로써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여왔다. 특히 총서 《불멸의 력사》와 총서 《불멸의 향도》, 합창조곡 《백두산아 이야기하라》와 《선군장정의 길》의 창작은 혁명전통주제작품창작에서 일대 비약으로 된다. 또한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영원한 미소》, 단편소설 《혁명의 길》, 희곡 《불사조》, 《해바라기》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작품들이 수없이 창작되였다.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창작된 혁명전통주제작품들은 한결같이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형상적화폭속에 펼쳐보여주었으며 평범했던 사람들이 수령님의 품속에서 백두의 정신을 지닌 불굴의 혁명투사로 자라나는 과정을 서사적화폭속에 방불하게 형상하였다.

혁명전통주제작품이 가지고있는 사상정서적위력은 비할바없이 높으며 그 생명력은 실로 크다. 오늘 우리는 선군의 시대에 살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는 투쟁이 첨예한 조건에서 우리는 혁명전통주제작품창작에 그 어느때보다 더 큰힘을 넣어야 한다.

선군시대 혁명전통주제작품창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업적을 형상한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하는것이다.

우선 우리 혁명의 억년드눌지 않는 고귀한 만년재보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계속 빛나게 창조해나가야 한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평생이었다.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으시려 눈보라만리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전설적인 영웅사시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형상한 문학작품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애, 민족애가 뜨겁게 흐르게 하고 혁명적동지애의 숭고한 세계가 풍부한 생활로 펼쳐져야 한다. 하여 우리 혁명의 역사적뿌리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더욱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위업을 선군의 기치로 빛나게 계승완성시켜나가는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예술적화폭속에 숭엄히 आरो새겨야 한다. 우리는 선군혁명령도로 전설같은 기적을 창조하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영, 인류자주화위업을 개척하시며 주도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세계를 형상함에 있어서 선군혁명실록에 깃들어있는 감동깊은 역사적사실들에 기초하여 그이의 내면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고 품위있게 펼쳐보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주체의 혁명전통이 빛나게 고수되고 계승완성되어 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문학적 형상으로 안겨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문학작품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창시자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진실하고 심도있게 반영하기 위한데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항일전의 나날뿐 아니라 해방직후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오신 김정숙동지의 형상창조에서 생활의 폭을 넓혀나감으로써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이시야말로 수령님의 참다운 친위전사였음을 노래하여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맥박치는 혁명전통주제작품창작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주인공들의 성격적특질을 시대정신의 전형으로 훌륭히 창조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피와 땀으로 항일전쟁사를 빛나게 장식한 항일혁명투사들이 발휘한 백두의 혁명정신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그대로 맥박치고있으며 선군시대의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나래치고있다.

작가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의 가장 숭고한 정신도덕적특질인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정신의 측면에서 시대적높이에서 진실하

고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 항일혁명투쟁시기편에 나오는 김혁, 차광수, 오중흥, 마동희, 최희숙, 강상호 등의 형상이 오늘도 견인력을 가지고있는것은 그들이 지닌 충실성이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되어나가는 과정과 결부시켜 생동한 화목으로 펼쳐고있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자면 항일투사들의 내면세계를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속에 깊이있게 파고들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지닌 충실성의 표징가운데서 그의 성격적특징을 가장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생활단면을 찾아내고 세부화하여 기쁨진 형상을 창조해야 한다.

우리는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닌 주인공들의 참신한 문학형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기 령도자를 받드는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아야 하며 죽을지언정 한번 다진 맹세는 추호도 변치 말아야 한다는것이 항일혁명선열들이 지닌 혁명적신념과 의지였음을 생활화폭으로 설득력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항일혁명투사들을 원형으로 한 주인공의 성격적특질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들이 지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의 참다운 소유자라는것을 실감있게 그려야 한다.

지난시기의 창작경험은 혁명전통주제작품창작에서 원형과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전형화하는것을 창작원칙으로 삼고 창작해야 시대의 높이에서 찾아낸 새로운 성격을 들고나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전형화의 원칙을 구현하여 주인공의 성격과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립체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하여 그들이 지닌 충실성이 혁명적락관주의에 바탕을 두고있다는것을 생활적타당성있게 보여주며 새 세대들을 혁명의 1세대처럼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나가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동지로 준비시킬수 있다.

혁명전통주제작품창작에서 중요한것은 생활반영의 폭, 형상의 폭을 넓혀 이 주제작품들을 더 많이 왕성하게 창작하는것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이 발휘한 백두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조국해방전쟁시기 발휘된 대중적영웅주의,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대고조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 발휘한 전투적기풍의 창조자들에 대한 형상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 백두의 혁명정신이야말로 전진도상의 난관을 극복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재부라는것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펼쳐야 한다.

또한 이 주제작품창작을 어느 한 형태에만 머물지 말고 모든 형태의 모든 종류를 다 리용하여 작품형상생리에 맞는 형상수법과 수단들을 적중하게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들보다 높은 수준에서 왕성하게 창작해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설적영웅으로서의 백두산3대장군형상을 전설화하는데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사색과 탐구를 깊이있게 하는것이다.

우리는 이 땅 그 어디 가나 인민들속에 널리 창조전송되고있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에 대한 혁명전설, 혁명일화, 혁명설화들을 수집정리하여 혁명전통교양에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것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서 종자를 잡고 형상적바탕을 찾아도 선군시대 총대증시의 견지에서 새로운 정책적안목에서 작품들을 구상하고 형상의 나래를 펼치는것이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백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는 혁명전통주제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자면 창작의 주인인 우리 작가자신들부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을 꾸준히 실속있게 하여 항일혁명선열들이 지녔던 사상정신적높이에 따라서야 한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활동과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싸운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보여주는 력사적사실들을 감명깊게 서술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는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높이 발휘해나가게 하는 참다운 생활의 교과서이며 우리 작가들이 창작에 구현해야 할 형상의 중요한 원천이며 대를 이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지난시기의 창작경험이 있고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작가들의 심장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높뛰는 한 못해낼것이 없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하는것은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작가들의 숭고한 임무이다.

우리가 창작하는 작품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맥박칠 때 우리 세대뿐아니라 먼 후날 우리의 후손들도 백두의 혁명전통만을 알고 그것을 계속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영원히 빛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혁명전통주제작품창작에서 다시한번 혁명적전환을 일으키자!

오늘도 라오르네 그날의 그 불길

리실

하늘가에 닿은듯
이깔나무 울창한 청봉밀영
불어오는 바람소리, 새소리마저
투사들의 숨결처럼 안겨오는 여기
그날의 그 이야기
우리 마음 뜨겁게 흔드누나

예가 아니더냐
숙영의 밤
밀립의 어둠만이 아닌
압제의 어둠을 밀어내며
활활 타올랐던
그날의 우등불자리가
가슴뜨거이 안겨와라
우등불가에서
두고온 고향 그리며
밤 새는줄 모르던 열정어린 그 눈빛도
그 밤에 울리던 《사향가》의 노래소리도

찬바람 눈비속에
세월은 흘러어도
그 밤에 타오르던 그 불길

오늘도 우리 가슴마다에 타오르거니

아 그 밤을 불태우며
타오르던 우등불이
락원의 이 땅
행복의 창가에 불빛으로 이어지고

싸움의 행군길 쉬여간 한밤에도
해방된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던
투사들 애국의 념은
우리 장군님 펼쳐주신
위대한 선군길에 끝없이 굽이치나니

창조와 기적으로
날과 달을 이어가는 그 어디에서도
언제나 우리 안고사는
밀영의 숙영지

아 너는 천만년 세월이 흘러가도
백두의 념을 안고
천만심장을 그날어로 세워주는
영원한 혁명의 학교여라

룡바위골 바위대문

황해북도 토산군 룡암리에 가면 《룡바위》라고 부르는 큰 바위가 있다.

들판을 향해 뿔어내리던 산줄기는 바닥에 이르러는 판결에서 딱 멎고 그 끝머리에 바위 하나가 하늘을 향해 불끈 솟았는데 이것이 바로 룡바위다.

높이가 40~50미터나 될듯 한 바위의 제일 윗부분은 마치 두개의 뿔이 돋은 룡대가리같고 그 아래는 잘룩한것이 룡의 목을 방불케 하며 또 그 아래로 번번하고 희끄무레한데는 신통히도 룡의 배허벅같은데 그 한가운데에 직경 2미터가량의 구멍이 뚫려서 룡의 《배꼽》이라고 불리웠다.

마치도 룡이 아래도리는 땅속에 깊이 감추고 웃도리만 땅위에 불끈 솟구쳐서 거연히 서있는것 같은 이 바위에는 여러가지 신비로운 전설들이 깃들여있다.

옛날에 이 고장 사람들은 봄철에는 이 바위앞에서 한해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냈고 가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재난을 물리쳐달라고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이곳 경치를 구경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은 룡의 배꼽을 겨누고 돌을 던지는것으로 앞으로 태여날 자식들을 가늠해보았다. 단방에 명중시켜 배꼽안에 돌을 넣으면 아들이요 그렇지 못하면 딸이라는것이였다.

이 룡바위뒤에는 《땡땡굴》이라고 부르는 바위굴이 있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누구도 모른다고 한다. 명주실 한꾸리가 다 풀려도 끝이 없더라는 소리도 있고 그 누군가가 이 동굴에 빨래방치를 떨군 일이 있는데 동해바다로 그것이 흘러나왔다는 말도 있다.

굴이름도 땡땡땡 소리를 내며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하여 《땡땡굴》이라 불렀다.

이 땡땡굴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있었다.

이 굴안에는 만권에 달하는 병서가 보관되어있는데 룡바위는 그것을 지키는 파수군이라는것이다.

바위굴안에 보관되어있는 만권 병서를 도통하면 삼천삼백가지의 술법을 능사로 쓸수 있어 이 세상 그 어떤 강적도 추풍락엽으로 쓸어버릴수 있고 나라와 백성을 그 어떤 재난과 불행에서도 구원할수

있을뿐아니라 무궁번영하는 세상을 꾸릴수도 있다는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만권 병서를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것이다.

그 까닭인즉 땡땡굴에는 바위대문이 굳게 닫혀있는데 누구도 이 대문을 열지 못했다는것이다.

이 바위대문은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높이 빛내일뿐아니라 천하를 옳바르게 이끌만 한 위인이 찾아와야만 열리는데 수천년 력사가 흐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 그런 위인이 없었던 모양이다.

어느때인가는 집채같은 바위를 백리밖에까지 내던지는 힘장수가 찾아와서 문고리를 쥐고 힘껏 당겨도 보고 등을 대고 꺽꺽 떠밀어도 보았지만 바위대문은 꿈쩍도 안했다.

또 어떤 때는 참새한테 굴레를 씌울만큼 피가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요리 밀어보고 조리 당겨보았지만 끝내 열지를 못하고 물러갔다.

(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천하를 옳바르게 이끌어줄 그런 절세의 위인은 언제면 나타날까!)

룡바위골사람들은 바위대문을 열고 만권 병서를 꺼낼 위인이 나타나기를 일일천추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런 사연을 알아낸 왜놈들은 또 그들대로 제놈들이 먼저 바위대문을 열고 만권 병서를 손에 넣으려고 발악을 하였다.

만일 조선에 비범한 위인이 나타나서 만권 병서를 손에 넣는 날에는 제놈들의 식민지통치가 끝장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왜놈들은 우선 제 나라에서 《뛰어난 인물》이라고 인정되는 작자들을 몰래 데려다가 바위대문을 열어보게 하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천황》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만권 병서를 손에 넣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왜놈들은 일본에서 제일 담이 크고 힘이 센 장수 하나를 시켜서 룡바위의 머리를 잘라버리도록 하였다.

체통이 삼백근이나 되고 키가 구척이나 되는 이 놈은 두발도 넘는 장검을 들고 롱바위로 기여올라 갔다.

롱바위굴사람들은 혹시 롱바위의 목이 떨어져나 가면 만권 병서를 지킨다는 파수병이 없어지게 되고 그 귀중한 책이 원쑤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거나 앓을가 해서 마음을 조였다.

왜놈장수는 롱바위에 올라서자 장검을 높이 추켜들더니 롱의 목을 겨누고 힘껏 내려쳤다.

순간 번개불이 번쩍 일고 천둥소리가 파르릉 울렸다. 동시에 땅이 흔들리고 산이 부르르 떨었다.

뽕양게 어렸던 흙먼지가 점차 가시여지고 롱바위의 자태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롱바위굴사람들은 목 없는 롱바위가 눈앞에 나타날것만 같아서 가슴이 콩알만 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였다.

바람에 흙먼지가 깨끗이 가시여지자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롱바위의 자태가 눈앞에 나타났다.

다만 왜놈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있을뿐이였다.

롱바위를 어찌보겠다고 기여올랐던 놈이나 밑에서 조력을 하던 놈이나 할것없이 모조리 죽어넘어졌던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천황》은 화가 폭뒤까지 치밀어서 미친듯이 야단을 쳤다.

《이놈들아, 롱바위에 기여올라가지 말구 먼데서 대포로 쏘아서 마사버려라, 대포로...》

그리하여 왜놈들은 구세통같은 대포들을 끌어다가 먼발치에 걸어놓고 롱바위를 겨냥한 다음 일제히 포탄을 날렸다.

《팡 팡 파르릉.》

요란한 포성이 울부짖고 땅이 흔들리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포탄들은 왕청같은 데로 날아가서 팡팡 터졌다.

아무리 다시 겨냥을 하고 쏘아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혹시 대포들이 고장인가 해서 판곳을 겨냥하고 쏘아보았더니 이때는 딱딱 명중하였다.

그러니 포탄들이 똥판지같은데로 날아간것은 모두 롱바위의 조화가 분명하였다.

왜놈들은 대포로도 어찌지 못하자 이번에는 롱바위굴 바위대문밑에다 수천근의 화약을 장진하고 폭파하려 하였다.

일본에서 특별히 따로 만든 폭약과 도화선을 날라다가 장진하고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도깨비조화란 말인가.

어떻게 된 일인지 폭약이 전혀 튀지를 않았다.

그저 어데선가 아득히 먼곳에서 쿵 하고 둔중한 소리가 나며 지진이 이는듯 땅이 흔들릴뿐이였다.

왜놈들은 몇번이나 다시 장진을 하고 불을 달아보았지만 결과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바로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일본에 있는 《천황관저》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쩐 일인지 관저의 땅밑에서 자주 지진이 일면서 집의 기둥뿌리가 마구 흔들리고 지붕이 무너질듯 하였다.

알고보니 그것은 롱바위굴에서 폭약을 터뜨리는 시간과 일치하였다.

땅밑에서 지진이 일고 집이 세차게 흔들릴 때마다 당장 지붕이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아 밖으로 뛰쳐나오곤 하던 《천황》은 그것이 롱바위굴에서 폭약을 터뜨리는것때문이라는것을 깨닫고 그것을 당장 중지하라고 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위대문을 열지도 깨뜨려버리지도 못하겠으면 단단히 파수를 서면서 만권 병서를 가지러 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동시에 만일 바위대문이 열리고 만권 병서를 손에 넣게 되는 인물이 나타난다면 가차없이 그 인물을 없애버리는것과 함께 만권 병서를 가로채라고 비밀지령을 주었다.

왜놈들은 곧 폭파놀음을 그만두고 그대신 수백명의 군사들을 감쪽같이 배치해놓고 밤낮으로 롱바위굴을 지켰다.

롱바위굴사람들은 이런 속심은 전혀 모르고 그저 왜놈들이 제깎에 맥이 빠져서 물러간것이라고 기뻐하면서 또다시 바위대문을 열 위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였다. 하지만 끝내 바위대문을 열만 한 위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롱바위굴사람들은 《아, 이 나라에는 진정 바위대문을 열만한 위인이 없단 말인가!》 하고 가슴을 쳤다.

그대신 왜놈들은 기가 나서 《조선에는 바위대문을 열만 한 인걸이 없다. 그러니 독립이요, 해방이요 떠들지 말고 <대일본제국>에 고분고분 복종하라.》고 지껄였다.

그러면서 룡바위굴을 지키던 군경놈들까지 싹 철수해버렸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그만 초상난 집처럼 슬픔에 잠겨버렸다.

웃음도 사라지고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늘에는 무거운 먹장구름이 뒤덮여 해빛을 가리우고 땅우에는 숨막힐듯 답답한 어둠이 짙어갔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이었다.

뜻밖에도 닭들이 일제히 화를 치며 울어댔다.

때아니게 꼬꼬리가 지저귀고 날도 채 밝지 않은 하늘에 노고지리들이 날아올라 은방울을 굴렀다. 동구박으로 뻗어나간 길가에는 이슬을 머금은 들꽃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다투어 피고 산과 들, 마을에는 청신한 기운이 감돌면서 진한 향기가 하늘땅에 넘쳐났다.

마을사람들은 신비스럽고 이상스러운 뜻밖의 조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들로 나갔다.

그들이 침울한 낮빛으로 한창 김을 매고있을 때였다.

지나가던 길손인지 아니면 일부러 찾아온 손님인지 딱히는 알수 없었으나 애젊은분이 발머리에 나타났다.

《수고들 하십니다. 저도 한이랑 매봅시다.》

젊은 길손은 이렇게 청을 하더니 발머리에 놓여있는 호미를 집어들고 성큼 밭에 들어서는데였다. 그리고는 시원스레 김을 땀다.

곧 농군들을 따라잡고 나란히 서서 김을 매게 되자 이렇게 물었다.

《어째서 모두들 낮색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어디 얼굴에 밝은 빛이 떠돌게 됐습니까?》

나이많은 농군 하나가 젊은분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였다.

《허허... 그것때문에 그렇게들 실망했던 말입니까? 그러지들 말구 우리 함께 가서 바위대문을 열어봅시다.》

젊은분은 환하게 웃으며 앞장에 나섰다.

그러자 돌연 하늘에 두텁게 덮였던 먹장구름이 툭툭 터지면서 눈부신 해빛이 쏟아져내려 세상천지가 일순에 밝아졌다.

어찌된 일인지 저절로 마음이 끌리고 존경이 가는 젊은분의 존안을 바라보던 마을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이의 존안에서는 해가 빛나고 별이 반짝이고

따뜻한 봄빛이 아지랑이를 일구며 피어나는듯 했기 때문이다.

마을사람들은 가슴 빼근하게 솟구치는 걱정을 안고 젊은분의 뒤를 따랐다.

호미를 손에 든채 줄레줄레 젊은분의 뒤를 따르던 마을사람들은 갑자기 룡바위쪽에서 땅이 쿵쿵 울리고 신비로운 소리가 울려오는것을 푹푹히 들었다.

너무도 놀라와서 걸음을 우뚝 멈춘 그들은 룡바위쪽을 바라보다가 또 한번 놀랐다.

수천수만년동안 움푹않고 죽은듯이 서있던 룡바위가 움쉴움쉴 움직이며 길을 척 비켜주는것이였다.

뒤이어 우르릉 와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대문이 활짝 열리고 칠색령룡한 채광이 하늘중천으로 솟구쳐올랐다.

(아, 새벽닭이 일제히 울고 날도 밝기전에 노고지리가 우짖는 까닭이 이때문이었구나!)

마을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젊은분을 우러러 보았다.

활짝 열린 바위대문안으로는 천만보석이 불꽃처럼 반짝이는 황홀경이 들여다보이는데 그 한가운데에 은장식, 금장식을 하고 오색비단으로 화려하게 꾸린 룡두마차가 서있었다.

바로 그 마차우에는 여러개의 금빛제자들이 실려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만권 병서였다.

《만권 병서의 주인이 오셨으니 어서 가져가십시오.》

뜻밖에도 룡바위가 우뢰소리와도 같은 목소리로로 말을 하는것이였다.

(아, 저분이 만권 병서의 주인이시였구나! 우리나라를 찾아주시고 백성들을 구원해주실뿐아니라 천하를 옳바르게 이끌어주시실분이 이제야 왕림하셨구나!)

마을사람들은 너무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호호호...

요란한 말울음소리와 함께 여섯마리의 말들이 만권 병서를 실은 마차를 끌고 와서 젊은분앞에 멎어섰다.

《어서 룡차에 오르소이다.》

룡바위가 또 우뢰같은 목소리로 삼가 말씀을 올렸다.

젊은분은 마을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고 룡

차에 오르시였다.

《이 나라에는 왜놈들을 쳐부시고 나라와 겨레를 구원해주실 절세의 위인이 없는줄 알았더니 하늘에서 그런 성인을 보내주셨구나!》

마을사람들은 통차에 높이 앉으신 젊은분을 우러러 보고 또 보았다.

《너무 그러지들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섰기때문에 바위대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라를 찾는 해방위업도 우리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이룩해나아갑시다.》

젊은분은 마을사람들에게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황궁하오이다. 그저 저희들을 이끌어만 주소이다. 하늘땅 끝까지라도 따르겠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젊은분앞에 부복하고 맹세를 담아 말씀을 올리였다.

호호흥... 말들이 또 한번 울부짖더니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곧 하늘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젊은분은 통차우에서 손을 저어 인사를 보냈다.

그 모습은 틀림없는 해님이였다.

《조선의 하늘에 해님이 솟았다! 광명천지를 안아올 우리 해님이 솟았다!》

마을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마음속으로 웨치고 또 웨치며 젊은분을 바라드렸다.

그때로부터 백두산쪽에서는 밤에도 하늘을 환히

비치는 세찬 채광이 뿔어올랐는데 그것은 그 젊은분이 등불을 켜놓고 군사들에게 만권 병서를 익혀주는 불빛이라는것이였다.

또 얼마쯤 지나니 백두산쪽에서 번개가 일고 우뢰가 그칠새없이 울었는데 그것은 젊은분이 군사들을 조련시키는 소리라면서 장검을 휘둘러 때마다 번개가 일고 질풍같이 말을 몰아갈 때마다 우뢰가 울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지금 우리 나라에 천출위인이 나타났는데 그분은 백두산에서 군사들을 키우고 계신다. 그러니 왜놈세상이 끝장날 날도 멀지 않았다.》

《백두산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왜놈들과의 싸움준비를 하고있는 대장수는 벌써 만권 병서를 모조리 도통하여 삼천삼백가지 술법을 능하게 쓰시는데 지금 그 술법을 수십만의 부하들에게 가르치고있다. 이제 그 군사들이 짓쳐나오면 왜놈들은 꼼짝없이 망한다. 바로 백두산의 대장수가 다름아닌 **김일성** 장군님이시다.》 라는 소문이 짹짹 퍼졌다.

룡바위골사람들은 제 고장의 바위대문을 여시고 만권 병서를 가져가신분이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것을 알고 감격을 금치 못하며 천세만세 그이만을 높이 받들고 싸워나가기라 다짐했다고 한다.

지흥길

가사

초소에 온 편지

문용철

종달새가 우짖는 전호가어로
처녀들의 편지가 날아왔네
언제나 장군님 가까이 사는
최전선병사들이 부러웁다나
아무렴 그렇지 결사옹위전초병
우리보다 궁지높은 병사는 없지

위훈 많은 영예사진 봉투에 넣어
처녀들의 일터에 보내였더니
새처럼 날아온 회답편지엔

최전선병사들이 멋쟁이라나
아무렴 그렇지 얼굴만 멋쟁일가
백발백중사격술도 일당백이지

글줄마다 울리는 맑은 목소리
뜨거운 당부가 어리어있네
결전의 그날에는 처녀병사로
최전선 우리곁에 서있겠다나
아무렴 그렇지 싸움의 그날에는
우리모두 장군님의 전선병사지

시조

락원행 봄렬차가 떠나간다

따뜻한 봄의 구내길

류동호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봄향기 짙게 풍겨오는 구내길
지금은 따뜻한 봄날이여라
하건만 이 가슴에 휘몰아치는
그날의 눈보라 눈보라

두해전 그날 우리 장군님
이런 봄날에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눈덮인 전선고지의 경길을 이어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에 오신 그날은
소한추위에 하늘땅도 얼어붙던 날

수령님의 자옥자옥이 어려있는 구내길을
걸음걸음 다 밝아보시며
아버이의 그 숨결 뜨겁게 안으시고
장군님은 말씀하시였어라

-우리 인민이 타는 차를
세상에 부럼없이 잘 만들어줍시다
《고난의 행군》에서 고생한 우리 인민을
이제는 행복의 전용차에 앉혀줍시다

아 하늘땅을 흔들며
쌓이고 쌓인 시련의 장설을 녹이며
구내길에 울리신 장군님의 그 말씀
심장과 심장을 울린 메아리

눈석이를 부르는 봄우뢰소리런가
야전차를 어깨로 미시며
끝없이 이어가시는 전선길에서도
산뜻한 나들이옷 차려입고
새 객차를 타고 려행길에 오를
인민의 모습을 그려보신 우리 아버지

선군혁명의 기관차 최고사령부는
눈보라를 헤치며 달리고있건만
그 기관차가 끌고가는 인민의 렬차는
봄꽃이 피어웃는 길로
봄노래를 싣고 달리게만 하고싶은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이여

철령을 넘어 오성산을 넘어
장군님 야전차에 싣고오신 그 봄을
인민이 타는 차에 실어주신 그날은
아름다운 미래와 마주 웃는 봄날이였어라

오, 우리 장군님
위대한 인민사랑으로 편성해주신 렬차는
강성대국의 도약대를 강철바퀴로 억세게 디디고
오늘도 락원행 봄궤도를 달리고있어라
선군조국에 행복의 봄을 수놓아가고있어라

《붉은기》1호 영웅기관차여

송찬웅

가슴뜨거워라
이 공장의 맏아들 기관차
《붉은기》1호앞에 서니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우리 수령님
천리마의 나래속에 태어난
이 첫 기관차를 보시며

그리도 대견하시여 환히 웃으시던
아, 수령님의 그 모습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으면
혁명의 온갖 풍파를 헤쳐오시며
한평생 들고오신 백두의 붉은기를

뜨거운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이 기관차이름으로 새겨주셨으랴

수령님의 숨결을 안고
수십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붉은기를 휘날려온 기관차를 바라보시며
오래도록 발걸음 떼지 못하신 장군님
왜 그리도 깊은 감회에 잠기셨던가
혁명의 년대와 년대를 넘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도
수령님 뜻을 따라 불바람을 일으키며
장군님 자옥따라 한길로만 달려온 기관차여

아, 그 기관차에 우리 장군님

영웅의 금별메달을 달아주자 하실 때
기관차여 너도 그 사랑에 목매여
감격의 기적소리 한껏 터치지 않았던가

장군님 안겨주신 영웅메달
그것은 수령님 한생에 드리는 경의
달려온 궤도 수백만리길에 수놓아온
무한한 충성과 위훈에 대한
선군령장의 값높은 표창

오, 수령님의 유산 장군님의 사랑인
자랑스러운 《붉은기》 1호 영웅기관차여
부강번영의 기적소리 높이높이 울리며
선군조국의 철길을 질풍같이 달리라!

선군시간이 흐른다

리연희

차량을 들어올리는 기중기소리
강피를 두드리는 함마소리
줄줄이 흐르는 용접의 불꽃들...
불야경의 저 한복판엔
붉은 수자로 날자를 새긴
전투일력이 있다

새벽 0시
오늘도 머나먼 전선길에서 새날을 맞는
최고사령부의 일력에 맞추어
우리 로동계급은 또 하루
선군세월의 일력을 번지거니

이들의 시간단위는 언제나 분과 초
흐르는 시간이 그리도 안타까운 가슴들
선반공들은 만족의 불바람을 날리며
도장공들은 차체마다 푸른 옷을 입히며
그리운 장군님품으로 마음 달린다

여기선 누구나 돌격선의 병사들
소재가 떨어졌다고 압축공기가 모자란다고
기다리지 않는다
가슴가슴 분초를 안고

걸음걸음 불을 달고 뛰는
밤과 낮이 따로 없는 결전장

이들에겐 자기 심장이 뛰는 소리보다
선군의 시간으로 고동치는 초침소리가 더 높았거니
우리 장군님 사생결단으로 헤쳐가시는
전선길의 분과 초를 안고사는 사람들
단 한순간 기대를 멈출수 없어
안해들이 가져온 밥보자기는
풀지도 못한채 식어버리곤 하였다

여기선 오직 명령관철!
명령을 관철하기전에는
죽을수도 물러설수도 없는
목숨같은 순간순간속에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쳐오르거니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의 박동에 맞추어
불타는 심장들이 높뛰는 여기
강철의 차량들이
선군의 속도로 달려나아가고있다
최고사령부의 시간이 여기서도 흐르고있다
우리 로동계급의 선군시간이 흐르고있다

달리는 보금자리

김영택

차창을 열어보아도
결상에 앉아보아도
안겨주신 그 사랑 어려오고
바쳐진 그 정성이 비껴있어
생각은 깊어만지노라

우리 장군님 인민위해 세워주신
살림집과 궁전들은 그 얼마이라
허나 그 사랑만으로 모자랐던가
오늘은 달리는 두줄기 궤도우에까지
행복한 인민의 집을 마련해주시었구나

집을 떠나 먼길을 가는 사람들도
정든 집같은 포근함을 느끼라고
보살펴주시는 그 손길이
저 혼 혼한 난방판에도 스며있구나
그 사랑의 눈빛이
밝은 불빛에도 어려있구나

아, 려행하는 우리 인민을 기다려주고

달리는 차와 함께 따라서주는 그 사랑
차창가에 펼쳐지는
사회주의선경을 마음껏 보며 가라고
우리 장군님 마련해주신
은빛궤도우의 달리는 보금자리여

떠나온 곳도 즐거운 우리 집
달리는 궤도우에도 즐거운 우리 집
저마다 가는 곳은 서로 달라도
한형제 한식솔로 안아
웃음꽃을 피워주는 정다운 집이여

이 사랑의 요람에 안겨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강성대국의 높은 언덕
눈보라 몰아쳐도 따뜻하기만 한
기적소리 정다운 인민의 보금자리
선군시대에 태어난
락원행 렬차의 보금자리여!

우리 마음 싣고 객차가 떠나간다

오영재

4월의 봄명절
온갖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올리며
태양은 눈부신데
화려한 명절옷차림으로 구내를 메운
그 꽃물결속을 누비며
우리 장군님께 맹세한
그 마지막번째 객차가
기적소리 높이 구내를 떠나간다

울리는 환호성
설레이는 꽃다발
달려가 차체를 살펴보며
손수건으로 유리창을 다시 한번 닦아주며
떨리는 손길 그 손길들

2년하고도 120여일
일군들도 로동자들도
오늘위해 바친 수고
그 무엇으로 헤아릴수 있을것인가

아늑한 집
따뜻한 잠자리를 두고도
일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따로 있었던가
오직 심장에 새긴 그 수자를
잠결에서도 외우며
오늘을 마련해온 우리의 로동계급

오, 차가 떠난다
우리가 지새운 그 많은 밤들을 싣고간다
북두칠성 저 멀리 밝은 별을 바라보며
아버이장군님을 그리던
그 그리움을 싣고 차는 떠난다
우리가 땀을 바치고 마음을 바친
그 마지막번째 객차가 떠난다

얼마나 바라고바라던 이 날이었던가
이런 날엔 정녕 이런 날엔
사람들이여 눈물을 감추지 말라
아버이장군님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한없는 그 긍지 그 자부심에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는 행복과 감격의 이 눈물도
떠나는 차량에 더 실어보내자

모두의 마음 함께 가자
꿈결에서만 달려가던 그 길로
오늘은 가자
이 마지막번째 객차에 올라
아버이장군님 계시는 그곳으로 가자

그곳이 최전열길이라면
철령을 넘어가자
오성산과 1211고지라도 오르자

어려운 날에 더 깨끗해진 손
오직 장군님만을 믿고 결사옹위하는
우리 로동계급의 량심
의리와 충성을 안고가자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이수령님의 위업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 가장 기뻐하실
우리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로동계급의
충성의 선물을 바치려 가자

주체93(2004). 4. 28

가사

칠보산명승가

김무림

일만경치 아름다운 칠보명승엔
이 세상의 묘한 바위 다 모였다네
삼간초가 바위동네 기와집동네
사연많은 칠보전설 전하여주네
오봉산의 붉은 단풍
룩칠십리 펼쳐지니
칠보단장 황홀하여 멋이로구나
아,
칠보산은 명산중의 명산이라네

일이월의 칠보절경 바라보며는
이런 절승 어디 가도 다시 못볼듯
삼월봄날 승선대에 올라서 보니
사회주의봄동산이 안기여오네
오월에는 외칠보에

룩칠월엔 해칠보에
칠보절경 산수구경 멋이로구나
아,
칠보산은 명산중의 명산이라네

일곱가지 보물 있어 명산이던가
이름있는 바위 많아 명산이던가
삼천리 이 강산을 아껴주시는
사랑안고 높이 솟아 명산이라네
오신 길을 또 오시여
룩대명산 그 자리에
칠보산을 장군님은 놓아주셨네
아,
칠보산은 명산중의 명산이라네

우리의 그리움

박현철

낮에도 그리웠네 밤에도 그리웠네
꿈결에도 그 품 향해 우리 마음 달려가네
아 뵈고싶은 장군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그리움은 위훈을 날네

비내려도 찾았네 눈내려도 찾았네
맨손으로 등짐으로 길을 열며 마중갔네

아 뵈고싶은 장군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그리움은 기적을 날네

천만심장 하나되어 불타는 그리움
선군시대 빛내여갈 이 땅에 굶이치네
아 뵈고싶은 장군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그리움은 영웅을 날네

동심과 흥미

김해월

어떻게 하면 선군시대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동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쁘드릴 명작을 쓸 것인가.

이런 불타는 지향을 안고 아동문학시인들은 탐구의 길을 걸어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것만큼 작품이 재미가 있어야 한다. 아동문학의 흥미문제는 성인문학보다 더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어린이는 원래 재미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선군시대 우리 어린이들의 사상정신세계는 매우 높다.

우리 어린이들은 자기들을 소중히 떠받들어 안아 키워 준 조국의 귀중함을 뜨겁게 느끼였고 한없이 고마운 조국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몸을 튼튼히 단련하여 내나라, 내 조국을 빛내여갈 열망과 지향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아동문학시인들의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속에 창작된 동시들은 선군시대 다양한 생활속에 우리 어린이들의 동심을 각이한 측면에서 생동하게 반영하여 아동시문학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고있다.

동시초 《장군님과 아이들》, 동요목음 《해님과 꽃송이》, 아동편지 《장군님, 나에게 하늘을 주셨습니다》를 비롯한 작품들이 훌륭히 창작되어 아동시문학의 화원이 더욱 짙은 향기를 뿌릴수 있게 되었다.

최근년간 《아동문학》 잡지에 발표된 동시 《저기 동쪽길로 오는 아저씨》(성연일작), 동시 《서쪽에서 해가 떴대》(김청일작), 동요 《우로 뵈!》(라경호작), 동시 《우리 집 <참새>》(문희서작), 동시 《바꿀수 없는 신발》(김웅택작), 동요 《양어장의 달밤》(지홍길작), 동시초 《꼬꼬댁 꼬-꼬》(박유라작), 동시 《컴퓨터가 날 기다려요!》(백광명작), 동시 《파목타발 말자요》(장만기작), 동시 《기다리는 사이에 어른되겠네》(김정순작) 등은 선군시대 어린이들의 동심을 아주 재미있고 특색있게 형상한 작품들로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동시초 《장군님과 아이들》은 선군시대 우리 어린이들의 전형적감정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동시 《빛나는 그 자옥은 조국입니다》(김철작)는 아버지장군님께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세계를 동심에 담아 뜨겁게 노래하였다.

스러웁니다
두손으로 정히 슬어웁니다
진창길에 패이고 또 패인
두줄기 바퀴자리

비내리는 밤길을
장군님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때로는 야전차를 밀고 당기시며
령님어 천연초소로 가셨습니다

그런것도 모르고
포근한 요람에서
꿈나라로 훨훨 날아가던
내가 아닙니까

...

아 아 바퀴자리
아버지장군님 헤쳐가시는
멀고도 험한 천만리길이 다 안겨오는
야전차의 바퀴자리

시는 시적생활세부 자체보다도 그 세부가 환기시키는 시적정서에 초점을 집중시키며 시적환상을 펼쳐 감정을 고조시키는가 하면 끝없이 절절한 그리움의 서정을 웅심깊이 펼치기도 한다.

그리하여 독자들에게 아버지장군님께서 천만고생 다하시며 빛내주시는 이 땅이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 어머니조국이라는것을 뜨겁게 느끼게 하며 크나큰 공지에 휩싸이게 한다.

동시 《빛나는 그 자옥은 조국입니다》가 아버지 장군님께 대한 그리움을 안고사는 어린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생활세부를 가지고 선군시대 어린이

들의 동심세계를 노래했다면 동시 《빨리빨리 컸으면》(라경호작)은 아버지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총대로 억세게 자라나려는 불같은 지향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는 어린이들의 동심세계가 절절히 안겨와 강한 여운을 안겨준다.

얼마나 가슴이 쓰리셨으면
백둘어린이 무덤앞에서
오래도록 자리를 못뜨셨을가
말없이 주먹을 쥐시였을가

내 또래아이들 다 죽은 신천
이 땅에 피의 신천이 다시 없게 하시려
이 땅에 백둘어린이묘 다시 없게 하시려
아버지장군님은 오셨을거야

그래서 그 뜻을 가슴에 안고
나는야 군대에 나갈테야
두자루 석자루... 총을 잡고서
미국놈을 몽땅 싸죽일테야

아 빨리빨리 컸으면
어서 빨리 컸으면

동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백둘어린이묘앞에서 말없이 쥐신 주먹세부를 통하여 어린이의 시점에서 한해에 두번씩이나 신천땅을 찾으신 장군님의 심중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시에서는 조선의 분노를 안고 복수전에 나서려는 신천땅어린이의 동심세계가 시적환상으로 뜨겁게 안겨온다.

어서 빨리 커서 인민군대에 나가 《두자루 석자루... 총을 잡고/미국놈을 몽땅 싸죽일테야》라고 하는이 불같은 맹세. 이것은 신천땅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의 맹세이다. 동시는 재치있는 시적환상으로 정서를 펼쳐 신천땅어린이의 동심세계를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특히 동시 《행복의 뚝배》(김웅택작)는 미제로 하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엄혹한 시각에 새로 건설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세계를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전쟁이나 평화나
불구름 밀려오던 그날에
전선으로 가실 길 야영소로 오시여

아이들의 웃음으로 승리를 선언하신
우리 장군님

사랑의 그 품에서
행복의 닷을 올렸구나
푸른 파도 가르며 두둥실
우리 기쁨 가득 싣고 두둥실

동시는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사회주의를 수호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호방무쌍한 락관, 어린이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의 세계를 철학적이면서도 동심적인 시적표현과 생동한 형상적비유로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특히 시인의 깊은 시적체험과 감흥으로 아버지장군님과 혈연의 정을 맺고사는 선군시대 어린이들의 동심세계를 노래한 동시는 《그런줄도 모르고》(김학근작)이다.

어린이는 깊은 밤 옷방에서 아빠, 엄마가 우리 장군님께서 제기밥으로 끼니를 이어가시며 어제는 대홍단감자밭을 돌아보시고 오늘은 전연초소를 찾으셨다고 하는 귀속말을 엿듣는다. 그 순간 어린이는 그런줄도 모르고 자기는 하루종일 궁전에서 춤을 추고 밥투정한 잘못을 뉘우친다. 어린이의 뉘우침, 《아 그런줄도 모르고》라는 이 뉘우침은 아버지장군님과 운명을 함께 하는 이 나라 어린이들의 동심세계를 얼마나 깊은 여운속에 안겨오게 하고있는가.

참으로 동시초 《장군님과 아이들》은 선군시대 우리 어린이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참신한 시적발견과 독특한 시적형상으로 노래한 성과작이다.

동시 《저기 동쪽길로 오는 아저씨》는 어린이의 동심세계를 재미있으면서도 생동하게 노래하고있다.

저기 동쪽길로 오는 아저씨
우리 마을 세포비서아저씨구나
만나면 또 책가방을 검열할거야
떨가? 아니아니 맞받아가지

...

만나면 학습장을 번쳐가면서
글씨람 곱게 쓰라 꾸중도 하고
하나라도 부러진 연필 있으면
곱게 곱게 깎아도 주는 아지씨

하지만 이상해 엄마도 아닌데

뭐 자주 책가방검열을 한답
수학이랑 국어랑 5점 맞아야
이제 크면 우리 농장 주인된다나

아마도 세포비서아저씨는야
아이들을 만나면 엄마도 되고
하루공부 마치고 돌아올 때면
마을의 선생님도 되는가봐

동시에서는 전번날에는 학교에서 4점을 맞아 세포비서아저씨에게 옥을 먹을가봐 나무뒤에 살짝 숨었지만 오늘은 5점을 맞고오는 길인데 뿔때문에 겁쟁이처럼 숨겠는가고 하면서 동쪽길로 오는 세포비서아저씨를 맞받아가는 천진란만한 어린이의 심리세계를 방불하게 그려보이면서도 세포비서아저씨의 모습을 어머니와 선생님의 비유하여 당의 모습을 동심적으로 잘 안겨오게 하였다.

동요 《양어장의 달밤》 도 짙은 정서속에서 생활을 생동한 화풍으로 감동깊게 노래하고있다.

하늘에 달이 뜨니
물속에도 달이 떴네
별무리 반짝이니
물속에도 별이 떴네

달과 별사이로
물고기들 와글와글
그물 던져 퍼올리면
달도 별도 걸리겠네

인민위한 일이라면
달도 별도 다 따주실
우리 우리 장군님은
하늘땅을 다 주셨네

참으로 동요는 재치있는 환상적인 시적표현으로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달도 별도 다 따주실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을 특색있게 노래하였다.

할머니와 어린이의 대화로 어린이의 심리세계를 능란하게 비약함축시켜가면서 선군시대 어린이들의 기향세계를 방불하게 그린 동시 《컴퓨터가 날 기다려요!》, 아버지장군님께서 몸소 이름까지 지어주신 비전향장기수의 귀여운 딸 축복이를 딱 한번만 안아보려고 몇번이나 찾아갔지만 엄마, 아빠, 형님, 누나들의 손에손에 떠받들려있기때문에 그를 안아볼수 없는 어린이의 마음을 생동하게 형상한

동시 《기다리는 사이에 어른되겠네》 등 어린이들의 흥미를 끄는 작품들이 많다.

그런데 최근 《아동문학》 잡지에 발표된 일부 동시들을 보면 어린이들의 동심이 반영되어있지 못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린이들은 나라의 꽃봉오리이며 미래의 주인공이다, 조국의 앞날과 민족의 전도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아동문학을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진실성은 시인의 생활에 대한 뜨거운 사랑, 불타는 열정과 련결되어있다. 그것은 진실성이 시인이 심장으로 체험하고 사랑한 생활에 대한 감수이고 정열이며 충격의 표현으로 되기때문이다. 심장으로 씌여진 시인이 아닌가에 의하여 동시의 진실성이 결정된다.

시적체험과 감흥의 빈약성은 어린이들의 동심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동시 《아쉬워말자》 (안선일작)는 할머니를 따라서 여름방학에 자기 집에 놀러온 사촌동생에게 고기잡이하던 늪이 없어졌다고 아쉬워하지 말라고 위안하는 생활이 그려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토지정리구상에 의해 고향땅에 펼쳐진 세기적전변을 보면서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그런데 작품에는 토지정리로 늪이 없어져 고기잡이할수 없게 된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그 아쉬움을 새기게 하기 위해 이 고장에 사는 어린이가 여름방학에 자기집에 놀러온 사촌동생을 타이르지 않으면 안되는 생활이 그려져있다.

가물치랑 잉어랑
냇아울리던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나도 아쉬워

그렇지만 보려마
저길 보려마
멋지게 닦아놓은
우리 고향벌

서정적주인공이 사촌동생에게 아쉬움을 가지지 말라고 타이르것이지 아니라 늪에 살던 물고기에게 늪이 없어진것을 아쉽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 멋지게 건설한 양어장에 가서 뛰놀자고 했다면 오히려

생활적으로 타당하고 시의 사상성도 더욱 강조되었을 것이다.

시적체험과 감흥의 빈약성은 생활론리에 맞지 않게 사실을 라렬하여 동시형상을 저조하게 하고있는 데서도 나타나고있다.

동시 《닭알폭포앞에서》(리정남작)와 《하이얀 닭알》(최인혁작)은 그 실례로 된다.

동시 《닭알폭포앞에서》는 닭알폭포에 깃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려고 한 필자의 의도를 가늠할수 있지만 생활론리에 맞지 않게 사실을 전달하고있다.

미국놈의 검은 구름
밀어내고서
안겨주신 은빛 폭포
사랑의 폭포

라남봉화 진군길에
힘주시려는
크신 뜻 언제면
우리 다 알가

아버지장군님 걸으신 전진길과 닭알폭포라는 극적인 시적감정은 고조되어야 하겠으나 감정론리에 맞지않게 내용을 전개하였으므로 전반적인 감정세계가 그만 끊어지고말았다. 결국 작품은 닭알폭포에 깃든 깊은 의미를 서정의 흐름속에서 노래하지 못하고 직선적으로 강조하고있다.

특히 《하이얀 닭알들아/너는야 무엇이겐》, 《끝없는 폭포야/너희시작은 어디겐》-이 시련은 아이들이 읊기 매우 힘들게 시적언어를 배열하고있다.

동시 《닭알폭포앞에서》가 감정론리에 맞지 않게 상식적으로 생활을 노래했다면 동시 《하이얀 닭알》은 새로 발견한 시상이 없이 생활을 일반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이 동시는 할머니가 가지고온 새로 일떠선 닭공장의 첫물 닭알을 두손에 받쳐든 어린이의 심정을 노래하고있다.

하이얀 닭알들
두손에 받쳐드니
장군님사랑에
내 손도 따끈따끈

이 시련이 동시의 발견이고 감정의 절정같은데

정서적충격이 안겨오지 않는다.

그것은 동시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 인민들의 식생활을 위해 마음쓰시며 닭공장을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산골마을 사람들 잘 먹이시려 찬바람 맞으신 그 자욱이 어려와》라고 매우 일반적으로 표현하고있기 때문이다.

감동깊은 생활이 흐르지 못한 일반적인 사실라렬, 닭알을 받쳐든 아이가 도시아이인지 농촌아이인지 분간할수 없는 시점의 불명확성, 이 모든것으로 하여 동시는 정서적충격이 오지 않는다.

이 두편의 동시들은 생활에서 받은 새로운 느낌 깊이있는 감정을 동심에 담아 노래하는것이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데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시적대상이 똑같지만 동시초 《꼬꼬댁 꼬-꼬》는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새로운 느낌을 동심에 담아 인상깊게 노래하고있다.

은 나라 도처에 일떠선 현대적인 닭공장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펼쳐주시려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길, 인간사랑의 대장정의 길에서 솟아난 빛나는 창조물이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최신식설비들로 갖추어진 현대적인 닭공장을 건설하도록 하시여 고기와 알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신 장군님의 은덕은 참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가슴을 뜨거움에 젖어들게 한다.

나에게만 야영소가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 글썄 닭들도
《야영소》가 있구나

꽃속에 파원속에
자리잡은 닭공장
내 야영소 못지 않는
닭들의 《야영소》

내가내가 동해바다
푸른 파도 헤엄칠 땐
닭들은 파란 잔디
딩굴며 뛰어놀고

내가내가 야영식탁

맛난 음식 먹을 땐
현대화된 배합사료
듬뿍 먹고 으쓱으쓱

- 동시 초중 《너희들의 <야영소>》에서 -

히야! 멋있구나
주먹만 한 닭알들
꼭포처럼 쏟아져요
줄줄이 쏟아져요

흰줄 타고 도골도골
비닐집에 차곡차곡
산만큼 쌓여지는
크고큰 닭알들
...

동글동글 춤을 춰요
핸들핸들 춤을 춰요

- 동시 초중 《닭알폭포》에서 -

꽃속에, 과일속에 자리잡은 현대적인 닭공정이
풍치가 한눈에 안겨오는듯 하다.

《나의 <야영소>》와 《너희들의 <야영소>》라는
형상적비유로 당의 은덕을 가슴뜨겁게 안겨오게
하는 재치있는 시적발전, 《동글동글》, 《와글와
글》, 《도골도골》 금시 닭알들이 흘러와 줄줄이
쏟아져내리는것만 같은 감각적이고 표상적인 시적
표현들...

이 뜨거운 시적감정, 생동한 생활화폭은 쉽게 이
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간고하고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 현대적
인 닭공장을 일떠세우신 아버지장군님의 사람은 닭
공장에 현실체험하러 왔던 시인의 가슴을 감동이
눈물에 젖게 했고 생활은 그에게 동심에 넘치게 했
으며 시를 방전하게 했다.

선구시대를 안고사는 시인의 뜨거운 심장의 열기
가 좋은 동시를 쓰게 하는 비결이다.

아동문학시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선군의
내조국, 내 나라에 대한 가슴터질듯 한 사랑을 안고
어린이들의 친근한 벗이 되어 그들의 생활속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안고사는 우리의
귀여운 선군동이들의 동심이 비낀 동시들을 더 재
미있고 훌륭하게 창작하여 아동문학의 화원을 아름
답게 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씨야땅에 새겨가신 혁명일화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90(2001)년 력사적인 토씨야련방방문의 길에 오르시였을 때였다.

온밤 멈춤이 없이 줄기차게 달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특별렬차는 7월 31일 아침로씨야련방의 지방
철도역인 노보씨비르스크주의 글라브느이역에 몇어서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꼭 만나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렬차를 세우게 하신것이였다. 그이께
서 만나보시겠다고 하시는 사람들이란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을 육탄이 되어 보위한 야 떼, 노비첸코의 미
망인과 그의 자녀들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언제나 노비첸코에 대해 잊지 않으시고 계시였다. 그이께서는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족들이 이곳 글라브느이부근에서 산다는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계시다가 로씨야련방방문
의 긴장한속에서도 그들을 만나려고 하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노비첸코에 대하여 뜨겁게 회고하여주시면서 그의 가족들
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였다.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노비첸코를 잊지 않으시고 긴장한 외국방문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의 가족들에게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본인들은
물론 함께 동행하였던 로씨야의 일군들도 머리를 숙이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식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90(2001)년 8월 11일 로씨야과학원 씨비리분원을 참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분원의 한 책임일군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구성과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려 붙인 도해판들에 이르시었을 때였다.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래프를 비교도 해보시고 거기에 써있는 작은 수치들과 기호들, 공식들을 흥미있는 눈길로 살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그래프의 곡선을 가리키시였다. 그러시고는 곡선을 따라 손을 움직이시면서 표준값과 측정값이 거의 일치한것은 연구결과가 아주 좋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순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놀라움이 완전한 탄성으로 번져지는 일이 벌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연구사업에 대해 깊이 알아주시고 과분한 치하까지 해주시자 안내자는 그래프결의 도표판으로 그이를 안내해드리며 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였다. 그의 몇마디 설명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알겠다고 하시면서 다른것을 보자고 따듯이 일깨워주시였다.

모두가 어리벙벙해졌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도표와 그래프를 가리키시며 이 도표는 이 그래프를 도표화하였을뿐인데 무엇때문에 다시 설명하겠는가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순간 뒤흘에서는 일시에 경탄의 물결이 술렁이였다. 로씨야의 한 일군은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면서 정말 최고라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식견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것이라고 감탄하였다.

가사

가까이 제일 가까이

김선화

가까이 가까이 제일 가까이

장군님 그결에 서고만싶어

이 나라 아들딸들 군복을 입고

정든 집 멀리 떠나 초소로 가네

가까이 가까이 제일 가까이

장군님 안녕 지켜드리고싶어

희망도 포부도 총대에 얹고

병사는 천리방선 지켜간다네

가까이 가까이 제일 가까이

장군님 결사로 웅위하셨네

선군혁명동지로 그 품에 사는

그처럼 행복한 병사는 없네

아 장군님 가까이 제일 가까이

병사 병사가 있네

《해주-하성》서 온 편지

김병훈

나는 나의 누이동생의 편지를 공개하기로 작정하였다. 독자들이 읽어보면 나의 심정을 이해하여주리라고 믿는다.

1958년 나의 누이동생은 해주-하성청년철도건설에 참가하였었다.

그 애는 고졸을 졸업하자 웬일인지 대학에 가지 않고 직장에 진출하였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한사코 상급학교에 가라고 타이르고 열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노여움까지 냈으나 그 애는 모든것을 마다하고 끝내 직장으로 나갔다. 의지가 강하달지 고집이 세달지 하여튼 그 애는 나보다 성격이 더 굳세다.

그 애가 졸업하기 며칠전에 나는 그 애의 일기 한토막을 읽은적이 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나는 평탄하고 안온한 길을 걷고싶지 않다. 어렵고 험한 길을 뚫아 상상봉에 오를 때 비로소 참된 생활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한 그것이 일생의 기초를 튼튼히 닦는것으로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나같이 <운실>에서만 자라난 애들에게는 시련이 필요하다구 생각한다. ...》

졸업하자 그 애는 철도관리국에 배치장을 받고 통신구 교환수가 되었다.

그로부터 일년이 채 못되어 1958년 5월에 그 애는 《해주-하성》으로 탄원하여갔다. 가는 기차칸에서와 도착하여 한번 짙막한 문안편지가 왔을뿐 통 소식이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8월초에 다음과 같은 장문의 편지가 왔던것이다.

×

오빠, 드디어 어제 우리의 손으로 잡아놓은 《해주-하성》 청년철도로 첫 열차가 달렸어요.

만일 오빠가 우리와 함께 그 우람찬 기적소리를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환희와 열정과 힘에 넘치는 그 기적소리는 온 세상을 한가슴에 그려안고 몸부림치는것 같았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딱 막히고 가슴에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콕 들어차다 못해 터질것만 같았어요. 나는 울고말았어요. 아니예요. 울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울었어요. 사람

이란 자신을 감당해낼수 없는 그런 벅찬 감정에 잡히게 되면 부질없이 울게 되나부지요.

만일 그때의 심정을 억지로라도 그 무엇에 비긴다면 첫 아기의 세찬 울음소리를 듣는 어머니의 심정이라고나 할가... 아니예요. 그것도 너무 범속한것 같아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예요.

난 그때의 우리의 심정을 재일수 있는 그 어떤 척도가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환멸을 느낄거야요.

그리고 오빠, 어쩌면 그 기적소리가 울리는 짧은 한순간에 나는 두달반동안 겪은 모든 사건들을 단꺼번에 회상할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70여일의 악전고투가 이 한순간을 위하여 바쳐졌던 까닭일까요?...

오빠, 하여튼 우리는 이리하여 김일성원수님께서 주신 전투임무를 영예롭게 완수했어요. 이제 한 보름 뒤정리만 끝내면 우리는 각기 제고장으로 돌아가게 된답니다. 모든 이야기는 그때 다 해드리겠어요. 옛날 사람들이라면 한평생을 살아도 다 겪을수 없을 그런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을 말아요.

그렇지만 오빠...

집으로 가기전에 단 한가지만은, 저의 생활상 문제에 대하여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래요, 오빠에게라면 후에 가서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후에 만나뵙는 경우에도 이 말을 맞대고 여줄수가 없을거야요.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짬짬이 써서 오빠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어요. 오빠, 읽어보시고 만일 제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생각되시거든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이 편지를 보여드리든지 아니면 오빠가 잘 여쭙어주세요.

아니 오빠, 나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오빠는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도 반드시 저를 이해해주시리라고 믿어요.

×

오빠 우리 건설대대가 자기 담당구간에 도착하여 집을 풀고 작업에 착수한지 나흘만에 일어난 큰 사건이 뭘지 아세요? 그것은 대대

《야전매대》에 산더미같이 쌓였던 과자상자들이 동이 나게 팔려버린 사실이에요.

글쎄 그 영웅적인 해주-하성청년사회주의건설자들앞에 제기된 첫 난관이 먹는 문제였다고 하면 혹 의아해하거나 웃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랬어요.

취사원들은 하루 스물네시간을 꼬박기 서서 맴돌지만 식사를 제대로 보장 못하는 형편이었답니다. 취사원들이라고 말뿐이지 우리들끼리 매일 한개 소대씩 교대당번으로 하였던어요.

그 서투른 솜씨로 목욕탕만치 큰 다섯개의 가마에서 단번에 수백명분의 밥을 끓여내는걸요. 웬만큼 불을 때서는 잘 끓질 않고 그렇다고 버쩍 장작불을 돈구면 밑에서는 막 시퍼런 단내나는 연기를 피우며 타는데 꼭대기는 그대로 생쌀이 남아있겠지요. 그래서 다시 술술 끓이노라면 어느덧 물은 다 찾아먹었는데도 퍼보면 이번엔 아래고 옷충이고 몽땅 설어버리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찌겠어요. 조금씩 안치여 끓여내는 수밖에... 이러노라니 하루 세끼를 딱딱 제때에 끓여 치르지 못하고 새벽 여섯시부터 밤 열두시, 한시까지 온 대대가 밥차레 기다려 먹느라고 복작거리다가 마는 형편이 었지요.

그나마 타구 설구한 밥에서는 쓰구 역한 단내가 풍겨서 우리 관리국의 검차구에서 온 익살군인 박동무 말마따나 코를 쥐고야 먹는 형편이었답니다. 우리 처녀애들 몇몇이 손을 부르건고 달라붙었지만 워낙 큰 가마라 도대체가 힘이 가야 물과 불을 맞추어 끓이지요.

청년사회주의건설자노라니고 떠들썩하고 가더니 사흘도 못되어 먹는 문제에 걸려 맥을 못추더라 하고 세상에 소문이 나는 날에는 오빠, 우리가 어느 하늘에다 낫을 들수 있겠어요.

《...항일유격대원들은 풀뿌리를 깨물구두 15년이나 총을 메구 싸웠다는데, 제길, 우린 꼭두새벽부터 진종일 밥먹는 치닥거리에 세월 다보낸당이!...》

이런 말들이 떠돌기 시작하더니 식사를 포기하고 공사장으로 나가는 소대들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그 패들이 배는 고프니까 매점의 과자를 20키로짜리 마분1지상자 통채로 사서 저내가게 된거야요. 식사를 안하고 현장에 나가는 소대는 규률위반으로 추궁한다는 대대장의 엄명이 내려졌으나 누구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으며 여전히 매점앞에는 건설자들이 물려드는 형편이었답니다.

그래서 사흘째되는 날 오후에 식당천막앞 공지에서 《식당돌격대》 조직을 위한 대대민청

회의가 열렸지요. 글쎄 대대에서 조직되는 첫돌격대가 《식당돌격대》라는것은 얼마나 해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쩔수 없었어요.

대대장동무는 식당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식당돌격대》를 조직하여 이 돌격대가 식당사업을 일정한 궤도에 올려세울 때까지 고정적으로 식당근무를 담당해야겠다는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렵고 힘든 일에 자원하여 나설것을 호소하였지요.

하지만 선뜻 돌격대에 나서는 동무는 없었어요. 나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럴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먼저 나서겠다고 맹세한터에 더군다나 녀성인 내가 식당일이라고 꺼린다면 되겠어요. 온 대대가 공사 끝날 때까지 파자나 먹고서야 아무 일도 치르지 못할게 뻔하지 않아요. 내가 선참으로 나섰지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열여덟명의 처녀애들이 따라 나왔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아직 엄두도 안내는 모양이었어요. 나는 남자들의 그 한판 싸지도 않은 자존심에 슬그머니 화가 나더군요.

《하, 이거 맨 체네루야 돌격대가 되겠소? ...》

대대장동무가 난감한 표정으로 대원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러자 마치 대대장의 이 말을 기다리거나 한듯이 누군가 맨뒤에서 《저... 제가 해두 될가요?》 하고 일어서는 동무가 있었답니다. 좀 더듬거리는게 마치 누구에게 용서라도 비는듯싶은 말투였어요.

《누구요!...》 대대장은 반가운듯 목을 늘이며 뒤를 살펴보았어요.

《서칠성입니다.》

《흠- 동무구만...나오우.》

대대장은 웬일인지 싱긋이 웃더니 고개를 끄덕거리었습니다.

(칠성이라니?...) 나도 선뜻 머리에 떠오르는 이름이여서 나오는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가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룡척키인 그는 등을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뒤쪽에서 성큼성큼 걸어나오고있었어요.

(끝내 소원을 성취한 모양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자 저도 모르게 빙긋이 웃음이 떠올랐어요.

앞에 나오자 그는 갑자기 얼굴이 벌거우리해지더니 우리 처녀애들과는 좀 떨어진곳에 가서 섰답니다. 한편 장내에서는 이 어울리지 않는

《료리사》의 출현에 흥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글썽 그도 그럴것이 저 룡척장신이 위생모를 쓰고 칼도마를 두드릴 생각을 하니 키들키들 웃음이 절로 터져나오지 않을수 있겠어요? 내 옆에 서있던 처녀애도 키득거렸답니다. 나는 그 애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이렇게 되니 칠성동무는 더욱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긴 손을 어떻게 하고 섰으면 좋을지 몰라 앞으로 밧 쥐었다가 뒤로 가져갔다 하고 있었어요.

장내는 더욱 웅성거렸지요. 하지만 나는 그 저 웃어넘길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 동무에 대하여 좀 아는것이 있었기때문이였어요.

바로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이튿날에 있는 일이였어요. 나는 교환대 낮당번이였지요.

온종일 설새없이 울리던 호출신호도 뜸해지고 석양녘의 빨간 해살이 천막벽에 뚫린 피창으로 흘러드는 저녁무렵, 난데없이 키 큰 청년 하나가 등을 구부정하고 천막안으로 성큼 들어서더니 손에 벗어친 모자를 두손으로 주무르며 떠듬떠듬 하는 말이 한가지 부락이 있다는것이였어요.

석양빛을 등지고 섰기때문인지는 몰라도 그의 검실하고 기름한 얼굴은 펍 어둡고 침울해 보였어요.

나는 어리둥절한채 무슨 부락이냐고 물었지요. 그러나 그는 고개를 떨군채 그 왁살스럽게 큰 손아귀에 그려친 모자를 금방 노닥노닥 요정을 내고야말듯이 꾸깃꾸깃 주무르며 그냥 망설이고 섰더군요.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고 하는 말이 청진에 전황 좀 걸어달라는게 아니겠어요.

《뭘, 뭘요, 청진요?...》

나는 어처구니없다기보다 놀라움이 앞서서 이렇게 소리치며 일어섰답니다.

(아니 이 동무가 정신이...)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치받쳤으나 문득 그의 얼굴을 바라보자 주춤했어요. 유난히 밝게 빛나는 그의 두눈망울에는 그 어떤 간절한 빛이 어려있더군요.

그렇지만 어찌겠어요.

《청진엔 걸지 못합니다...》 하고 나는 또박 또박 말마디에 힘을 주어 대답하였습시다.

《예? - 못걸어요?-...》

순간 그의 두눈이 휘둥그래지더니 이내 뿌옇게 생기를 잃어버리더군요. 그는 무엇인가 더 말할듯하다가 당돌한 나의 표정을 보자 그만두고 입가에 멧적고 쓸쓸한 미소를 띠웠어요.

《그래요...》

그는 땅이 꺼지게 긴 한숨을 몰아내쉬면서 힘없이 돌아서는것이였어요.

(괴상한 동무구나. 뭇때문에 청진에 전황 걸자는걸가? 무슨 심상찮은 일이라도 생긴 모양이지.)

그러자 나는 내가 너무 매정스럽게 굴었다는 뉘우침이 들더군요.

《전환 곤란하지만... 무슨 일인지 급하면 해주우편국에 연락하여 청진에 전보를 쳐달라구 부탁해드릴수는 있어요.》

나는 말소리를 부드럽게 누그러서 이렇게 등뒤에 대고 말했어요.

《전보요?...》

청년은 다시 돌아섰어요.

《전보로 될수 있다문야...》

하고 입속에서 중얼거리더니 문득

《교환수동무!》

하고 힘을 주어 부르면서 다가서는것이였어요. 그의 눈은 다시 생기가 살아나더군요.

《교환수동무, 날 좀 구원해주시요... 제발 부탁입니다. 예! 힘 좀 써주십시오!...》

그는 언변이 능하지 못할뿐더러 격하면 말을 더듬는 모양이였어요. 그러나 그의 궁근 목소리에서는 절절한 심저이 울렸고 열망과 애원으로 하여 이글이글 열기를 띤 두눈망울과 검붉게 달아오른 얼굴은 그야말로 운명을 좌우하는 관결이라도 받자는 그런 표정이였어요.

마음이 좀 움직이였어요. 그러나 나는 이내 해주, 사리원, 평양, 함흥, 청진... 하고 중계할 교환소들을 꼽아내려가자 부질없는 노릇이라는것을 깨달았지요.

《글썽, 이보세요 될거문야 내가 뭘 그러겠어요. 무슨 다른 방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또 거절해버렸으나 그의 애절한 얼굴을 마주 바라보는 내 마음 역시 무엇때문인지 개운치 않고 뒤가 꼰렸어요.

청년의 얼굴은 삽시에 이그러지더니 모자를 짹 그려친 손이 경련이나 일듯이 부르르 떨더군요.

그는 고개를 떨구며 천천히 돌아섰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터벅터벅 밖으로 걸어나갔답니다. 나는 부지불식간에 천막입구까지 뒤따라 나갔어요. 그 거인청년은 천근무게나 진듯이 어깨와 두손을 축 처뜨리고 저녁노을빛이 스며드는 소나무숲 사이 오솔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있었어요.

그의 가없는 뒤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귀가에는 《교환수동무! 날 좀 구원해주십시오. 제발...》 하던 궁근목소리가 울려오지 않겠어요.

순간 나는 웬일인지 그에 대한 동정심이 가슴에 솟아올랐어요. 구원해달라는 표현은 어딘가 어색하기는하나 하여튼 무슨 몹시 급한 사정이 있다는것은 나도 이해할수 있었어요.

《동무- 동무- 돌아오세요.-》

청년은 멈춰서서 의아한듯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되돌아오는것이였습니다.

《하여튼 불러봅시다. 부르다 안되는건 할수 없어요...》

따라들어오는 그에게 나는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교환대에 다가갔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청진까지 전화가 계속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내 성의나 보여주자는 궁리였지요.

그런데 일은 뜻밖에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한시간도 채 안걸려서 청진교환을 불러냈고 그가 희망하는 철도건설사업소 초급당위원장회를 호출하였답니다. 기적이였어요.

해주, 사리원, 평양, 함흥, 청진 할것없이 어느 교환대나 처음에 불러냈을 때에는 《아-아-》하고 늘어지게 대답하다가 《여긴 해주-하성청년철도공사장인데요...》라고만 하면 이내 저편 교환수의 목소리는 웬일인지 갑자기 활기를 띠는것이였어요. 가령 평양교환대의 동무는

《해주-하성이라구요! 아유, 수고들해요. 어떻게 됐어요? 작업에 착수했다구요! 뭐요, 첫날에 215%라구요?! 아이구나 기가 막혀라! 축하해요. 동무들, 우리두 쫓기했는데 상부에서 허락 안해줘서 속상해 죽겠어요... 뭐 함흥을 불렀다구요. 지금 통화중인데... 좋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랑해를 구하구 해주-하성동무들에게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

이런식으로 전화는 거침없이 청진까지 이어졌답니다.

나보다도 옆에서 들고있던 그 동무가 더욱 흥분했어요.

《온 나라가 우릴 바라보구있구만요! 그런데 제길 난... 하여튼 고맙습니다.교환수동무...》

이렇게 종잡을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며 송수화기를 다급히 울켜주는 그의 얼굴은 한결 활기를 띠였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고 저편에서 몹시 되알진 목소리가 울려왔어요. 그러자 청년은 선뜻 말을 못하고 흘깃 나를 바라보는데 댓에는 망설이는 빛이 떠올라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전화가 끊어지면 어쩔라구...》

《여보쇼, 거 어데요?》 저편에서 재차 물었어

요.

그제야 청년은 결심한듯 두어번 빈 기침을 하더니 송화기에 입을 대였어요.

《당위원장동지십니까? ... 저 여기 해주-하성입니다.》

《뭐 해주-하성? 아니 자네 그럼 병식인가? 그래 첫삽은 댔나? ...》

《아, 아닙니다. 위원장동지... 저, 전 칠성입니다...》

《뭐 칠성이? ... 아-니 칠성이야 금강산에 가 있을텐데... 무슨 룡담을 하는가? ...》

《아닙니다. 위원장동지, 제 서칠성이 틀림없습니다. 전, 전 휴양소에서 라디오로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해주-하성건설장에 탄원하는 우리 철도관리국산하 청년열기대회 소식을 듣구... 기일도 없구 또 웅당 소장동무나 위원장동무가 승인해주실거라 믿구 곧장 여기로 왔습니다!》

《뭐뵈, 자네 정신 있나? 아니. 자네 기일이 늦구 뭇구 하는건 대체 무슨 소리인가? ...》

상대방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적당한 말을 고르지 못하는것 같았어요.

그러나 칠성동무는 어떻게 된 일인지 여직껏 안절부절못하며 말을 더듬던 그답지 않게 갑자기 침착해지더니 조리있게 전후사정이야기를 하는것이였어요.

김일성원수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매일 같이 온 나라 방방곡곡의 청년들이 해주-하성 철도건설장으로 탄원하여가는 소식을 듣자 가만히 있을수 없었다는것, 사업소에 가서 수속을 해가지고 오자면 시간이 늦을것이고... 그래서 궁리하다 못해 휴양소를 도중에 나와 곧추 찾아왔다는것, 고원역에 당도하여 알아보니까 그날밤 마침 청진철도관리국대대의 특별열차가 통과하기로 되어있기에 타고 따라왔다는 사실, 그러나 대대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딱 잡아떼었는데 하두 검질기게 조르니까그러면 일단 청진가서 파견장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라는 정도의 승낙을 얻었는데 이제 갔다오려면 한주일나마 걸릴것인 즉 생각다 못해 이렇게 전화를 걸었으니 부디 허락해달라는 사연 등을 자못 절절하게 이야기하는것이였어요.

처음에 저편 당위원장은 말도 안듣겠노라고 당장 휴양소로 돌아가라고 울리메더니 차츰 조용해져서 칠성동무의 말을 듣는것이였습니다. 칠성동무의 말이 끝나자 이윽히 침묵이 흘렀어요. 칠성동무의 얼굴엔 다시 초조와 불안의 빛이 떠올랐어요.

《흠- 동무의 심정을 알만하오. 그러나 승낙

은 못하겠어... 이미 우리 사업소에 해당하는 인원은 다 냈고 그리구 동무에겐 더 큰일이 기다리고있으니 곧 금강산에 되돌아가 마저 쉬고 오우!...》 하고 딱 잡아매는것이였습니다. 칠성동무의 눈이 멍해지더군요. 한참을 입만 병긋거릴뿐 말을 못하더군요. 이윽고 그는 송수화기를 두손으로 으스러뜨릴듯 짹 틀어쥐더니 입을 바투 갖다댔습니다.

《위원장동지, 허락해주십시오.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자꾸 그래서 남의 속까지 구슬리지 마오. 생각같아서는 나두 당장 뛰쳐가구싶소. 그때 동문 래후달에 공대 시험치러 가야 한다는것도 있었소?...》

《예? 공대...》

공대라는 말에 그는 불을 전것처럼 흠칫하였습니다. 그는 입을 짹 다문채 교환대 한 모서리를 뚫을듯이 쏘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듯하더니 이내 결연한 태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동지!》 그는 웬일인지 갑자기 격한 목소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계속하였습니다.

《여기는 바로... 읍천강기슭입니다...》

《아니 뭐 읍천강?...》

이렇게 반문하는 당위원장의 목소리는 놀라는 빛이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매화산도 보이는가?》

《예, 바로 그 산기슭으로 철길이 뻗게 됩니다...》

《흠, 그래...》

《위원장동지!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동지라면 여기서 발길을 돌릴수 있겠어요?...》

《음-》

저편에서 신음 비슷한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칠성동무는 마치 전화통속에서 상대방의 얼굴표정이라도 알아보려는듯 열기띠어 번뜩이는 눈매로 전화통을 뚫어지게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막연하나마 그들은 이 고장이 고향이라든가 그 어떤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는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딘가 먼 교환대에서

《아, 아- 끝났습니까?...》 하는 가냘픈 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씀중!》 하고 나는 당황하여 웬였습니다. 그러자 칠성동무가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당위원장동지, 대학은 래년에두 모집할게

아닙니까? 절 여기 남게 허락해주십시오. 허락 안한대두 전 절대로 여길 떠날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윽히 상대방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칠성동무는 더욱 안절부절 못하고 또 무엇인가 말할 작정으로 송화기에 입을 바투 갖다댔습니다. 이때 불쑥 《좋네, 칠성이》 하고 저편에서 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중단 말이야. 내 소장동무에게 말해서 파견장을 떼보내도록 하지. 그 대신 여보게, 본뽕 보이랴구, 본뽕! 내 똥까지두 말일세, 응!...》

《드 들었습니다. 위원장동지!...》 이렇게 웨친 그는 군대처럼 차렷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의 이마에 잡혔던 주름살은 간데없이 환해졌고 침울하던 눈동자도 금시 환희에 넘쳐 빛났어요.

《위원장동지, 그럼 이제 곧 우리 대대장동지에게 전할 돌릴테니 우선 날 쫓지 말라구 말씀 해주십시오!》

승기가 난 그는 천막이 날아갈듯 고래고래 웨치더니 수화기를 교환대우에 동맹이치고 경충 한달음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교환대우에는 녹초가 된 그의 모자가 그대로 놓여있었어요. 내가 모자를 집어들고 그의 뒤를 따라나가려고 일어서는데 그가 후닥닥 다시 뛰어들어왔어요. 그는 어리둥절한 나의 손을 짹 틀어쥐더니

《감사하오. 감사하오. 교환수동무! ... 대대장동무에게 전할 좀 돌려주시우!...》

그는 미처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모자를 앗아취더니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나는 어찌나 손을 짹 그러워했던지 눈곱에 눈물이 핑 솟구칠 지경이였어요.

나는 천막입구에 나가서서 허둥지둥 달려가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손아귀두, 두번만 악수하거든 빠가 부서지겠네. ... 하여튼 별난 동무야!...) 이렇게 생각하였답니다.

오빠, 바로 그 칠성동무가 《식당돌격대》에 나선것이야요.

아무튼 칠성동무의 탄원은 돌격대조직의 따분한 분위기를 깨뜨렸어요. 곧 20여명으로 되는 돌격대가 무어졌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돌격대가 말았지요. 그러나 갑자기 뽕죽한 수가 있겠어요. 또다시 연기가 피고 설고 타고 뚫어넘치고... 취사장이 아니라 말그대로 수라장이였어요.

칠성동무는 우리 조에서 불때고 밥가마 짓는 일을 맡았어요. 연기를 먹고 울다가도 위생복을 입고 엉겨주춤 하니 돌아가는 그의 물골을

보고는 누구나 웃지 않고는 못배기였다니까요. 글썽 제일 큰것으로 골라입었는데도 위생복 아래도리는 반외투처럼 무릎우에 건들 매달렸고 소매는 팔꿈치에 가 걸렸는데 걸을 때마다 위생복이 터질것만 같이 팽팽히 썰리었어요. 내가 슬그머니 곁에가서

《동문 어찌자고 식당돌격대에 들었어요? …》 하고 물었더니 그는 얼굴이 벌거우리해지면서

《왜요?》 하고 반문하는것이 아니었어요.

《글썽…》 나는 말을 더 못하고말았어요.

돌격대는 모두 애쓰며 돌아쳤고 특히 칠성동무는 비지땀을 철철 흘리면서 불을 댔다, 밥가마를 젖는다 맹활동을 했으나 결국은 타구 설구 죽이된 《삼층밥》을 만들어내구말았지요. 돌격대가 조직된 이튿날이었어요. 열시쯤 되어 배식이 시작되었어요. 나는 빈 밥통을 들고 우리가 말은 가마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칠성동무는 웬일인지 가마후령에 기대여 서서 아궁의 불빛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지 않았겠어요. (이 동무가 열곁에 뛰어들더니 후회가 나는 모양이지…)하고 나는 생각하였지요.

《칠성동무, 어서 밥을 퍼주세요!》

그제야 그는

《아, 참.》 하고 병긱이 멋지게 웃더니 급히 가마뚜껑을 열었습니다. 가마안에서 몽쿨하고 김이 솟는데 매캐한 탄내가 확 풍기었어요. 그는 골살을 찌프리더니 입속에서 뭐라 중얼거리며 밥을 푸기 시작하였지요. 마지막삽을 퍼담고나자 원일인지 그는 고개를 들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어요.

《교환수, 아니 명희동무였지요. 저 해주가 여기서 한 사십리 될가요?…》

나는 밀도끝도없는 그의 물음에 어안이 병병했어요.

《그렇지, 됐어!》 그는 애당초 내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은 모양으로 이렇게 영문 모를 소리를 하더니 가마안에 삽을 덜렁 놓고는 저편 배식구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는 식당직일관과 무엇인가 한참 말을 주고받더니 위생복을 활활 벗어던지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튿날은 아침부터 억수로 비가 내리퍼부었어요. 급년 들어서 처음 크게 내리는 비였지요.

날이 꺾으니 식당일이란 더 지저분하기 마련이지요. 장작개비는 실실거리며 내굴만 풍기고 가마가 끓어주어야지요. 이리하여 그날아침 눈

물동이나 흘러면서 겨우 생쌀조반을 치르고 다시 낫쌀을 씻는 열뒤시무렵이었어요.

취사장출입구포장이 펄떡 들쳐지더니 누군가 뛰어들어왔어요.

《에이 망할놈의 비, 졸딱 젖었군!…》

칠성동무였어요. 글썽 물참봉이 되어 몸에 착 달라붙은 그의 아래우 작업복은 혼술기마다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찬비에 오그라든듯 어깨는 더욱 구부정했는데 기름한 얼굴은 추위에 퍼렇게 질렸더군요. 그런데도 그는 무엇때문인지 기뻐서 싱글거리고있었어요. 그는 넓은 이마에 흩어져덜인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리는 비물을 푸푸 뺄으며 아궁앞으로 와서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손에 쥔 모자를 꼭꼭 쥐어짜는것이였어요.

《명희동무, 이젠 문제가 없소!…》 문득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들고 병긱 웃는게 아니겠어요.

《뭐가요? …》 나는 영문을 알수 있어야지요.

《아, 뭐겠어요. 참, 아직 점심은 안안쳤겠지요?…》 하고 그는 성큼 일어서더니 가마뚜껑을 열었습니다. 물만 실실 끓고있는것은 보자 자못 흡족한듯

《됐어, 점심전에 당느라구 막… 참, 직일관 동문 어디 있어요. …》 하더니 그는 조리장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게 아니겠어요.

(참 저 동무는 무슨 일을 저렇게 덤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조리장쪽을 바라보는데 그는 식당직일관하고 함께 다시 나타났어요. 직일관은 오늘 낫식사는 일체 칠성동무 지휘하에 한다고 선포했어요. 모두들 **도깨비에** 흘린 사람들같이 아연해졌지요.

(이건 또 무슨 변일가?…) 이런 표정들이였어요. 그러나 칠성동무는 웃도 안갈아입은채 피춤에서 젖지 않게 건사해온듯 한 수첩을 꺼내더니 《지휘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렴 삼층밥보다 더 못한 밥이야 만들라구!) 우리는 이렇게들 생각하고 그가 하라는대로 했어요.

물은 얼마 붓고 쌀은 몇말 두고 불은 어떻게 때며… 하는 식으로 그는 일일이 가마마다 돌아다니며 지휘합니다. 한참 불을 때다가 물이 잦으면 또 물을 몇바가지요. 가마의 어느 모퉁이를 저으시오 하는 식으로 그는 구부정하고 다섯개의 가마사이를 분주히 돌아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내 미타한 생각을 버릴수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조금씩 끓여내는것도 삼층밥인데 가마에 가득가득 쌀을 안쳤으니 또

어떤 새로운 5층밥이나 출현하지 않을까? ... 밤새 어디 가서 무슨 용빼는 재간을 배워왔기에 저 야단일가?...

제일 먼저 끓여낸것은 1호가마인데 우리는 조마조마한 다음으로 뚜껑을 열었어요, 괜히 그 역한 단내를 지레짐작하고 미리부터 꼴살을 찌프리는 동무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마안에서 물씬 피어오르는 김속에서는 역한 단내인것이 아니라 벌써 말아본지 며칠이 된 구수한 밥내가 확 풍기는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잘 믿어지지 않아서 삼으로 푹푹 속을 두져보았으나 찹찹 삼에 감겨올라오는 흰밥에서는 물씬하고 구미를 돋구는 밥내가 풍겼어요.

글쎄 우리는 환성을 올렸다니깐요. 아직도 후줄근히 젖은 옷을 입은채 한켠옆에 서있던 칠성동무는 고래고래 환성을 지르는 우리를 보면서 싱글벙글거리더군요. 키가 룡척실한 그 대장부의 얼굴은 흡사 어린애같이 애되어보였어요.

다섯가마중에서 두가마는 밑바닥이 좀 타고 한가마는 옷돌이가 약간 설었지만 그래도 전의 삼층밥에 비하면 약과먹는격이었지요.

이리하여 나흘만에 처음으로 온 대대가 한꺼번에 《진짜밥》 (이것도 익살꾼 박동무의 표현입니다.)을 먹었답니다.

저녁때에 직일관이 수수께끼를 풀어주었습니다.

칠성동무는 지난밤 그길로 해주로 갔다는것입니다. 마침 행길에서 그쪽으로 가는 자동차에 뛰어들라 열한시경에 가닿았습니다. 국영식당에서는 막 문을 닫으려던 참인데 해주-하성 건설장에서 있다는 말을 듣자 주방책임자는 패히 《기술전습》을 승낙하였대요. 그래서 온밤 《리론강습》을 받고 오늘아침엔 직접 식당밥하는데 붙어서 실습을 세가마나 해보고 열시경에 떠나왔다는것이였어요. 글쎄 두시간에 비가 억수로 퍼붓는 사십리길을 뛰어왔대요!...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모두들 그에게 달려들어 손을 잡아흔들며 치하를 하였어요. 그는 오히려 게면쩍은듯이 슬슬 뒤로 물러서면서

《이, 이러지들 마우...》 하고 떠듬거렸습니다. 무뚝뚝하고 지어 어수룩해보이는 그가 어데서 저런 아름다운 생각과 열정이 솟구쳐 오를가? ... 나는 돌격대를 조직하던 날 그에게 《어찌자구 동문 식당엘...》 하던 내 말이 귀에 살아나 스스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여튼 별난 동무야!)

×

오빠, 계속하겠어요.

그후 우리 대대의 건설사업은 막 양양되었어요. 물론 날개 달고 허공중천을 날듯 그렇게 쉬운것은 아니였지요. 글쎄 우리 동무들이 어떤 발기를 했나 보세요. 래년 5월 준공계획을 (그것도 왜놈때보다 3~4년이나 당긴것이지만) 세번이나 다시 당겨와서 결국은 금년 7월말에 첫 열차를 해주-하성에 모셔오자는것이야요.

성에서 온 기사랑, 어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을 딱 벌리였지만 우리도 뭐 주먹구구가 아니라 《설계》와 《계산》을 함께 내댈 발기니까 어쩔수 없었어요.

발기와 합리화안, 창안과 발명 등 우리 청춘의 온갖 지혜와 열정이 몽쳐 이 해주-하성 200리길에 기적의 꽃을 피우고있음을 이미 오빠도 신문, 라디오로 잘 아실거야요.

그러던 어느날, 낮근무였던 나는 저녁에 교대를 하고는 다시 질통을 지고 《도적작업》에 나가고있었지요.

나에게는 그때 불만이 많았답니다. 식당의 《긴장상태》가 완화되자 《돌격대》는 해산되고 다시 교환대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애초에 해주-하성에 탄원할 때부터 난 교환수를 할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환대의 동무는 대대장동무에게 해결하다 못해 나중에는 거의, 행패를 부렸는데도

《동무들이 다 현장에 나가면 온 대대가 줄지에 귀먹고 말먹은 병어리가 되는 판인데... 좋소. 그럼 교환대를 자동화해놓구서 마음대로 하오!》라고 오금을 딱 박아놓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다 못해 《도적작업》을 시작했어요. 당번이 아닌 시간을 리용하여 몰래 현장에 나가서 교량공사를 돕는답니다. 왜 《도적작업》이나 하면 책임일군들에게 들키우면 쫓겨나기때문이지요. 뭐 우리뿐인줄 아세요. 간접부문의 거의 모든 동무들과 지어 기본중대 동무들도 밤중에 몰래 도적작업을 하다가 들켜서 《책벌취침》을 당하군 한답니다. 책벌취침이란 말도 처음 들으시지요. 그건 도적작업시간만큼 이튿날 기상시간을 강제적으로 연장하는 우리 건설자들이 가장 질색하는 책벌이랍니다. 그래서 그즈음에는 감시병을 세워놓고 했답니다.

그날저녁도 불빛이 휘황한 교량공사장에서 밤교대동무들이 일하고있었지요.

나는 공사장에 다달오자 질통을 진채 1호교각을 파는 1소대동무들속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소대의 분위기가 몹시 가라

았었다는것을 대번에 느꼈습니다.

《허, 명희언니 나오십니까?...》

여느때 같으면 이렇게 익살을 부릴 박동무도 오늘은 고개짓으로 왔느냐고 인사할뿐 시무룩해서 곡괭이를 휘두르고있었어요. 교환수들가운데서 내가 만이라고 해서 박동무는 나를 노상 언니라고 부르는거예요. 나는 언뜻 머리에 짙이는것이 있었어요.

《박동무, 엿저녁 토의하던거 어떻게 됐나요?...》

나는 미타한 생각을 하면서도 박동무에게 다가가 가만히 물었지요. 그는 말없이 고개만 가로저으며 뚝 하고 곡괭이를 거머쥐더니 머리에 휘둘러 올렸어요.

(실패한게로구나!...) 나는 가슴이 덜렁 내려앉더군요. 그때 우리 대대의 시공구역에서 다른 작업장들은 모두 7월말이면 떨어질 대책들이 쏘는데 오직 이 읍천교교량공사만이 아직 앞이 잘 내다보이지 않는 형편이었어요. 많은 발기의 창안이 나왔으나 별 신통한수가 아직 없었습니다. 어제저녁 토의하던 문제는 가망성 있다고 떠들썩하더니 그나마 실패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이나 묵묵히 일을 하는데 문득 박동무가 허리를 펴더니

《오늘은 <식당지배인나오리>도 만나오시지만?》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누군가 옆에서

《아마 솔밑에 누렁지가 안붙은 모양이지. ...》 하고 받았지요. 그제야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났어요.

나도 아까부터 칠성동무가 만나왔다는것을 느끼고있었어요.

《식당지배인》이라는 칠성동무의 별명은 역시 박동무가 지은것인데 식당돌격대가 해산된뒤에도 칠성동무는 자기 소대인 1소대에 돌아오지 못하고 대대장으로부터 식당책임자임명을 받게 된 까닭도 있거니와 그보다도 건설자들이 삼총밥을 퇴치하고 식당료리의 질을 《혁명》하는데 바친 그의 공로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는데서 붙인 악의없는 별명이었지요.

그러나 칠성동무에게는 이 별명이 딱 질색이었지요. 처음 《식당지배인》이 되어서 얼마동안은 몹시 우울했답니다. 가뜩이나 말수더구가 적은 그는 더욱 무뚝뚝해지고 여간해서는 내친자가 사라지질 않았으니까요. 대대장에게 여러번 소대에 보내달라고 간청을 해봤는데 워낙 초시기 식당일에 혼이 난 대대장아바이는 귀등으로도 안듣더라나요.

그러다가 생각해낸것이 《도적작업》이었어

요. 말하자면 칠성동무는 《도적작업》의 첫 **발기자**들에 속하는셈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1소대의 교량공사장에 나오곤 했답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그는 종이에다 기름에 튀긴 누룽지를 한아름 꾸러안구 나와서 소대동무들에게 《퇴물》을 먹이곤 했거든요. 언젠가 한번 《도적작업》에서 돌아오는길에 그는 나에게 자못 심중한 표정이 되어가지고

《뭘하러 식당돌격대에 나왔느냐고 하던 동무의 말이 웅얼던걸 그랬습니다. 제길 참...》 하고 투덜거린 일도 있었지요.

그러나 칠성동무는 일단 작업에 들어서면 판사람처럼 활기를 띠어서 이따금 우스개까지도 끝잘 한답니다.

《글쎄 명희동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료리사가 될줄 누가 알았겠소... 하하, 이놈의 돌부리 꽤 깊다. 어디견더봐라. ...》

하면서 곡괭이날을 힘있게 돌부리밑으로 내리박군하지요. 언제나 보면 그는 작업장에서도 제일 돌이 많거나 감탕이 질퍽한 험한 구석에서 남모르게 수걱수걱 땀을 흘리고있곤 한답니다.

휴식시간같은 때 보면 흔히 밀차옆대기같은데 기대에 앉아서 무슨 책을 펴들고 연필로긋기도 하고 작은 수첩에 옮겨 베끼기도 하고있지요. 그러다가는 오락회에 불들려나오는데 그해서는 의례히 2소대의 꼬마처녀 분옥이하구 《노들강변》 맞춤을 추기 마련이예요.

그 꼴을 보구야 누가 허리를 펴수 있겠어요.

그리던 동무가 끝내 그날 저녁은 공사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새벽 한시가 넘어서야 나는 천막촌으로 향하여 들어왔어요. 읍천강 가교를 건너서 논둑길을 걸었어요. 읍천강 오른편기슭에 앉아있는 말잔등같이 밋밋하게 누워있는 매화산우에는 그믐 가까운 달이 부영계 젓빛 달무리를 두르고 떠올라있었어요. 나는 이래저래 심란한 생각이 들더군요.

《...벼룩도 낮짜이 있다는데, 7월 31일날 렬차가 달려가다가 읍천강앞에서 푸푸거리고 서버린다면 제기랄, 우리에게 무슨 낮짜이 있겠나!...》

아까 휴식시간에 투덜거리던 박동무의 말소리가 귀에 쟁쟁히 들리는것 같았어요. 나는 달무리두른 부드럽고 넓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속이 상해 죽을노릇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조국의 하늘아래가 비록 넓다지만 그 어디다 낮을 들수 있겠어요. 막울고라도 싶었어요. 그런데 칠성동무는 왜 만나왔을

가? 엿저녁에 자기도 뭘 하나 생각하는게 있다고하더니...

이렇게 종잡을수 없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매화산기슭의 오솔길로 접어들었어요. 다복솔이 다보록한 매화산 등성이를 바라보며 걷던 나는 그만 흠칫 놀라지 않을수 없었어요. 등성이우에 웬 불빛이 반짝거리고있는게 아니겠어요. 가만히 여겨보니까 술포기사이에서 웬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있었어요.

(어마나, 웬 사람일가, 이 밤중에?...) 나는 이윽히 서서 망설이다가 하여튼 지나쳐버릴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어요. 질통을 길가에 벗어놓고 발소리, 숨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기여올랐어요.

얼마나 기여올랐을가 한데 나는 문득 앞에서 삽날이 돌맹이에 맞히는 쟁그랑소리를 들었어요.

앞을 가리운 술포기를 헤치고 내다보았어요. 앓 하고소리를 지를번 했답니다. 글썽 칠성동무였다니깐요.

런닝그사쓰바람인 그는 삽으로 땅을 파헤치느라고 여념이 없더군요. 얼굴을 돌릴 때마다 번지르한 그의 긴 얼굴이 불빛에 번뜩거립니다. 다박솔가지에는 저고리와 등잔이 걸려있고 그 밑에는 물초롱 두개가 가지런히 서있는데 초롱우에 물지게를 가로 얹어놓았더군요.

(이건 또 어찌된 일일가!... 부뚜막이라도 무너졌나?... 그렇다면 진흙이야 식당뒤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 이런 썩은 바위버럭을?...)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큰 기침을 하면서 그에게로 다가갔지요. 그제야 인기척을 느끼고 나를 돌아본 그는 어쩔줄을 모르더군요.

《아니 무슨 일이 생겼나요?...》

칠성동무는 나의 물음에 더욱 당황하였어요. 꼭 장난을 하다가 들킨 어린애같이 말아요. 그는 흙투성이손으로 땀흐르는 이마를 쓱 문질렀어요. 그바람에 얼굴에 광대까지 그러졌지요. 나는 이 순간 께 하고 웃음이 나가더군요. 그러자 그도 빙긋이 웃었어요.

《뭘,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렇게 그는 변명 비슷이 중얼거렸어요.

《부뚜막이라도 허물어 졌나요?...》

《부뚜막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아이참, 그럼 식당뒤에 얼마든지 흙이 있는데...》

《있지만 그건...》 이렇게 그는 종시 애매한 소리를 하면서 다시 삽을 드는게 아니겠어요.

《도와드려요.》

《괜찮습니다. 그만두시오. 동문 피곤할텐데

...》

나는 아래로 뛰어내려가 질통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는 흙을 파내느라고 여념이 없었어요. 나는 흙을 두손으로 움켜서 초롱에 담아주면서 말했지요.

《소대동무들이 모두 풀이 죽었어요.》

《...》

《암만해두 제 기일에 못할것 같아요.》

《...》

《그렇게 되문 우리가 어디다 뉘을 들고 다니겠어요!...》

《...》

그래도 그는 응답없이 더욱 세차게 땅만 두저내고있었어요. 나는 슬그머니 약이 올랐어요. 어쩌면 저렇게 무뚝뚝하고 감정이 무딜가?... 나는 일부러 어성을 높였어요.

《엿저녁 토의하던건 가망이 없대요!》

그제사 그는 삽을 멈추며 고개를 돌리고 이마살을 찌프러더니

《그래요?...》 하고 힘없이 한마디 뱉고는 다시 삽질만 하겠지요. 나는 그를 돕구싶은 생각이 짱그리 없어졌으나 그렇다고 훌쩍 내려가기도 뭇해서 서둘러 두초롱에다 흙을 담아주었지요. 그리고 나는 질통을 지고일어서서 그에게 등을 돌려대고 《담으세요.》 하고 쌀쌀하게 말했어요. 흙을 한삽 떠올리던 그는 웬일인지 삽을 도로 땅우에 털쳐 내려놓았어요.

《어서 담으세요. 식당지배인동무!》 나는 이렇게 가시박힌 조롱을 섞어서 독촉했지요.

《네?》 하고 반문하는 그의 눈에는 께 섭섭해하는 빛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그는 이내 비죽이 웃으며 말하였어요.

《동무까지 그렇게 부르우. 그럼 내 사실대로 말하지요...》

《뭘 말이에요?...》

나는 의아해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나무가지에 건 저고리염낭에서 담배를 꺼내 등잔불에 대고 붙여몰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명희동무, 잘만 하면 이 흙이 우리 교량공살 이달안에라도 끝낼 방도를 대줄지도 모릅니다.》

《뭘요, 이 흙이요?...》

나는 어리뻑뻑해져서 그의 얼굴만 쳐다보았어요. 그는 싱글싱글 웃으며 나를 굽어보고 섰지 않겠어요. 《동무, 누굴 놀리세요!》 하고 쏘아주고싶었지요. 그러나 그의 성실한 눈매를 보자 나는 말을 심키고말았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요.?》

《이걸루 블록을 만들지요.》

《예, 블록요?…》 나는 더욱 땡땡해졌어요.

《네, 바로 블록을 만들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역사며 기관구, 보선구, 전차대 등 지금 벽돌축조로 건설하는 일체 구조물을 블록조립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는 인원은 절반나마 줄이구두 보름이나 기일을 앞당길수 있지요. 자, 이거…》

말에 승기가 나기 시작한 그는 열의 소나무 가지에 건저고리를 벗기더니 주머니에서 커다란 노트를 꺼내서 펼쳐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됐고 어조에는 더욱 열기가 떠올랐어요.

그는 노트에 적한 복잡한 도면들과 꼬리가 긴 계산들을 흠이 묻은 마디가 굵고 길다란 손가락으로 꺾꺾짚으며 이야기했어요. 그의 말에 의하면 이 석비레는 적당한 비율의 세멘트 한재와 섞으면 자연석 못지 않게 강도가 있을것이라는것, 블록을 만들어 구조물건설에 도입하면 거기서 절반이상의 로력을 떼어 교량공사에 집중할수 있으며 이렇게만 되면 교량은 7월 말이 아니라 보름은 더 앞당겨 완공할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글썽 그가 언제 이 모든것을 연구해냈는지!… 확신에 넘치는 그의 열정적인 연설을 들으면서 나는 그가 하려는 일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문득 그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파헤친 땅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땅에 쭈그리고 앉아 흙을 한웅큼 움켜쥐더니 내앞으로 내보이 있었어요.

《명희동무, 이게 어떤 흙인지 아오?…》

그의 말은 흥분으로 하여 떨렸어요.

《…》

《조국해방전쟁때 우리 대대는 바로 이 매화산에서 싸운 일이 있답니다.》

《여기서요?…》 순간 나는 피땀 언젠가 칠성동무가 청진에 전화걸던 때 일을 생각하였습나다.

《그렇습니다. 그때 건축설계를 하는 소대장동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매화산 석비레의 비밀을 대주었지요.…》

《그렇겠군요!》

《저번에 내가 전화를 건 우리 사업소 당위원장동무도 여기서 함께 싸웠지요. 그는 우리 중대장이었고…》

그는 무엇인가 더 말하려는듯하였습나다. 그러나 그는 웬지 그만두고 움켜쥔 흙을 이미 흙이 가득 담긴 초롱에다 던놓아 꺾꺾 다지더니 벌떡 일어서며 주먹을 부르짖었어요.

《될겁니다. 아니 꼭 되게 하구야 말겠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완만한 도래굽이진 읍천강기슭을 따라 벌어진 여기저기 공사장에서는 하늘의 성좌라도 내려앉은듯 무수한 전등불이 반짝이고있었어요.

나는 무엇인가 그에게 더 묻고싶었으나 그만 두고 질통을 돌려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우리는 그날밤을 꼬박 새웠습나다. 우선 우리는 그 석비레를 부드럽게 붙아야 했고 다음에는 약간의 세멘트와 한재를 섞어서 잘 이겨야 했지요. 다음에는 칠성동무가 미리 장만해둔 형틀에 반죽을 넣고 단단히 다져서 블록모형을 여러개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그대로 자연상태로 굳힌다면 사나흘이 걸릴 것이므로 증기양생을 시키기로 했지요. 글썽 그가 무슨 엉뚱한 궁리를 했나 보세요. 목욕탕같은 우리 취사장 가마안에 떡시루처럼 나무가지를 열기설기 걸쳐놓은 다음 블록을 들여안치고 찌단 말입니다.

여러가지 비율로 혼합한 블록 여러문개를 온밤 찌냈습나다.

이른새벽에 밥하러 나온 취사원들은 우리들의 흙투성이 꼴과 썩썩 김이 번지는 밥가마를 번갈아보며 어리둥절해하더군요. 그러나 김을 뽑는 밥가마를 열고 그안에 들여안친 석비레블록을 보구서는 모두 감짝 놀랐답니다.

블록을 다 찌낸것은 먼동이 희끄무레 밝은 새벽이었어요. 칠성동무는 식당마당에 블록들을 가려 놓고는 그중 하나를 집어 머리위에 높이 쳐들더니 땅에 메꿨는게 아니겠어요.

《아니, 동문 정신이 있어요?》 텅하는 땅구르는 소리와 함께 내 가슴도 무너지는것 같아서 나는 눈을 감으며 웨쳤어요.

《걱정마시오, 강도시험이요.-》 대범하게 대답하면서 그는 또 하나 쿵하고 메쳤어요.

몇개는 금이 지거나 이지러졌지만 절반이상은 아무흠도 안났어요. 칠성동무는 싱글벙글하면서 나의 흙투성이손을 덤석 쥐더니

《명희동무, 덕택에 성공한것 같소. 대대장동무께 보이고 해주에 보내서 기계로 정식 강도시험을 해보면 된단말입니다!…》

난 가슴이 뜨거워서 그저 고개만 끄덕이었어요.

그러자 그는 책 돌아서더니 대대지휘부천막쪽으로 쾅충거리며 뛰어갔어요.

그날 아침 식사하러온 대원들이 빙 둘러모인속에서 대대장도 우리가 찌낸 블록을 메쳐보았답니다. 대대장은 아까 칠성동무보다 더 높이 블록을 쳐들었다가 쿵하고 내리썰었습나다.

다. 그리고는 면밀히 손으로 쓰다듬어보더니
《중소 칠성동무, 곧 해수에 사람을 띄워서 시험해보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칠성동무의 손을 굳게 잡았어요. 물론 와르르 박수가 터졌지요. 칠성동무는 얼굴이 벌개서 어쩔줄을 모르더군요.

《그리구 칠성인 밥보다는 석비례시루떡을 더 잘 찌냈으니 할수없이 <식당 지배인> 자리에서 해임해야겠군. 하하...》

《정말입니까, 대대장동무!...》 칠성동무는 대대장을 막 끌어넘어뜨릴듯이 달려들어 손을 마주잡아 흔들었어요.

《아, 이 사람, 남의 손부릴 빼겠군! 어때, 명희동무도 열렬한 칠성이 동정자였으니까 기쁘지?...》

나는 그만 얼굴에 모닥불이 당겨서 부엌으로 뛰쳐들어가고 말았어요. 글썽 대대장동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말쑤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석비례시루떡이 어떤 대사변을 일으켰는지 아세요. 대대장동무의 표현에 의하면 그 석비례의 화강암같은 강도나 크림색 도는 색깔과 대리석같은 윤택은 아예 건축을 위하여 태어난 거나 다름없다고 하였어요. 우리 공사상은 물론 린근협동조합들의 달구지도 꼬리를 물고와서 파다가 문화주택을 짓는 형편이랍니다.

그후 칠성동무는 석비례블록 제작하는데서 일하다가 거기 일이 자리잡히자 본래의 자기 소대인 익살군 박동무네 1소대에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희한한것은 그 박동무가 발기하여 칠성동무와 함께 교각을 조립식으로 축조하는데 성공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말쑤거리 읍천교는 7월말이 아니라 7월 5일에 강우에 올라앉았답니다. 그들의 소대는 《불굴의 리수 복영웅돌격대》라는 으리으리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술한 신파기자들이 와서 그들의 얼굴을 찍어갔지요. 물론 그후에도 나는 《도적작업》을 계속하였어요. 그렇지만 1소대의 교량 공사장만은 안나갔어요. 칠성동무와 나를 두고 온 대대에서 여리가진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사이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아요.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칠성동무는 나를 만나도 이전보다 더 어색하게 존대하고 어려워했고 나 역시 어떻게 대했으면 좋을지 얼굴만 붉어지곤 했어요. 하지만 한편 나는 칠성동무에게 까닭없이 야속한 생각도 들었어요. 함께 일하는 교환수 정옥이란 애는 《넌 그 동무가 좋니? 애, 글썽 혁신자이긴 하지만서두 그렇게 똑배기라구야, 글썽, 넌 시인같이 감정이 섬세한 앤데 그는 뭐냐? 무뚝뚝이구 게다가 키는

전보대구, 옆에 서면 까맣게 쳐다보이는게 막 무섭더라 애...》 하고 룡담같이 놀려댔지만 나는 모욕감을 겨우 참았어요.

아니예요. 그는 그런 사람은 아니예요. 하여튼 그의 그 맑은 눈과 열정에 겨워 더듬거리는 말소리가 자꾸 내 가슴속에서 자리를 잡고 크는것 같았어요. 경박한 계집애! 하고 때로는 스스로 나의 이런 생각을 질책도 해보았지만 그건 소용이 없었어요. 정말 내가 경박해서 그럴가? 그러나 나의 심장은 수궁하지를 앓았어요. 하여튼 나는 1소대이웃의 웅벽공사장에 나가곤 하였지요. 가고오는 길에 남몰래 1소대작업장에 들러서는 작업실적을 내붙인 게시판앞에 서곤 했습니다. 하늘로 치달아올라가는 화살표를 바라보면 언제나 제 마음은 흐뭇해지곤 했어요. 어떤 때 지나다가 보면 칠성동무는 깊은 암석구덩이 아니면 까맣게 높은 휘틀꼭대기에서 세멘트가루투성이가 되어 콘크리트반죽을 이기다가 나를 보고 장잡을 들어 남이 볼가저어하듯이 슬쩍 흔들해보이곤 했어요.

(정말 무뚝뚝한지 몰라...) 때로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이참, 망측해라, 내가 뭘기에... 다신 안올래!...) 이렇게 속다짐을 하고서는 며칠씩 발길을 끊곤 했습니다.

X

7월중순, 공사는 마지막고비에 들어서서 부쩍 들끓었어요. 장마요, 자재난이요, 암반에 부딪쳤소, 지하수가 터졌소 하고 날마다 걸음마다 난관과 시련이 가로막아나섰으나 우리는 모두다 박차고 내달렸어요. 어찌 안그럴수 있겠어요.

글썽 6월말에 경애하는 김일성수님께서 우리 공사장을 찾아오신게 아니겠어요! 우리들을 여기 해주-하성 보람찬 청춘의 활두대에도 친히 불러주신 경애하는 우리의 원수님, 원수님께서는 첫 장마진 200리그 험한 공사관의 진창길을 몸소 밟으시며 돌아보시였어요.

오빠, 꿈결에도 그리던 아버지 원수님을 뵈던 그날을 어찌 잊을수 있겠어요. 원수님께서는 노을비낀 읍천강기슭 웅벽공사장으로 걸어오시였어요. 우리들은 매화산메부리가 떠나갈듯이 만세의 환호성을 높이 울리며 달려갔어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구두와 바지아래도리를 진흙속에 잠그고 서신채 우리들의 어지러운 손목을 잡아주시면서 동무들은 해주-하성 200리길우에 전설같은 기적을 창조하고있다고 치하하여주셨어요. 지금 온 나라가 전설의 룡마, 천리마를 탔다, 그것은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락

후한 나라를 물려받았기때문에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을 가고 남이 열걸음을 걸을 때 백걸음을 달려야만 남을 따라잡고 앞설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주-하성청년철도건설자들은 천리마가운데서도 제일 빠른 천리마를 탔다, 이런 뜻의 밀씀을 하여주시던 아버지원수님의 그 음성이 지금도 제 귀에 우렁우렁 울려오고있어요.

오빠, 아버지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속에 피가 끓고 살이 뛰는 우리 청년건설자들의 앞을 가로막을 시련과 난관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수 있겠어요.

우리의 격동된 가슴을 말로 표현하려 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야요. 건설초기에 성에서 나온 《간이 작은 기사》(이것도 박동무의 표현이지요.)는 우리더러 꿈을 꾸다고 했어요. 그래요! 바로 우리들은 공상가들이야요. 아직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대단한 공상가들도 꿈꾸지 못한 어마어마한 꿈을 가진 공상가들이지요. 적어도 우리 당은 한세기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우리세대에 한세기 앞세워나가 이 땅우에다 지상락원을 세우자는게 아닙니까! 그런만큼 우리는 자기 일생에 해야할 일이 옛사람들이 한평생 한 일의 백배, 천배도 더넘는다는것을 잘 알고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전설의 룡마, 천리마를 탄게 아니겠어요. 어느 환상소설을 읽어보니까 빛의 속도로 나는 로케트를 타고 열흘동안 우주를 다니다왔더니 그동안 땅우에서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라나요. 그래요. 우리도 천리마를 타고 해주-하성 삼년길을 한달반이라는 《빛의 속도》로 달리는거야요.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제일 빠른 천리마! 우리 시대에 이보다 더 큰 영광으로 불리우는 이름이 또 어디 있겠어요. 모두 기세충천했지요. 박동무가 말하다싶이 《시간이 우릴 따라오다 기진맥진하여 나자 빠지도록 고삐를 채보세!》 이런 기세였답니다.

그때 칠성동무네 돌격대는 교량공사를 마친 다음 우리 공사구간에서의 마지막거정인 5만 산꼭파를 위한 도항(화약을 재우고 폭파하기 위한 경도)굴진작업에 파견되어 일하고있었지요. 이 《5만산》이란 5만립방의 흙을 헐어서 산허리를 끊고 로반을 댕는다는 의미에서 불인명칭이랍니다. 이 5만산의 한가슴에 도항을 파고 화약을 안겨서 하늘로 날려보내기만 하면 해주-하성어간에 중중첩첩하던 아성중에서 최후의 아성이 허물어지고 길이 탁 열리는 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대는 력량을 집중하여 24시간을 줄곧 3교대로 나누어가지고 산중심을 향하여 사방에서 파뚫고 들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무렵, 웅벽공사장에 《도적작업》하러 나갔다 들어오던 나는 5만산으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오늘저녁은 칠성동무를 꼭 조용히 만나보리라 생각하면서 나는 읍천강기슭을 걸었어요. 벌써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한 매화산마루 저편 하늘에는 별거우리한 마지막노을이 비졌는데 그 노을은 또한 읍천강잔잔한 물결우에도 곱게 어려 출렁이였어요. 강기슭을 걷노라니 이래저래 심란한 생각들이 살아올라 가슴속을 구슬려주지 않겠어요. 그날까지 꼭 일주일째 나는 칠성동무를 못보았답니다. 공사는 거의 끝나가건만 우리는 한번도 한마디도 속에 있는 말을 건넨적이 없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는 내 가슴속에 자라고있는 심정은 그렇게 모를가?... 아니, 애당초 그는 나에게 대하여 관심조차 없는걸 가지고 공연히 혼자 마음을 썩이는거나 아닐가?... 정말 그럴지도 몰라. 그는 방금 대학시험치르러 떠날차비라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영... 그렇지만 어쩌면 이렇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을 나는 건잡을수가 없었어요.

오빠, 칠성동무가 이미 본직장에서 추천받았던 대학을 포기한것은 기억하고계시겠지요. 그런데 그는 그즈음 다시 대학추천을 받았답니다. 우리 공사의 준공기일이 래년 5.1절이던것이 금년 7월말로 앞당겨지자 칠성동무네 본직장에서 기별이 온거래요. 그리고 우리 련대지휘부에서도 그의 공훈을 참작하여 꽤히 승낙하였대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칠성동무는 준공식날까지는 갈수 없다고 고집하였으나 련대부에서 간곡히 타이르는 바람에 수긍했다는 소문을 바로 나는 대엿새전에 들었답니다. 소문을 듣고나서 은근히 그가 나를 찾아주기를 고대했으나 이틀사흘이 지나도 만나나볼수조차 없었어요.

방금 떠날텐데... 하고 생각하니 몹시 조바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날 낮에도 련대부에서 그 일로 칠성동무에게 연락이 있었다는데, 참 어쩌면 지나간 날들의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렇다고 말 한마디 못할거야 뭐겠어요!...

정작 5만산앞에 다달으자 나는 어제저녁처럼 또다시 망설여지는것을 어쩔수 없었어요. (마음은 이미 평양에, 대학의 널다란 강의실에 가있을 그를 만나서 내가 무엇을 말할게 있을가?...) 하고 말입니다. 하여튼 나는 다시 마음

을 다잡고 칠성동무네 굴진조가 작업하는 5만 산동쪽으로 돌아갔어요. 때마침 작업교대를 하고 나왔는지 칠성동무네 분대는 갯도입구의 여기저기 맨땅에 주저앉아서 담배들만 풀썩풀썩 태우고있더군요. 담배불이 뽀얗게 탈 때마다 웬일인지 침울하게 잠긴 얼굴들이 눈에 띄더군요. 웬일이겠어요? 노래와 춤과 웃음이 떠나지 않는 락천가분대로 이름난 그들이?...

그런데 유독 칠성동무는 갯구에서 좀 떨어진 버럭더미우에 올라앉아서 어스러져가는 노을 빛에 밝혀보느라 그러는지 책을 높이 쳐들고 들여다보고있는게 아니겠어요. 나는 무슨 일이 생겼나부다 짐작하였어요. 나는 익살꾼 박동무의 곁에 슬그머니 다가가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고 물었지요. 그는 대답없이 옆에 서있는 계시판을 턱으로 가리킵니다. 아닌게 아니라 곳곳이 날아오르던 경쟁도표의 화살표가 죽지를 꺾인 매처럼 거꾸로 떨어지고있지 않겠어요.

《웬 일이에요?...》

나는 가슴이 섹둑해서 박동무곁에 다가앉으며 다그쳐물었더니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글쎄, 도항굴진이 영 나가지 않는다는군요. 처음 파들어갈 때에는 버럭담아내는 일이 문제도 아니었는데 갯이 차츰 깊어지자 안에서 파내는 흙을 미처 달아내지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도 그럴것이 도항이란 워낙 사람 하나가 겨우 팔따리나 밀고 기다실이 하여 드나들수 있는 갯이니까요. 안에서 굴진하는 동무가 아무리 빨리 파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백명이고 착암기가 천개면 뭘 하겠어요. 결국 굴안에는 한사람이 겨우 기여서 드나드는수밖에 없는데! 이리하여 하루에 5내지 6미터씩 굴진하던것이 이 며칠은 겨우 뒤메터가 고작이라는 것이었어요. 일은 심상치 않게 되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공사기일이 열흘내지 보름은 밀려나갈 형편이라는거예요. 글쎄 열흘이라니 끔찍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칠성동무네는 요즈음 잠도 잇고 입맛도 잃고 별별 합리화와 기계화안을 다 짜냈으나 시원한 수가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보니 모여앉은 동무들의 얼굴이 형편없이 상했더군요. 더군다나 칠성동무는 광대뼈가 툭 빼여져 나오고 눈이 우뚝한게 얼굴이 더욱 길어보였고 이마에 새긴 주름살이 늙은이같이 깊은 골을 이루었어요. 그래도 책장을 들여다보는 눈만은 그 번뜩이는 정기를 잃지 않았더군요.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아직 못떠났구나....)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칠성동무와 함께 뒤떨어져 걸었어요.

둘이서 걷게 되자 그는 체면쩍어하면서도 그 험하게 된 얼굴에 억지로 웃음을 띄우며 웅벽 공사형편을 몇마디 물었어요. 그리고는 나더러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억지로 짓는 그의 웃음은 오히려 그의 피로운 심정을 말해주는것 같이 쓸쓸해보여 나는 가슴이 무거워지더군요.

그는 다시 입을 다물고 나보다도 한발 앞서서 터벅터벅 걸어가고있었어요. 나는 어깨가 축 처져서 무엇엔가 깊은 생각에 잠겨 먼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의 뒤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나의 눈앞에는 웬 일인지 칠성동무가 전화걸러 왔다가 거절당하고 돌아나가던 그날의 뒤모습이 선하게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정말 그때 전화를 안 걸어주었다면 그는 지금 이 피로움을 안당하고 마음 가볍게 대학에 갔을것이 아닌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들더군요. 순간 나는 (가라고 권하자!... 그가 가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불쑥 치밀었어요.

《칠성동무, 낮에도 런던부에서 연락이 있었는지요?...》

나는 발걸음을 죄어 그의 뒤에 바투 따라서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불쑥 나온 나의 물음에 그는 언뜻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나는듯이 의아쩍게 나를 돌아다보더니 이내 알았다는듯이 고개를 끄덕이었어요. 그러더니 그의 얼굴과 눈에는 잠시 무거운 빛이 실리더군요. 그는 다시 돌아서더니 수직수직 걸어갔습니다.

《시험치러 떠나세요!》

더욱 격해진 나는 언성을 높여 그의 뒤를 따르며 이렇게 권했어요. 그러자 칠성동무는 다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다보았어요.

《시험치러라니요?》 이렇게 웅근 목소리로 반문하는 그의 얼굴에는 놀라는것인지 서글퍼하는것인지 알수 없는 야릇한 빛이 떠오르더군요. 문득 그는 획 돌아서더니 다시 성큼성큼 걸어나가는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그가 어떻게 처신할지 종잡지 못하는것으로 짐작하고 바싹 뒤따르며 말하였어요.

《칠성동무, 미안할건 없어요. 이미 동문 해주-하성 200리에 술한 일을 해놓지 않았어요. ... 분덴 박동무에게 말기면 될거구... 그러구 런던에서도 뒤걱정 말됐다면서요?...》

《뭘, 뭘라구요?...》

칠성동무는 갑자기 이렇게 웨치면서 돌아섰

어요. 크게 부름 뜬 눈으로 나를 쏘아보면서 말했어요.

《명희동무… 난 도, 동무가 그렇게 말할줄은…》

몹시 흥분한 그는 말꼬리를 못맺더니 돌파서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가버렸어요.

《칠성동무…》 나는 뒤에 대고 부르짖었으나 그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벌써 그의 모습은 어둠속에 사라져버렸어요.

나는 그가 간 오솔길을 뒤따랐어요. 나의 눈앞에는 그의 크게 부름 뜬 이글거리던 눈망울이 선히 떠올랐고 《뭘, 뭐요?》 하던 그의 웨침이 귀에 쟁쟁히 울려왔어요. 그제야 나는 얼마나 그에게 어리석은말을 했던가하는 후회가 가슴을 조이더군요. 5만산을그냥두고, 마지막판 가리싸움에서 악전고투하는 소대와 대대의 전우들을 두고 그냥 갈수 없는 그의 뜨거운 심정을 왜 몰라주었을까? 나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곱이 찜해졌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5만산을 바라보았어요.

(오냐, 5만산아 두고보자! 그 동무는 너를 그대로 두고는 가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너를 뿌리채 뽑아엎고야말것이다!)

나는 주먹을 부르쥐고 이렇게 웨쳤습니다.

그로부터 이틀후의 일이었어요.

그날밤 나는 교환대근무였답니다. 아마 새벽 뒤시가 좀 넘었을 때였어요. 나는 전화도 별로 걸려오지 않으므로 앉아서 책을 뒤적이고있었지만 생각은 다른데에 가있었어요.

낮에도 가보니 갇혀진 계속 하강선을 그었던군요. 아무렴 신통한 방법이 그다지도 없을까?... 나는 지금껏 자신의 무능력을 그토록 뼈아프게 생각해본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 공사가 끝나면 직업도 아예 바꾸고 공대 입학시험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하였어요.

이런 궁리를 하고있는데 천막밖에서 인기척이 나지않겠어요. 정옥이가 나오는가싶어서 시계를 바라보았으나 아직 교대시간까지는 근 한시간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서는 사람은 뜻밖에도 박동무였어요.

웬 일인지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천막안을 휘둘러보더니 그만 기운없이 천막한편에 놓여있는 통나무결상에 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여기두안왔구만…》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는게 아니겠어요.

《누가요?...》

《분대장동무말이지요.…》

《칠성동무가요? 왜요, 어디 갔게요?...》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다그쳐물었습니다.

그러나 박동무는 내 말엔 대답도 없이

《런대부에 전할 좀 걸어주시요.》 라고 하였어요.

《전환 또 왜요?》

《아마 거기 갔을거요. 알아나봅시다. 마음이 나 놓게…》 하고 심드렁하니 대답하는것이 아니겠어요.

《런대부라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낮에도 봤는데…》

박동무는 매우 떠듬떠듬 사정애기를 하는것이였어요.

저녁교대를 하고 천막에 들어와보니 칠성동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식당에서 식사는 같이 한것 같은데...그러자 식사를 마치고도 식당 한켠구석 식탁우에 책을 펼쳐놓고 앉았던 칠성동무의 모습이 생각나더랍니다. 천막안이 떠들썩하니까 게서 공부하는게로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취침시간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은것을 보고 그냥 잠이 들었던 박동무는 새벽한시가 훨씬 넘어서 언뜻 잠이 깨었는데 그때까지도 옆자리가 비였더라고요. 그러자 불안한 생각이 든 그는 옷을 입고 식당으로 찾아갔나요. 그러나 식당동무들 말이 칠성동무는 거기서 초저녁에 좀 공부하다가 인차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5만산현장과 웅벽공사장 그리고 역사건설장과 지어 대대부에까지 찾아가보았으나 칠성동무는 아무데도 없더라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박동무가 하는 말이 아마 심중팔구는 입학원서를 가지구 런대부에 갔으리라는것이였어요. 어제 낮에 런대민청위원장이 내려왔다가 칠성동무에게 들려서 입학원서용지를 주면서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잘 생각해서 모레 아침 떠나는 인편에 보낼수 있도록 래일 저녁까지는 써서 보내라고 간곡히 타이르는것을 보았는데 전같이 딱 잡아떼여 거절하지 않고 우물거려 넘기더라는것이였어요.

《요샌 우리들의 기계화안토의에 잘 참여두하지 않구 분대장동문 틈만 있으면 책을 펼쳐들더니…》 이렇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무가 런대부에 입학원서를 갖구 갔단 말이지요?...》

나는 이 말을 박동무에게라기보다 자신에게 되묻는 마음으로 맥없이 입안에서 뭉그렸어요.

《아니 뭘, 그럴지도 모른단 말이지요. 그러나 갔단들 뭐…》

《걸어 봅시다.…》

나는 맥이 풀린 손으로 수화기를 귀에 걸고 신호기를 잡았지요. 나는 감히 참아두르지 못했어요, 순간 나는 요전날밤 내가 대학에 가라

고 권했을 때의 칠성동무의 모습과 그때 주고 받은 짧은 몇마디 말마디를 회상하고 거기서 무엇인가 해답을 얻으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갔을가? 공사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에 애타하는 본대원들을 두고...

나는 지그시 신호기를 돌렸지요. 전화를 받은것은 런던부의 서기동무였어요. 나는 박동무에게 옆에 걸린 또하나의 수화기를 주었지요.

《네, 누구요? 아, 칠성동무요. 네, 왔됐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버티었던 그 무엇인가가 디터여지며 우르르 허물어져 내리는것 같았어요.

《네, 돌아간지 한참 됩니다. 벌써 가닿았을 텐데...》

박동무는 수화기를 술머시 내걸에 놓더니 성큼 일어섰습니다.

《명희동무, 이제 마음쫘소. 난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그랬지 인제야 뭐... 가야지, 하지만 본대장동무두 그렇다고 의논을 못하겠으면 말이라두 한마디 하구 갈게지... 에이, 그저 그렇구나. 괜히 잠만 설때리구...》 이렇게 그는 마음을 종잡을수 없는지 중얼거리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펄렁하고 천막문이 드리우는 순간 새벽녘의 차거운 기운이 천막안으로 스쳐들어왔어요.

(갔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레 들면서 가슴속이 뻥 빈듯이 허전해졌어요.

얼마후에 교대를 한 나는 자리에 가 누웠으나 잠은 커녕 공연히 가슴속이 설렁해서 건딜수 없었어요.

나는 천막을 나와서 소나무숲사이의 달구지길로 나섰어요. 아직 동은 안떴으나 보름가까운 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어요. 나는 어느덧 매화산기슭쪽으로 뻗은 오솔길을 경황없이 걷고있었어요. 왼편 읍천강기슭에는 5만산의 피물같이 우중충한 검은 그림자가 뿌리를 안뿔히겠다는듯이 도사리고 앉았는데 산기슭일대에는 무수한 전등불이 반짝이고있었어요. 5만산 좌우편에는 해주와 하성쪽에서 뻗어온 철길이 달빛에 번뜩이며 아득히 굽이쳐보이는데 어서 맛물려달라고 손을 마주내민것 같이만 생각되었어요. 나는 어찌선가 이 모든것을 서글프게 바라보면서 청진에 전화를 걸던 그날밤으로부터 《식당돌격대》와 《도적작업》의 나날들을 회상하였답니다.

그런데 바로 매화산기슭에 닿았을 때였어요. 언젠가 바로 칠성동무와 함께 석비레를 파내던 그 산등성이에 그날밤처럼 조명등이 깜빡거리

고있겠지요. 웬일인지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살펴보니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

나는 칠성동무가 거기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했지만 무엇때문인지 그 불빛은 나를 이끌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칠성동무가 있겠지요. 그는 바로 우리가 석비레를 파헤치던 구멍이였다박솔밑에 그야말로 큰대자로 누워서 자고있었습니다. 나는 멍청하여 한동안 그의 잠자는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박솔가지에 걸린 조명등은 가늘어져서 까막거리며 그의 자는 얼굴을 겨우 비쳐주었어요. 그는 몹시 고단한듯 푸푸 풀무까지 불면서 자고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입학원서를 내구선 좀 뒹가서 천막에못들어가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문득 그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책들에 눈이 갔어요. 무심중에 우에 놓인 책 한권을 집어들었지요. 그것은 대학학습장이었어요. 갈피를 후르르 넘기던 나는 문득 연필을 끼운 맨 마지막장에서 그만 눈을 딱 멈추었어요. 그 갈피에 끼워놓은 심록절크기의 종이장복판에 큰 활자로 또박또박 찍힌 《입학원서》라는 네글자가 눈에 띄었던것입니다. 더군다나 놀라운것은 입학원서의 공백에는 성명이나 생년월일이 아니라 공사장에 흔히 있는 권양기의 락도가 그려져있었어요. 입학원서 다음장을 펼쳐보니 경력란공백에는 긴 계산문제들이 때곡하더군요. 나는 《입학원서》 앞뒤면을 다시한번 죽 훑어보았어요. 그런데 경력란 맨끝에 이런 글이 적여있더군요.

《소대장동지, 드디어 버력운반기를 완성했습니다. 꼬마상등병 서칠성!》

《자동버력운반기!...》 나는 한동안 멍하고서서 입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불시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또박또박 힘을 주어 쓴 글획들이 마치살아서 종이장우에서 움직이고있는것 같았습니다. 아마 학습장의 마지막장을 다 쓰자 종이가 없어서 《입학원서》 용지에 옮겨쓴 모양이었어요.

《그랬됐구나!...》 나는 속으로 웨쳤습니다. 나는 학습장을 천체 어언듯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눈확이 꺼지고 이마와 코마루가 튜달리도드라진 그의 수척한 얼굴을 바라보니 가슴은 더욱 메여오르고 눈굽이 자꾸 뜨거워져서 건딜수 있어야지요... 며칠을 안자구 밝혔으면 이렇게 산우에서 잠들어버렸을가?

나는 그저 한참이나 멍청하여 잠자는 칠성동무의 얼굴을 지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작업복저고리를 벗어 그의 옷동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칠성동무는 공하더니 몸을 외로 돌리며 눈을 번쩍 뜨지 않았어요.

《아니?!...》

그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주먹으로 눈덕을 벉벉 비비고는 다시 쳐다보는게 아니겠어요. 어쩌면 그 눈이 것처럼 맑고 생기에 넘쳐보이겠어요!

《아, 아니 웬 일입니까?...》

그는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듯이 눈을 슴벅거렸어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빙긋이 웃었어요. 목이 짹 메이고 말이 나와야지요. 뻔히 마주 바라보던 칠성동무는 《아 참, 마침 잘됐습니다. 이걸 좀 와주시오.》

그는 벌떡 뛰여일어나서 머리말을 찾는게 아니겠어요.

《여기 있어요...》 나는 학습장을 내주었어요.

《봤습니까? 뭘것 같습니까?...》

이렇게 련거퍼 물으며 바라보는 그의 빛나는 눈은 마치 나의 평가여하에 자기의 심혈을 기울인 창조물의 운명이 달리기라도 한듯 하였어요. 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힘있게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은 다시 아이들같이 반짝거리는게 아니겠어요.

《자, 좀 보시오. 이거문 저놈의 5만산을 뿌리까지 뽑는데두 일주일이면 충분하지요!》

나는 싱글벉글거리는 칠성동무의 얼굴과 도면과 계산문제로 짙 들어찬 《입학원서》를 바라보며 북받치는 가슴을 억제할수 없었어요.

《동문, 동문 정말...》

나는 그만 말을 못맺고 못나게도 주르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칠성동무는 당황하여 어쩔줄을 모르더군요.

《아니, 왜 이러시오?》

《아, 안예요. 기빠서 그래요. 자, 어서 기계내용을 좀 대주세요...》

그제야 그는 마음을 놓고 다박술가지에서 조명등을 벗겨들더니 불구멍에 입을 대고 후 불어서 불길을 돈구어 땅에 놓고 그앞에다 학습장과 《입학원서》를 펼쳤습니다.

공사장에 흔히 있는 권양기의 쇠바줄에다 나무로 만든 바가지를 여러개 달아서 일종의 바가지콘베아를 만드는것인데 이것으로 지금보다 도항버력반출능률을 대여섯굽은 쉽게 올릴수 있다는것을 그는 신이 나서 설명하는것이였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실없이 자주 눈물

만 솟구쳐 건딜수 없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동문 정말 별난 동무예요.》

이렇게 말하고보니 나는 그 말에 내 심정의 백분의 일도 안담겼다는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때 칠성동무의 수척한 얼굴이 확 붉어지더니 당황하여 손을 가로저으며

《아, 아니요. 이게 내 궁리라고 생각지는 마시오. 동무들의 발기를 내가 종합해서 만든지니까요. 난 다만바가지의 크기와 수량, 운반거리, 권양기의 동력 등에 대한 필요한 수자를 얻느라고 이 돌대가릴 썩였을뿐이지요. 그러다가 어제밤에야 겨우 공식을 책에서 찾아냈는데 이 무식쟁이가 풀수 있어야지요. 에이참!...》

《어떻게 풀었어요?...》

《럼치불구하고 지난밤 련대부에 가서 정기사동무를 깨워서 불잡구 대달렸지요. 그래가지곤 여기 와앉아서 금방전에 겨우 풀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서 짬박잡이 들었군요... 에이참, 과연 아는것이 힘이라니까!...》 하고 그는 그 가쁜한 하얀 이새를 드러내고 병긋 웃더니 뒤통수를 긁는것이였습니다.

오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이런 동무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생각한 자신의 웅색한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싶었어요. 나는 참을수 없었어요. 나는 그에게 용서를 빌고싶은 충동을 참을수 없었어요. 그래서요 며칠사이 품어오던 생각을 죄다 털어놓고 말았어요.

그는 그저 덤덤히 앉아서 듣고있었어요. 내 얘기가다 끝났는데도 그는 그냥 앉아서 산아래 여기저기 불이 휘황한 공사장들이며 그 멀리 별판과 산맥들을 자못 감개에 넘치는 얼굴로 바라보고있었어요. 그러더니 문득 고개를 돌려 우리가 앉은 매화산릉선일대를 휘둘러보는것이였어요. 웬일인지 그의 눈길은 언젠가 우리가 파헤치던 흙구멍이에 가서 멎었어요.

《명희동무, 저기가 바로 우리 소대장동무가 기관총을 끌어안은채 전사한곳입니다!...》

《네?》

나는 열기를 띠고 번뜩이는 그의 눈을 바라볼뿐이였어요.

《언젠가 제가 말하다 말았지만... 그때가 바로 재진공때 일입니다.》

그는 발밑에서 석비레흙을 한웅큼 움켜쥐면서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남진하던 우리 부대는 바로 이 읍천강기슭일대에서 적과 대격전을 했습니다. 련대 우익에서 나가던 우리 대대는 이 매화산고지를 점령했으나 적들도

해주를 지척에 둔 이 계선에서 완강하게 반격해나섰습니다. 이 고지아래 지금 저 공사장으로 적의 대병력이 기를 쓰고 밀려들군 했지요. 우리 대대는 고지에다 소병력을 남겨 적을 견제케 하고 주력은 몰래 기동우회하여 적을 측면에서 타격섬멸할 계획을 세웠는데 고지를 견지할 임무가 우리 소대에 떨어졌지요.

바로 이 통선이 우리 소대가 차지한 진지였답니다. 살펴보십시오. 아직 풀이 그닥 무성하지 못한데가 있지요. 바로 그것들이 우리 소대가 전호를 파고 었디여 스물네시간을 배겨낸 피의 자국들이랍니다.… 참, 우리소대동무들이 얼마나 좋은 동무들이었던지 아시우!

별명이 <지질탐사대>라는 동무는 나처럼 고증을 다니다 뛰어나온 동문데 장래 리상이 지질탐사대원이 되어 배낭을 하나 메고는 온 삼천리강산의 보물을 살살이뒤져내는 일이였지요. 그의 무겁고 배부른 배낭 절반을 차지하는 표본주머니에는 부대전투행로를 따라 수집한 울망줄망한 돌멩이와 흙덩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심청> 이라는 별명을 가진 동무가 있었지요. 뭐 너잔줄 생각지 마시오. 그는 아무리 엉겁결에 지르는 소리라도 <어머니> 가 아니라 <아버지!> 를 불렀지요. 어머니를 모르고 자란 사람이거던요. 틈만 있으면 아버지에게 편질 쓰거나 전우들에게 아버지자랑이지요. 어머니는 지주집 조발을 매다가 밭고랑에서 그를 낳고 열흘만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가 심봉사 심청이 기르듯 업고다니며 동냥젖을 얻어먹이여 길렀다니깐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가면 승용차를 한대 사서 아버지를 모시겠다는거였지요.

춘보아바이병사는 일제때 머슴군 로총각으로 늙어오다가 해방된 이듬해 봄에는 김일성원수님의 덕분으로 땅을 받았고 서른다섯살에 장가들었는데 벌써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놓고 나왔다나요. 늘 아들 딸자랑으로 입이 마를새가 없었는데 큰놈은 늙은데 오르길 좋아하니 비행사를 만들고 둘째 놈은 이마가 벗어졌으니 학자선생님을 시키고 딸년은 날씬하게 생겼으니 무용가로키운다나요.

<시인> 이라는 별명을 가진 동무도 있었지요. 그는 강선계강소의 민청로 용해공이였대요. 그의 걸작시로 말하면 전후에 자기가 계강소에 돌아가서 건설하리라는 아직 세상에 류례없이 크고 자동화된 전기로를 두고 읊은 시인데 그야말로 불길같이 열렬하게 그리고 광만적으로 읊군 하였지요. 우리 소대장동무는 늘 그를 <공상적이며 광만적인 시인> 이라고 부르곤 했

답니다.

말이 났으니말이지 우리 소대장동무는 또 어떻게요. 우리 소대장동문 공대 건축학부 3학년에 다니다가 전쟁이 일어나자 입대한 용감하고 지혜있고 꿈많은 팔팔한 지휘관이였지요. 그는 늘 짬만 있으면 전쟁승리후 자기가 설계할 작정이라는 주책이며 문화궁전들의 락도를 붉은 수첩장에 그려서 온 소대원들에게 보이곤 했습니다. 그 수첩은 전쟁이 일자 정치공작대로 갈라져 떠났다는 동창생애인의 선물이라나요. 어떤 때 보면 전호벽에 기대여앉아서 연필꽂다리를 잘근잘근 씹으면서 먼하늘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기도 했지요. 그런 후면 또 하나 엉뚱한 구조를 가진 집이 붉은 수첩에 그려지곤 했습니다. 춘보를 비롯한 소대내의 <아바이병사> 들은 소대장의 설계가 기본적으로는 팬찰치만 따뜻한 온돌방과 김치독물올데가 없는것이 흠이라고 하였고 우리 젊은 병사들은 아바이들을 락후하다고 비난하면서 소대장을 무조건 지지했습니다.

밤중에 대대는 기동우회작전으로 떠났습니다. 소대는 온밤 네번에 걸치는 적의 반격을 격퇴했지요. 동이 푸름히 텅습니다. 벌써 우리는 다섯명의 귀중한 전우들을 잃었습니다. 소대장의 명령으로 우리는 적의 반격이 뜸한 틈을 타서 조반으로 건빵을 씹고있었습니다. 그런데옆에 있는 소대장동무는 바로 이 석비레흙을 전호벽에서 우벼내여 손수건에 뽁뽁 싸더니 배낭에 건사하는게 아니겠어요. 나는 의아해서 물었더니 그는 석비레의 성능을 쭉 얘기해주면서 이런 석비레로 집을 지으면 산갈이 든든할게라는것이였어요. <그리고 이 색깔을 보게. 이건 그저 쭉 한번 바르기만 하면 다야. 미장이 다뤄졌다. 뽁안 닭알빛갈나는것이 그저 그만일세. 어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꼬마가 꽃같은 색시한테 장가들 때 내 이 석비레로 집지어줄가? 하하…>

<체, 소대장동무두…>

소대에서 나를 꼬마라고 불렀지요. 키나 몸집으로 보면 그때도 소대는 고사하고 대대에서도 날 당할 사람이없었는데 내가 나이 두살을 속이고 입대한것과 제일 어리다는것으로 하여 일부러들 그렇게 불렀지요. 나는 질색이였지만…

문득 옆에서 소대장동무가

<꼬마, 전쟁이 끝나면 우선 우리 여기로 오지 않겠어?> 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말하였지요. 그는 고지 아래를 바라보고있었습니다.

<왜요?>

<왜라니, 저기 보게. 마을이 죄다 타버리지 않았나!...> 영채도는 눈으로 고지아래를 가리키며 소대장동무는 계속했지요.

<와서 우리 이 매화산기슭에다 이 석비레로 별장같은 문화주택들을 바란듯 쪽 지어놓자우!>

<정말요? 그러자요! 소대장동무하구 함께라면 좋아요!>

<약속하자우!>

우리는 손을 마주잡고 굳게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명희동무, 결국 나 혼자 이렇게 오게 되었군요...>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더니 얼굴에 침뚫힌 빛이 어렸어요.

《온종일 우리는 다시 다섯차례 적의 반격을 격퇴했는데 대대의 공격진호란은 오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우리 소대는 단 여섯명만이 남았던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오는 최후의 결사전을 각오했지요. 소대장동무는 소대전투원모두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고사령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또박또박 서명을 했지요.

그리고나서 소대장동무는 누구든지 한사람 빠져나가 고지의 위기를 대대부에 보고함으로써 대대작전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하면서 우리들을 빙 둘러봅니다. 웬일인지 소대장을 비롯하여 전체 전우들의 시선이 약속이나 한듯이 나에게 와서 멎었습니다.

나는 벌써 알아차리고

<아, 아입니다!> 하고 펄쩍 뛰었으나 어쩔 수 없었지요.

<칠성이, 명령을 기억하려는가!>

소대장동무의 불같은 호령이었어요. 춘보아바이도 옆에 있다가

<꼬마, 전투마당에서 응석을 부릴 작정인가!> 라고 평소에 그답지 않게 성이 나서 호령하더군요.

나는 울며울며 고지를 내려갔어요. 대대에서 우회기동을 마치고련대지원포의 사격을 기다려 공격을 개시할 태세를 갖추고있었지요. 나는 탄약과 수류탄상자를 메고 고지로 돌아가겠다고 고집했으나 우리 중대장동지가 붙잡구 좌죄야지요.

글쎄 고지를 바라보니 소대동무들은 여섯번째로 기여드는 적들과 맞붙은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지우에서는 차츰 총성이 드물어지더니 나중에는 오직 중기관총만이 살아서 자지러지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나마도 이따금 기절하

듯 똑 그쳤다가는 또 정신을 차린듯 되살아나곤 하였지요. 나는 벌떡 뛰어나가다가 다시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지원포의 일제사격이 적의 뒤통수에서 터지고 대대는 질풍같이 적의 측면을 찔고 들어갔습니다.

나는 경황없이 매화산으로만 치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고지에 올라섰을 때 명희동무... 초연이 서려 감도는 전호에는 <지질탐사대>의 배낭을 비롯하여...>

그는 목이 꺾 메이는지 말을 더 못잇더니 눈에 눈물이 맺혀 불을 타고 주르르 흐르더군요.

《마지막까지 중기를 쏜것은 소대장동무였어요. 그는 중기앞에 마치 조국의 땅과 얼굴을 맞비비며 무엇인가 속삭이기라도 하는듯이 었다여있었습니다.

그날저녁, 바로 지금 저 산우에 있는 렬사묘에 전우들을 묻은 대대는 일제히 총을 높이 들고 조총을 쏘았지요. 멀리 강산으로 메아리쳐가는 총소리를 듣는 순간 웬일인지 <지질탐사대>이며 <심청>이며 <시인>, 춘보아바이 그리고 소대장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들의 맑고 불타는 눈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요.

<꼬마, 우리가 다 살지 못한 생을 너에게 물려준다. 다만 사랑하는 이 조국땅의 미래를 두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을 많이 가졌었으며 얼마나 많은 꿈과 설계를 가졌던가를 잊지 말아다오! 그리하여 너와 많은 후대들이 부디 잊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꿈이 이 땅에서 꽃으로 피게 하여다오...> 이렇게 말입니다.》

오빠, 그 순간 눈물어린 칠성동무의 눈에서는 정말 불꽃들이 튀어나오는듯 했어요.

《...그날밤, 소대전우들의 이름을 복수기록장에 새겨넣은 나는 다시 진격의 대오에 들어섰습니다... 술한 원쑤를 좌죽였지요.

하지만 명희동무! 나의 복수기록장은 기어이 제국주의를 무덤속에 처넣은 다음에야 저 렬사묘앞에서 총계를 낼 작정입니다!... 한데 내가 발길을 돌려요? 저 5만산을 뿌리뽑지도 못하구? 나를 바라보는 전우들의 눈앞에 서서 땀땀이 전투보고하기에는 너무나... 아직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오빠! 제가 무슨 말을 할수 있었겠어요. 나는 저도모르게 칠성동무앞에서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말았답니다.

...

오빠,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조국땅 그 어딘들 선렬의 피가 스미고 넋이 깃들지 않은데가 있

겠어요. 그들은 어머니 조국땅을 그리안고 죽을 때 녀넌했을거예요. 그들이 다 살지 못하고 바치는 생을 우리 후대가 물려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그들의 꿈과 이상이, 그 휘황한 미래에 대한 설제가 우리의 손에서 이루어질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오빠, 나는 이전에는 한번도 미처 이런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생각해본적이 없었어요. 많은 시의 구절에서 그런 뜻의 말을 외우고 제 입으로 랑송까지 했었지만 그때 그것은 나의 생각인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에 불과했던것이야요. 부끄러워요.

그러나 칠성동무는 어떤 사람입니까. 칠성동무는 조국의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쟁취하는 싸움에서 우리 인민과 우리 당이 치르어낸 커다란 고통들과 아픈 상처와 모든 희생들을 함께 치르었으며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있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쟁취한 오늘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온몸, 온 심장으로 감득하고있는 동무이며 그렇기때문에 칠성동무는 방금이라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돌도 없는 조국을 위하여 바칠> 준비가 되어있는 참다운 우리 시대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세상에 그는 무서울게 없으며 못할 일이 없었던것입니다. 어리석은 나는 칠성동무는 겉보기와 달리 꾀있고 총명하고 엉뚱한데가 있는 좋은 동무라고만 생각했지요. 과연 꾀와 총명이 인간의 모든것이겠습니까!

오빠, 고종나을 때 내가 표방한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소위 평판대로가 싫다는 나의 구호는 조국이나 생활에 대한 진실한 이해와 성실한 태도에서가 아니라 공명심과 허영에 뜬데서 나온 독선적인것이였어요. 사회와 모든 사람들의 운명속에서 자신만을 두드러지게 돋보이려는말입니다.

나는 《도적작업》에 나가서 질통에 흙을 눌러담고 뛰었으며 영예게시판에도 올랐지만 아직 내가 진 흙과 뛰는 걸음은 인민학교(당시) 때 백메터 경주하던 그 경쟁심을 벗어나지 못한것이 아니겠어요!

이제야 겨우 나는 조국에 대하여, 참된 생활, 참다운 사람에 대하여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한것 같아요.

나는 멀리 희끄무레 동트는 하늘가로 물결처럼 밀려간 산발들과 싱그러운 새벽바람을 실려 보내오는 무연한 벌판을 바라보노라니 그 산발과 그 벌판에 대하여 여적 느낀 일이 없던 그런 뜨거운 생각이 가슴에 몽클 솟았습니다.

《조국땅이여! 이 철부지로 자라난 딸년을 용

서하여주소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디어 이렇게 빌고싶은 생각이 뜨겁게 온몸을 달구는것이였어요.

×

오빠, 하여튼 그 이튿날로 칠성동무의 《바가지콘베아》는 당장 도항굴진에 도입되었고 그리하여 5만산꼭과는 예정보다도 사흘을 앞당기게 되였습니다. 그 오만무례한 5만산 한가슴에 20대의 자동차로 화약을 무덕무덕 실어다 안겼지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10리밖으로 피해가서 꼭과를 기다렸답니다. 시간이 되자 먼저 산뿌리가 뿔히는듯 한 흙기둥이 매화산상공에 치솟았고 다음에는 지심을 구르는듯 한 구르릉소리가 나더니 그야말로 지진때처럼 밟고 선 땅이 흔들흔들하는 바람에 우리는 모두 비칠거렸어요.

우리는 곧 자동차에 갈라타고 흙먼지에 싸여 어떻게 됐는지 알아볼수 없는 5만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동쪽에서 바라보니 동강난 산 저편에 해주쪽에서 와닿아있는 철길이 보이더군요.

우리들은 《김일성원수 만세!》를 소리높이 웨쳤습니다. 동무들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수 없는 환성을 울리며 서로 얼싸안고 돌아갔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 익살군 박동무가 건드러지게 손뽕금을 칩니다. 산등성이에서는 일대 군무가 벌여졌습니다.

문득 나는 사람들속에서 류달리 쟁충거리고 돌아가는 칠성동무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칠성동무도 나를 보았습니다. 그는 모자를 벗어서 머리우에 휘휘 내저으면서 꼭 애들처럼 쟁충거리며 달려오지 않겠어요.

우리는 덥석 손을 마주잡았어요.

《명희동무!...》 그의 궁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불타는 맑은 눈동자를 마주 쳐다보면서 내 심정을 표현할 그런 말을 생각해보았으나 가슴만 울렁거리고 목은 꼭 막혀말이 나와야지요. 칠성동무는 싱글벙글하면서 나에게 무슨 말인가 했으나 귀가 잉잉거려 알아듣지 못했어요.

《난- 난 동무가 제일...》

오빠, 나는 부지불식간에 목안에 기여드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그만 얼굴에 모닥불이 확 끼었히는것 같아서 《안예요!》 소리치면서 방향도 없이 산아래로 내리달렸어요.

《명희동무- 명희동무-》

자꾸 부르는 소리가 뒤따라왔어요.

×

오빠, 저의 편지는 끝났어요.
 며칠후 우리는 제 손으로 놓은 철길을 달려
 평양으로 가요. 김책공업대학(당시) 통신학부
 추천을 받았지요. 우린 다 운수공학부라나요.
 그리구선 집에 가서 휴가를 놓고 다시 고무
 산-수성간철도공사장에 갈 작정이랍니다. 우
 리는 일생을 철도건설에 바치기로 약속했거던
 요.

준공식날 밤에 칠성동무는 우리의 전망계획
 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답니다.

제1기 해주-하성, 고무산-수성 등 철도건설
 시대,

제2기 철도전기화시대,

제3기 철도자동화시대, (칠성동무의 말이 그
 때가 오면 철도에는 평양사령실에 몇사람의 기
 사가 앉아있는데 그들이 철도종업원의 전부일
 것이라고 하였어요.)

참 벌난 동무예요. 무슨 전망계획이 꼭 력사
 의 시대구분 같다니깐요. 그렇지만 저도 찬성
 했어요.

오빠, 이만하겠어요.

저는 오빠가 저희들을 잘 리해해주리라고 믿

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안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제 편지를 보시면 꼭 리해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오빠가 모든것을
 잘 여쭙어주시리라는것도 나는믿어요.

곧 만날 때까지 오빠, 부디 안녕히 계세요.

《해주-하성》에서 누이동생

명희 올림

×

나의 동생의 편지는 끝났다.

그들은 작년에 《지하리-평산》 1계단공사
 에서 공을 세우고 지금은 동해안 명천-단천간
 의 전기철도공사에서 함께 일하고있다. 말하자
 면 그 애들은 아직도 각기 합숙에서 살고있다.
 이 괴벽한 청년들은 통신대학졸업장과 기사자
 격증을 받은뒤에야 그 문제에 대하여 고려하기
 로 약속하였다는것이다. 하여튼 나는 그들이
 멀리 붉은 노을피는 미래의 지평선까지 한쌍의
 수리개처럼 억세게 나래쳐 날아가리라는것을
 여러 독자들과 함께 굳게 믿는바이다.

(1960년)

명언해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열백번 바뀌어도 변할수도 바뀔수도 없는것이 백두의 혈통이며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백두의 혈통, 백두산의 혁명정신이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생명선이라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

백두의 혈통은 우리 민족의 녀이며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명맥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수령결사옹
 위정신이며 그 어떤 난관도 맞받아 뚫고나가는 공격정신이고 억천만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며 자기 손으로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겠다는 자주의 정신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백두의 혈통을 이어받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감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 조국은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는 세대가 열백
 번 바뀌어도 변함없이 백두의 혈통, 백두의 혁명정신을 이어나감으로써 **김일성**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영원
 히 빛내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끝나지 않은 고개길

송명근

《특별임무》 받고 가는 길

이 소야
걸음 채우재우 어서 가자
산마루에 걸터앉은
저녁해는 떨어지려는데
소고삐 잡은 병사 고개길을 오른다

오늘도 헛탕이다
들리는 마을마다
자기네 소가 아니라니
어떻게 주인을 찾는담
병사 어지간히 다리맥이 진했다

풀돋은데로
발가는대로
경계구역 넘어
병실 골짜기로 들어온 소
주인이 찾아오면 돌려주리라
병사는 배심종게 기다렸는데

군사임무 아닌
중대장의 《특별임무》 병사는 받았다

백리라도 천리라도
임자찾아 소를 돌려주라고
우리는 장군님군대라는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소야 이 고개 어서 넘자
걸음걸음마다
《장군님군대》, 《장군님군대》
속으로 외이면
씹-또 한굽이 돌고
언듯 고개마루다

산들바람부는 고개마루에
군모 슬쩍 젖히고 앉아
잠간 땀들이고싶다만
병사가 받은 《특별임무》
인민위한 걸음이다

이랴 어서 가자 이 소야
인민을 찾아가는 길에 연착되면 안되지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할아버지네 집대문 두드리고
《이 동네 소가 아닙니까?》
그러면 소뿔이랑 코뚜레랑 만져보고나서
《우리 소가 아닌데...》

분조장의 소매자락 붙들고
《이 분조 소가 아닙니까?》
그러면 탐나는듯 소영치 철썩 치고나서
《우리 소가 아닌데...》

만나는 사람마다

아닌데... 아닌데...
자기네 소는 아니라면서도
병사의 손 덥석 잡아
아래목으로 이끈다 밥상앞으로 이끈다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샘물이 찰랑이는 박우물로...
파일바구니걸로...
왜 자꾸만 이끌가?

제집 소는 아니지만

다름아닌 제집 소를 찾아준것 같아서...
인민재산의 고삐를

든든히 틀어쥔
병사의 손 한번 잡아보고싶어서...

병사의 꿈

굽이굽이도 많은 령길
소고삐 잡고 넘다가
발동소리만 들려도
경적소리만 울려도
병사는 가슴이 후두두...

끊임없는 전선길 이어가시는
최고사령관동지
고개길 어느 굽이에서 만나뵈옵듯
발동소리만 들려도 웃기 머미고
경적소리만 울려도 군모를 바로잡더니

병사는 아예
꿈에 잠기고말았네
대낮에 눈뜨고
걸으면서 꾸는 꿈
아예 믿어버렸네

회초리를 휘두르는 병사앞에
야전차를 멈추신 장군님
가벼이 허리굽혀 물으시겠지
《총잡은 병사의 손에
소고삐가 웬일이요?》

병사는 부끄러워
몸둘바를 모르고

손전사도 못하고
《저... 소임자를 찾느라구...》

병사의 애타는 사연 들어주신 장군님
얼마나 호탕하게 웃으시는지
산발이 찌르릉
《좋아, 좋아 이런 병사가 바로
나의 병사야
나의 병사!》
그러시면서 어깨를 두드려주시겠지

표창중에 이런 표창
또 어디 있담
《나의 병사》 《나의 병사》!...
온몸이 뚱뚱 떠오르는듯

무아경에 잠긴 병사
눈뜨고 꾸는 꿈
걸으면서 꾸는 꿈
깁줄 모르네

아, 글썄
저 병사
걸어가며 혼자 빙글거리니
지나던 로인도 영문을 몰라
사면팔방 두리번거릴밖에...

끝나지 않은 고개길

끝나지 않았다 병사의 길
굽이도 많고
갈래도 많은
소임자 찾아가는 고개길

병사와 소고삐 함께 잡고 걸어온
시인도 이제 노래를 맺으련다
병사는 반드시
소임자를 찾게 되리니

구태여 그리지 않은들 어떠랴
물집잡힌 발 절룩이는 병사
농장원에게 소고삐 넘겨주는 순간을

병사의 《특별임무》는 이제 끝나리라
허나 이 땅에 장군님병사들이 있고
인민이 있는 한
인민에게로 뻗은 병사의 길은
끝나지 않으리라

갈 숲

공승길

아광구지의 동쪽공사판은 곡성으로 유명했다. 첫째로는 남편을 잃은 너인들의 가슴허비는 곡성이요, 둘째로는 고혈을 짜바치고도 외상술을 먹지 않으면 안되는 인부들의 취해빠진 녀두리요, 셋째로는 갈매기들의 구슬픈 울음소리이다.

인부들이 여러명씩이나 동쪽에 파묻힌 그날도 그 다음날도 아광구지는 실로 곡성으로 그득했다.

저녁노을조차 피빛을 띠어 어찌나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지 남의 불행에 제 설음이 갑자기 치밀어올라 울음을 터뜨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일너는 갈숲에서 남몰래 혼자 울었다.

이웃에 사는 곱단네 아버지장례에 쓸 떡가루를 봉으러 석구지에 건너갔다 오다가 그 저녁노을을 보았던것이다. 때일찍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손목에 끌려 정처없이 떠다니던 류랑생활이 설음을 자아내게 했던것이다.

갈숲너머에서 타령소리가 들려왔다.

에헹

물새들은 강변을 슬피 날아도

어딘가는 기다려줄 보금자리 있다네

누군가 또 막걸리를 잔뜩 마시고이 《화풀이판》으로 들어오는 모양이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곳 사람들은 갈숲을 가리켜 《화풀이판》이라 부르고있었다. 인부들이 바글거리는 공사판이나 토굴집, 합바집들이 이마를 맞비벼대고 들어앉은 인부촌에서는 도저히 화풀이가 당치 않은지 속에 얹힌것이 있으면 이곳으로들 나와 제나름의 푸념질을 하곤 했다.

사람이란 그렇게라도 화풀이를 못하고서는 살수 없는 모양이다. 더우기 세상이 모두 왜놈의것으로 되다보니 사람들이 더 자주 갈숲을 찾는지도 몰랐다.

간석지기슥에는 갈숲이 무연하게 펼쳐져있다. 봄이면 묵은 갈잎을 들추고 끝이 예리한 햇갈들이 뽕뽕뽕 돌아나 삼시에 누르스름하던 갈판을

뒤덮곤 했다. 달디단 봄비가 갈판을 추덕추덕 적시고 봄바람이 살랑거리면서부터 같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란다. 이렇게 키높이 자란 같은 밤이나 낮이나 그저 와슬렁대며 품에 안겨드는 불쌍한 사람들을 애무하고 눈감아주었다. 갈숲은 너그럽기도 하고 미궁같이 가슴섬찍한 곳이기도했다. 너인들의 치마꼬리에 왜놈들이 묻어들어가는 날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기때문이다. 순정을 잃고 곤두벌레가 득실득실한 물웅덩이에 뛰여든 너인들이 어찌 한둘이랴...

《그쪽에선 들어갈 때가 안됐수?》

언제 떠여왔는지 갈대너머에서 일너쪽을 향해 이렇게 물어온다. 타령을 뽑던 그 《막걸리》의 목소리가 귀에 익다하면서도 제 생각에만 빠져있던 일너는 황황히 대답했다.

《예, 가요.》

그는 얼른 팔소매로 눈굽을 씻고 떡가루가 담긴 버치를 머리에 이었다.

(에그, 내 무슨 정신에 그렇게 오래... 곱단네 집에서 기다리겠는데...)

스적스적 갈대 헤집는 소리가 저쪽에서도 났다. 뿔뿔그레한 공지에 나서서 얼굴을 보는 순간 일너는 놀랐다.

아버지와 함께 장석운반을 하는 밀차군 무섭이었던것이다.

《<농어잡이>에 나갔다고 하느니.》

일너는 지옥사자에게 끌려갔다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몸이 다 오싹해졌다.

《밤물에 돌아왔지.》

《그런데 농어는?》

《대짜배기 한놈 잡아가지고 가또놈한테로 갔됐다. 놈은 나를 노려보다가 뜨물통에 처박더구나. 흥.》

《호-》

《엇그제 동쪽에 또 술한 사람 묻혔다며? 이렇게 죽구 저렇게 죽구 이러다간 동쪽막아 기름진 땅 한번 부쳐보자던 인부들의 소망은 이루어지기 커녕 제 한목숨건지기도 어려울것 같구나. 내

너무 속이 답답해서 화풀이타령이라도 한마디 하자고 나왔었는데…》

그의 축 처진 어깨를 바라보는 일녀의 눈에는 서글픈 기색이 진하게 흘렀다.

왜놈때문에 멧힌 가슴속 응어리를 풀려는 그 성민 사실 얼마나 대바른것인가. 했으나 그때문에 무섭이가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만 쓰러온다.

…그때에도 가라말을 타고 동쪽공사장에 나온 가또주임놈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아 화단을 가져왔었다. 십장놈이 소리질렀으나 그는 귀에 못이라도 박힌듯 밀차를 몰았었다.

빼국빼국…

일녀의 아버지 인근이 《어서 비킵세.》 하며 그의 팔을 붙들었으나 그것이 어찌나 굳어졌던지 두번 다시 말이 입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 자식! 귀가 먹었는가?》

팔에 시뻘건 완장을 두른 왜십장놈들이 헐레벌떡 달려들어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채찍이 새된 소리를 내며 허공을 찢었다. 가뜰이나 너덜너덜 고삭은 무섭의 옷이 도리깨에 쿵튀어나듯 쪼박쪼박 떨어져 동쪽우에 흩날렸다.

가또는 급히 말을 멈춰세웠다.

뚝갈을 먹면 살이 핑핑 오른 가라말은 무섭을 짓밟고 넘어갈듯 앞다리를 높이 들었다. 왜십장한놈이 악에 치받쳐 채찍으로 그의 목을 졸라맸다.

무섭의 두눈알에 금시 튀어나올듯 했다.

말우에서 무섭을 내려다보던 가또가 흠칫했다. 어딘가 낯이 익었던 모양이다.

《십장! 이놈을 <농어잡이> 에 내보내라.》

《예!》

왜십장을 뜯어말리던 인근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가또의 눈에 비낀 살기가 너무도 소름끼쳐서였다.

《아! 무섭인 죽겠구나. 어서 이 아광구지를 떠나보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놈들은 동쪽을 쌓을 때 조금이라도 불온한 기색을 보이는 인부들은 《농어잡이》란 이름을 붙여 석평개굴로 도막궁이 하나만 주어 내쫓곤 했다. 워낙 순한 농어지만 주낙에 걸리기만 하면 사납기 그지없었다. 푸들쩍거리며

날뛰는 수십키로짜리 농어와 인부와의 싸움은 가또에게 커다란 흥미거리이기도 했다.

가또는 양옥집 2층 객실에 앉아 녀편네가 부어주는 술을 들이키며 빼만 앙상한 인부가 농어의 꼬리에 맞아 도막궁이우에서 비칠거리는 광경을 감상하곤 하였다. 2차세계대전후 군대에 징집되어 만주별관에서 돌아가다 다리에 부상을 입었던 놈은 그 수치감을 이런 놀음으로 씻어보곤 했다.

거기에도 일제총독부 토지국에 있는 이종사촌형 스즈끼는 여기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했다.

《한갓 물고기로 조선사람의 넋을 빼앗는단 말이지. 아주 그럴듯 한 아이로니다.》…

인근은 무섭을 떠밀었다.

《당장 떠나라구. 자네도 알겠지만 그놈의 농어잡이란건 사람잡이야.》

《하지만 난 그럴수 없수다.》

《자네가 가또놈을 버리고있다는건 나도 아네. 하지만 자칫하다간 고기밥이 되고말아.》

《아니, 난 그놈에게 톡톡히 보여주고싶은게 있수다. 조선사람이 숙맥이 아니란걸 말이우다.》

《쇠통 내 말따윈 안듣는군. 그렇다면 나도 한마디하세. 난 자넨 사위로 삼을 작정이었네.》

《예?! 그건 무슨…》

《흥, 우리 애가 안사람구실을 제대로 못할것 같아서? 천만에! 자네같은 더꺼머리에 대면 그랜 봉황이야, 봉황! 이래도 사지판에 부득부득 나가겠어?》

무섭의 시꺼먼 얼굴이 더욱 지지벌개지고 솔뚜쟁갈이 큰 손이 뒤더수기로 다가갔다.

《날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니 고맙기 그지없지요 만 난… 난 내 갈길이 있수다.》

《쩌… 저런.》

인근은 입을 향 벌리고말았다. 허파에 바람찬 녀석같으니. 제깃녀석, 갈길이 정 있다면 붙잡지는 않겠다. 하지만, 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예뻐가는 딸을 두고 인근의 한숨이 잦아지는줄 누가 알랴. 비록 해진 무명치마저고리를 입었을 망정 젊음이 팽팽히 깃든 탄력있는 몸매, 걸어갈 때마다 어깨우에서 춤추듯 하는 쌍태머리, 보기만 해도 마음이 숙부드러워지는 맑은 눈동자 왜놈들이 판을 치는 눈꼴시린 세상에 고운 딸 둔 걱정예 불따구니살이 다 빠질 지경이다. 사내라고 생긴놈이라면 미련없이 흘 췌버리고도 싶었으나 한만 남기고 떠난 제 어머니

를 생각하면 그렇게 두 못하겠구. 그러다 그중 속대가 있어보이는 무섭을 점찍었다. 그러면 손아귀에 바싹 넣어 일너에게 깨 쏟아지는 생활을 시킬것만 같은게 벌써부터 속안이 혼 혼해온다. 그런데 뭐 제 갈길?! 생각갈아선 한대 쥐여박기라도 하고싶었다. 동쪽막아 땅이 마련되면 농사질 생각을 해야지 아직 두 제 누이동생 원썬았는데만 정신을 팔아?...

서쪽하늘에 비졌던 노을이 스러지고땅거미가 사방것들기 시작했다.

무섭은 무슨 생각에 그렇게 움찔했는지 코앞에 물웅덩이가 있는것도 가려보지 못했다.

일너는 땀에 함초롬히 젖어든 머리칼을 반반 쓸어올리며 걸었다.

《농어를 잡아왔다구 놈들이 그냥 놔둘가요?》

《글쎄 ... 하여간 무슨 꿍꿍이를 꾸미겠는지 가또놈은 또 나가라는거야.》

《그래서요?》

《또 나가겠어. 그놈의 뜨물통이 터져나가든 내가 죽든... 어쨌든 우린... 우린... 숙맥이 아니야.》

일너는 피익- 웃었다.

(아버지말마따나 고집이 여간. 아니구나.)

일너의 아버지 인근은 뜨내기생활로 반생을 보낸 불행아였다. 원래 황해도의 궁벽한 산골에서 지주의 소작을 부처가며 근근히 생활하다 어느해엔가 휩쓴 홍수에 손바닥만 한 그 땅마저 잃고말았다.

인근은 행여 다른 땅을 얻어볼가 해서 평을 잡아가 지고 지주를 찾아가 비단웃자락에 매달렸다.

《나리!》

《씩 물러가게! 땅복이라곤 아예 없는 청송꾸러기 같은것, 너따위들한테 땅을 주면 또 사태가 나.》

인근은 간청하고싶은 용기마저 잃고말았다.

설상가상이라고 거기에서 일너의 어머니와 일너의 동생들이 동네를 휩쓴 장질부사에 걸려 한낱한시에 저세상사람이 되고말았다.

하늘에선 벌써 그해의 첫눈이 내리고있었다.

텀벙텀벙 눈물을 쏟으며 언제 한번 배불러보지 못한 신신들을 땅에 묻고있는데 개화장을 짊은 지주가 나타났다.

《사람의 도리로 봐선 안됐네만 묘를 옮겨주게.》

《나리! 여기야 퍼두 못심을...》

《자넨 이 산줄기에 붙어있는 내 밭들이 몽땅 사태에 물렸으면 하는 그런 고약한 심본 아니겠지? 살아서 화단만 가져오던놈은 죽어서도 그런다네.》

《뭐 뭐라구?!》

손가락이 꺾쇠같이 구부러든 인근의 손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지주의 상판대기로 날아갔다.

그날밤, 인근은 일너의 가냘픈 손목을 쥐고 정처없는 류랑의 길에 올랐다. 금전관, 숯구이, 철공소, 닥치는대로 붙들고 정들이자고 했던만 땅에 대한 갈망중에 실낱같은 정 한오리 없어보지 못한채 자리를 뜨고 또 뜨곤 했다. 그러다 아광구지라는 곳에 새땅이 생겼다는 말에 구미가 동해 밭길을 돌렸다.

터벅터벅, 타박타박.

온몸이 노곤해져 이광구지라는 곳을 찾아갔을 때 짙은 안개에 뽕얇게 휩싸인 갈숲이 그들을 맞아주었다.

듣던바 그대로 무연한 펼쳐진 간석지부터 불줄알았던 인근은 화가 동해 신총이 끊어진 미투리를 와락벗어던지고 거기서로 뛰어갔다. 그러다 갈그루터기에 발바닥을 찢어냈다.

《넌장, 도대체 새땅판이라던 감탕판은 어디 있어?》

눈앞을 잔뜩 가리운 그 안개밭속에 평소에 소원했던 땅이 감춰져있는것만 같아 인근은 갈숲에 대고 《이보슈, 사람이 없소?》 하고 소래기를 질러댔다.

이때 와슬렁소리가 들리더니 웬 더꺼머리녀석 하나가 대나무몽둥이를 둘러메고 나타나는것이였다.

일너는 기겁할 정도로 놀랐다. 더우기 자기를 본 더꺼머리의 얼굴이 험하게 이그러지는것이 아닌가.

했으나 인근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마치 거기서 도깨비가 뛰어나왔다고 해도 반가와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입이 벅룩해졌다.

《여기서 땅을 준다는 말 맞아? 동쪽막고 3년은 거저부처먹으라구 말일세. 헌데 그 땅이 어디 보여?》

《흥. 불쌍한 저 따님이나 갈숲에서 잃지 않겠거든 돌아서는게 낫수.》

《거... 무슨 말대꾸가 그런가, 영? 이 두역시니

같은 사람아!》

《뭐요? 다시 한번 그따위 소릴 했다간 경칠줄 아시우. 난 죽은 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우.》

무섭은 인근을 금시 지옥에라도 끌고 갈셈인지 눈을 흘기더니 썩- 사라져버리고 마는것이였다.

인근은 어이가 없어 여전히 견힐줄 모르는 안개발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다.

《그래 녀들은 먼데서 땅을 보자고 온 사람에게 그렇게밖에 인사할줄 모르느냐, 영?》

허나 도대체 갈굼이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그저 해풍에 와슬랑와슬랑 설레기만 할뿐.

이튿날.

안개는 말짱 걷히고 갈굼너머로는 무연한 《새땅》이 나타났다. 썰물에 꺼묵하게 드러난 간석지는 실로 그의 두눈을 휘둥그래지게 하였다. 돌멩이란 찾아볼래야 볼수 없고 꿀죽같이 흐들흐들한 기름진 감탕판이 아득히 펼쳐져있었던것이다.

그는 신도 미처 벗지 못하고 거기에 뛰어들어 감탕을 한웅큼 떠서 걸탐스레 냄새를 들이켰다.

머리가 피잉- 돌았다.

《일녀야! 이걸 보아라. 얼마나 땅이 기름진가. 흐흐.》

《아버지!》

인근은 동쪽공사장에 나가 무섭게 일했다. 쇠로 만든 사람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밭도 모르고 낫도 모르고...

수백정보를 헤아리는 광대한 면적의 간석지개간은 일체의 《산비중식계획》의 실현을 위한 중요고리로서 《대본영》의 후원과 재벌들의 탐욕속에 미친듯이 감행되고있었다. 손바닥만 한 땅도 레외로되지 않았다. 조선의 황무지조차도 제국의 치부에 착실히 이바지해야한다는 강도적인 논리에 따른것이다.

인근의 육체는 날로 쇠진해갔다.

했으나 그는 제 몸조리는커녕 동자질에 손마를 새 없던 일녀까지도 수문공사장에서 벌어지는 자갈까기에 내몰았다.

《동쪽막아 하루빨리 땅을 나누어가지는것이 이애비의 소망이다.》

그때만 해도 간석지개간방법은 공법이라고 말할수 없을 정도로 유치한 처지에 있었다. 동쪽이 앓을 자리길을 확정 한 다음 그걸 따라가며 말뚝들을 세워박았다. 그뒤로 질통이나 밀차로 감탕,

버럭 등을 날라다 쌓았다. 얼핏보면 바다를 어떻게 그런 질통이나 밀차로 막을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익은 음식》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캄캄한 밤.

동쪽을 예견하며 줄느린히 서있는 말뚝사이로 가랑잎같은 도막궁이 하나가 빠져나가고있었다. 악을 품고 농어잡이에 또 나가는 무섭이었던것이 다.

못자리들이 썩어서 삐적거리는 널죽우에 앉아 갈피리를 불던 그는 무슨 생각이 들어선지 그걸 바다에 던져버렸다. 애수에 잠겨있기가 질색이었던 모양이다.

이때 우뚝 솟은 동쪽 끄트머리에 부처처럼 나앉아있던 웬 사람이 무섭을 향해 무엇인 핵 집어 던진다. 단단히 끈 삼바에 매달린 돌멩이가 무섭을 지나치는가싶더니 방향을 돌려 그의 목을 불안고 빙빙 돌았다.

《사람 살리오!》

동죽우에 선 사람이 줄을 당기는대로 도막궁이는 슬슬 따라 나왔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무섭의 고향소리에 인근이 싱긋 웃었다.

《농어판에서 살아 돌아왔다니 장하이. 하지만 내갈으면 그 길로 동쪽공사장에 나올거네 자고로 땅이란...》

《난 동쪽같은건 상관없수다. 내 가슴에 맺힌 한만 풀어보자는건데... 가또놈을 그저...》

《흥. 어벌두 크다. 그런 소린 동쪽막아 땅가진 다음에나 하라구.》

인근은 이렇게 혀를 내돌렸다. 도막궁이가 동쪽에 와당자 그는 무섭의 손에서 노대를 뺏아들었다.

《어서 우리 집으로 좀 가세.》

《왜요? 무슨 일이 났어요?》

《있어두 큰 일이 있지.》...

수문공사장에 나가 해종일 자갈을 까고 몸이 나른해서 집에 들어선 일녀는 구광돌우에 놓여있는 매생이같은 지하죽 두켢레를 보게 되었다.

《아버지! 누가 왔어요?》

《음, 빨리 뭘 좀 차려가지구 들어오너라. 오늘은 저승에 가있는 네 애미도 기뻐할 날이다.》

《예?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부터 넌 이 사람의 색시다.》

《아니?! 아버지, 혹시 취중에 하시는...》

《저런 못난년 봤나. 사람이 마시기도전에 주정부터 한다더냐?》

일너는 날벼락이라도 맞은듯 한동안 어빙빙해 있었다. 한순간 지나서야 그의 눈꼬리가 바람맞은 초볼처럼 파르르 떨렸다.

그는 왈칵 복받쳐오르는 까닭모를 설움에 이렇게 부르짖었다.

《아버지! 난... 난 못가요.》

그는 빨래감이 들어있는 소랭이를 안고 황황히 밖으로 나섰다.

낮가락같은 초생달이 하늘에 떴다고는 하지만 사방은 어둑시근했다. 물가에 나온 그는 수줍음을 금치 못해 빨래감을 들어 와락 거기에서 얼굴을 묻었다.

한참만에야 그는 저녁도 못들고 기다리고있을 볼썽한 아버지생각에 집으로 향했다.

그러다 집앞에서 갈로 엮어만든 살쥔을 열고 나오는 무섭이와 마주쳤다.

안에 낫선 사람이 있으니 아마 되돌아나오는듯 싶었다.

《아니?! 농어잡이 간다드니. 어서 들어가요.》

일너의 얼굴에 반기는 빛이 확 어렸다.

그러자 무섭은 몸쓸 장난질을 하다 들킨아이처럼 몸돌바를 몰라했다.

《일너! 난 사실... 내따위가 뭐게. 벼락맞을 일이지.》

무섭은 씩씩거리다 어둑속으로 썩 - 사라지는 것이었다.

일너는 머리를 기웃거렸다.

(별이 다 있구나. 오늘은 왜 그럴까?)

소랭이를 놓고 방안을 들여다보니 아버지는 벌써 네활개를 펴고 코를 골고있었고 방한가운데는 빈 술병이 소반우에 댕그라니놓여있었다. 한켠 구석, 언젠가 자기가 무섭에게 기워주었던 그 장갑이 놓여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바로 무섭? 아이고, 아버지!》

일너는 장갑잡을 아버지의 너부죽한 가슴팍에 짹 집어던졌다. 그의 두볼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런 더꺼머리 사내와 일생을 산다는 것이 아득한 일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이란 눈물겹게도 이상한 것이었다. 무섭이 왔다간 그날에는 소중한것이 매몰당해버린듯한 아픔에 가슴이 얼얼하더니 한동

안이 지나서부터는 그것이 자기의 운명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일너네가 무섭을 알게 된것은 아광구지에 왔던 그 첫해 가을이였었다.

...무서리가 잔뜩 내려 갈숲이 하루밤새 곤죽이 되어버린 그해 초가을.

밤대거리작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인근은 갈숲에 쓰러져있는 무섭을 보게 되었다.

인근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다 드러난 잔등살갓으로부터 피가 흘러나와 꾸둑꾸둑해진걸 보고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들쳐업었다. 체구가 거클쳐보였는데 진작 업으니 가벼웠다.

《फल 중군. 혼을 붙잡으려다 그렇게 됐나?》

《...》

무섭은 아무말도 없었다.

한참 걷던 인근은 흠칫 했다. 볼똥같은것이 목덜미에 떨어져 후끈후끈한다.

《영 목석인줄 알았더니 자네두 사람은 사람이었던게군.》

이렇게 갖다놓힌 무섭은 내쳐 이틀을 앓았다.

일너는 동정심에 사로잡혀 진물흐르는 그의 상처에 느낌가루를 개여 붙여주곤 했다.

이따금 무섭은 신열에 떠서 《경옥아! 경옥아!》 하고 헛소리 치곤 했다.

인근은 머리맡에 앉아 곰방대를 맡았다.

《제 안사람이었던 모양이군.》

《볼썽하지요?》

《피장과장이지.》

그러다 사흘째되는 날에 눈을 떴는데 인근을 보자 허우적거리며 그의 두손을 부여잡는 것이었다.

《아바이! 여길 프라요. 가또란놈은 더러운 개놈이에요.》

《밀도끝도 없이 그건?》

무섭은 더꺼머리를 싸쥐고 부르르 어깨를 떨었다.

《말 다해선 뭘하겠수. 부모를 일찍 잃구 막돌처럼 굴러다니던 나와 누이동생은 동쪽공사가 벌여지자 이쪽으로 왔수다. 돈푼이나 벌여 호구지책 두 하구 꽃같이 번지기 시작하는 그애에게 치마라두 한벌 사입혀보자구말이우다. 우리 경옥이가 얼마나 고왔는지 아시우. 다들 선녀같다고들 했지요. 그런데 그애가 자갈가려 나갔다 오다 갈숲에서 그만 사라졌는데 도저히 찾을수가 있어야지

요. 난 1년을 찾아 해뒀수다. 그애 혼이라도 찾아 볼가 해서 말이우다.》

무섭은 팔소매로 눈굽을 뺨 씻었다.

《그러다 엇그제 아바이의 딸을 어슬렁어슬렁 뒤따르는 가또놈을 보게 됐지요.》

일너는 그만 《악!》 하고 소리쳤다.

인근의 불편이 눈에 띄게 실룩거렸다.

《순간 우리 경옥이도 이놈이 어쩔으리라는 생각이 편듯 들더군요. 난 메고 다니던 대나무 몽둥이를 벗겨들고 허둥지둥 쫓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십장놈들이 달려들어 그만...》

인근은 그의 등을 어루쓸었다.

《고마우이. 난 자네 가슴에 구린 상처가 있는줄은 모르구. 허.》

《아바이!》

《누이동생 혼을 찾겠다는 그런 가룩한 심점이 또 어데 있겠나. 하지만 혼이란 그렇게 찾는게 아니네. 이제땅이 되면 첫해 농살 잘 지어놓구 제사를 크게 차리자구. 알겠나?》

그후부터 무섭은 인근이와 함께 밀차를 밀었다....

일너는 오늘도 일찍 밥을 지어먹고 자갈까기에 나갔다.

술한 녀인들이 해빛이 줄곧 내려쬐이는 속에서 온종일 자갈을 깎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십장놈들의 자갈검사가 벌어지고있었다. 놈들은 도끼눈을 해가지고 약간한 큰 돌이섞여도 가차없이 《불합격》을 내놓곤 했다. 까다롭기 짝이 없는 검사놈들에 녀인들의 가슴이 갈가리 찢기우곤 하였다.

일너도 오늘 불합격을 맞았다.

《자갈을 푹푹히 까라. 푹푹히.》

십장놈이 자갈되는 상자를 걸어차자 일너의 얼굴은 밀랍처럼 핏색해졌다. 두어깨가 나른해져 금시 잤아들것만 같았다.

이때 먼발치에서 일너를 띄여본 가또가 절룩거리며 다가왔다. 놈은 하얀 수갑을 낀 손으로 그간 자갈한알을 집어들었다.

《힘이나 드는가?》

일너는 갑자기 목덜미에 송충이라도 와닿은듯 흠칫했다. 그리고는 뒤로 두어발자극 물러섰다. 그놈의 눈깔에 한번 걸려들기만 하면... 하던 무섭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순간 가또의 기름취같은 얼굴에 삶의 웃음이 차갑게 비껴갔다.

그놈은 한쪽 손은 쳐들었다.

《십장! 이 처녀에게 합격을 주라.》

《아니예요. 제 자같은 불합격이에요.》

일너는 더럭 겁에 질려 이렇게 웅크렸다

《좋다! 그러나 오늘은 무조건 합격이다.》

벌써 가또의 눈에는 피발이 빨갛게 내뿜고있었다.

일너의 머리칼이 쭈뼛이 일어섰다.

(혹시 이놈이?! 아니, 술한 사람들이 있는데 설마 어떻게...)

허나 그놈은 피냄새를 맡은 맹수처럼 허바닥으로 입술을 핥으며 그에게 다가들고있었다.

일너가 가슴을 움켜쥐고 책 돌아서자 곁에 있던 십장놈들이 팔을 미옥스레 비틀어 가또놈쪽으로 돌려세웠다.

좁은 이마에 번지르르하게 내뿜 개기름, 얼굴에 확 들썩워지는 술냄새, 거센 숨소리.

일너는 견잡을수 없는 구토감으로 정신을 다 잃을 지경이었다.

가또는 어깨를 으쓱했다.

《흥, 그날은 그 더꺼머리 미치광이녀석이 똥방을 똥지. 하지만 오늘은 안될걸. 자! 어서 그곳으로 나를 안내하라.》

놈들의 손아귀에서 빠지려고 몸부림치다 적삼이 찢어져나가자 일너는 먼지가 오른 베수건을 벗어 얼굴을 감싸쥐었다. 처음 당해보는 모욕감, 수치감으로 해서 눈물도 미처 나오지 않았다. 그저 온몸이 오한을 만난듯 와들와들 떨리기만 했다.

《내 말을 못들었는가. 값을 푹푹히 물줄 알라.》

가또놈의 고탈소리가 공사판을 뒤흔들다싶이 하며 울려갔다.

일너는 그만 가슴을 쥐여뜯으며 오열을 터뜨렸다.

《엄마야-》

그를 바라보던 녀인들이 치를 떨며 일어났으나 왜놈들의 살기쁜 광기앞에서 그저 눈굽만 흠칠 뿐이었다.

이때 십장 한놈이 다가와 가또의 귀에 대고 무엇인가 수군거리었다. 그러자 그놈의 낫색이 책 달라지는것이였다.

《뭐?! 스즈끼상이 금방 도착했다구?》

가또놈은 자갈무지우에 얹어져 피토하듯 목놓아 울고있는 일너를 뚫어지게 쏘아보다 가라말쪽으로 성급히다가갔다.

《두고보자! 언제든 값을 받아낼테니.》

일너는 가냘픈 손으로 자갈무지를 헤집고 또 헤집었다. 피가 손끝에서 흘러나와 자갈무지를 적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듯 싶었다.

일너는 울고 또 울었다. 그러다 일어서서 밀물이 드는 바다로 허둥지둥 내닫자 너인들이 달려와 그를 부둥켜안았다.

《엄마야! 나를 데려가줘- 나를-》

그는 가없이 푸른 하늘을 향해 두팔을 벌렸다.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예?》

그날.

인근은 여느때나 다름없이 버럭바위들을 실은 밀차를 밀고 동쪽으로 나가군 했다. 그가 버력을 부리우고 돌아서는 찰나 산을 파들어가던 채석장에서 뿔연 흙먼지가 하늘로 치달아오르는것이였다.

(아이쿠! 저게 무너져내리다니.)

밀에서 일하던 술한 인부들이 묻히게 되리라는 생각에 눈앞이 다 캄캄해졌다.

그가 비지땀을 흘리며 밀차를 몰아갔을 때 십장놈들이 앞을 막아나섰다.

《령감은 여기 있어.》

《거기 사람들...》

인근이 미처 말을 끝맺기도전에 한놈이 채찍을 들어 그를 후렷했다. 인근이 날아드는 채찍을 거머잡으며 《여보시오, 사람들이 죽고있소.》 라고 웨치자 이번에는 십장 한놈이 몽둥이를 추켜들고 인근을 겨누었다.

인근은 둔중한 타격을 받으며 쓰러졌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니 놈들이 인근이 물고온 밀차를 몰고가는것이 저앞에 보이였다. 얼마후 놈들이 밀차를 몰고 인근의 앞으로 다가왔다. 인근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가누며 일어서다 악 소리를 질렀다.

밀차에 가득 담긴 버럭짊으로 피배인 사람의 다리가 드러났는데 꿈틀거리고있었던것이다.

그랬다, 놈들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인부들을 버럭에 묻어 동쪽에 내다 버리려 하고있었던것이였다.

인근은 한동안 억이 막혀 멍청히 서있다가 무

섭게 울분을 터치며 버럭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제 무슨... 사람의... 짓이요》

순간 십장놈들이 우야 달려들었다.

《이놈이 미치지 않았어?》

《아니웬다. 불쌍한 인부들을... 이래선 안되우다.》

《좋다! 그럼 네놈이나 동쪽에 묻혀라.》

놈들은 그에게 못매질을 안겼다. 잠간새에 피투성이가 되어 정신을 잃자 그를 밀차우에 짐짝 땡개치듯싹고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동쪽끝을 향해 내닫던 밀차를 동료들이 막아섰게 망정이지 하마트면 그도 생죽음을 당할번 했었다.

동료인부들이 구를 동쪽우에 눕히자 그는 눈을 홑뜨고 일너가 바라보던 하늘을 하염없이 올려다보고있었다. 그래도 뭔가 희망을 안고 반짝이 다싶이 하던 홀아비의 눈동자는 말할수 없을 정도로 흐려있었다.

인근은 자리에서 꿈- 하고 일어나 비척비척 툭아래 감탕판으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마디가 불거진 큰 손으로 감탕을 우쥌 움켜쥐었다. 했으나 그것은 본시 묶은지라 국수오리마냥 손가락짊으로 새버리고 남은것이란 단 한점의 점토뿐이였다.

인근은 그걸 오래오래 들여다보았다.

아! 땅이란것두 결국은... 이런것이였단 말인가. 움켜쥐자고 해도 실상 아무것도 안남는...

그의 어깨는 불나위없이 꺼져내리기 시작했다.

(개같은놈들! 사람이 생죽음 당하는데 그우에다 이제 눈을 풀구 곡식을 심겠다구? 아! 그래그래, 이건 내가 찾던 땅이 아니야. 아니구말구.)

일구월십 바라보던 땅에 대한 환상은 인근에게서 점점 떨어져가고 소중한 그 모든것을 깨버리게 한 원썩 왜놈에 대한 분노로 가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일너는 혼몽한 의식속에서 개짓는 소리, 껍떡고함소리, 쿵쿵 하는 발자국소리에 깨여났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땀을 흘려 옷이 온통 물주머니 같다. 그는 부르튼 입술을 감뻘며 종지에 골숨한 물을 들이켰다.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드는듯 했다.

했으나 아직 눈앞에서는 흉물스러운 가또놈의 상통이 사라지지 않고 자꾸만 얼른거렸다. 그때마다 일너의 온몸엔 소름이 쭉 내돋았다.

아버지가 누워있던 아래목을 보니 언제 일어났는지 비여있다. 밤새 앓음소릴 내시면서도 일너자기를 위해 탕약을 달이더니...

이때 밖에서 짹짹 찾는 소리가 났다.

그가 머리를 비다듬으며 문을 여는데 마당을 일출 둘러막은 갈바자우로 누군가 툇을 쏙 들이미는 것이었다. 주독이 올라 코가 늘 벌개다니는 땅딸보십장놈이었다.

《저... 무슨 일로?》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전에 사나운 개를 앞세운 왜놈들과 십장놈들이 삽작을 걸어차고 들이닥쳤다. 다짜고짜 코구멍만 한 집에 구두발로 뛰여든 놈들은 일너가 덮고있던 흰 이불을 걷어찼다.

《갈발을 돌아치던 그 더꺼머리와 이 집이 내통한다는게 사실인가? 그놈을 어데다 숨겼지?》

《예?! 우리 집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뵈이?》

그러자 놈들은 겨우 같이나 엮어 흙을 올린 천정을 몽둥이로 대구 찢러댔다. 와르르- 흙이 떨어져내리고 먼지가 뽀야니 흩어졌다. 사방 쭈시고 제끼고 해서도 찾아낸 것이 없자 놈들은 제편에서 눈을 부라렸다.

《네넨은 사내를 섬길바엔 똑똑한 놈이나 섬겨라. 만약 그놈이 나타나면 곧 주재소에나 알려야 한다. 알겠는가?》

놈들은 이불을 다시 걸어치고는 올 때처럼 우르르 밖으로 나갔다.

《야! 갈발으로 가보자!》

일너의 심장은 갑자기 쿵당거리었다.

(무섭이가 끝내 무슨 일을 친게구나 혹시 가또 그놈을?)

순간 그의 온몸에 이상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난생처음 당해보는 그 어떤 힘이고 용기였다.

일너는 얼굴을 찌죽고 흐느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죽어버리고만 싶던 절망속에서 뭔가 새로운 의욕과 함께 따뜻한 감정이 깃들었다. 원썩을 혼내워준 무섭에 대한 고마움이라 해알가.

그는 문을 열어제꼈다.

파아란 하늘, 뻗어가는 동쪽, 무연하게 펼쳐져 설레이는 갈숲.

왜놈들에게 빼앗기긴 했어도 그 어떤 감출수 없는 복수의 힘이 아광구지에 맥맥히 흐르는 것만 같아 일너는 눈물을 닦았다. ,아광구지의 공기는 돌연 살벌해졌다. 왜놈들과 십장놈들의 눈찌가

사납게 번뜩이고 인부들이 함바집에 오갈 때조차 줄을 서 다니라고 고아뻘었다.

쉬쉬하며 돌아가는 말이 멀지 않은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쟁의를 일으켰다고 한다. 여러날째 계속되는 쟁의는 일제놈들의 악랄한 탄압속에서도 계속 기세가 올라 이만저만이 아니라 한다.

은밀히 돌리는 말속에는 그곳 인부들의 싸움을 주도하는 것이 백두산의 **김일성** 장군님의 부하라고 한다. 아광구지인부들의 가슴은 두근두근거렸다. 온 조선민족이 민족의 령수로 우러르는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님의 부하가 가까이에 와있다는 사실이 적실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속이 환히 열리는 소식이다.

거기에도 홀연 공사관에서 자취를 감춘 무섭에 대한 소문이 나돌아 아광구지의 공기는 실로 팽팽해졌다. 그가 농어잡이에 나갔다가 간악한 가또놈의 너편네와 처제넨을 물속에 처박았다는 것이다. 아광구지사람들은 말없는 속에 깊은 생각에 빠진 듯 싶었다. 이전처럼 화술이나 마시고 화풀이를 하려 갈발을 찾는 사람도 없어졌고 폭 속이고 다니던 얼굴도 보란듯이 들고 다녔다.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 눌리워있던 반항심이 서서히 머리를 들었던 것이다.

왜놈들과 십장놈들은 매일아침 길목을 지켜서서 남자든 녀자든 가림없이 몸수색을 했다. 그러다 가마치부스레기만 나저도 《누굴 주려고 하지?》 하며 귀뺨을 치군 했다. 그런판이었지만 인근은 주먹밥을 보지기에 싸서 허리에 띠고 갈숲을 빙빙 에돌아 공사관으로 나가군했다.

그게 무엇때문이란걸 어지간히 눈치챘으나 일너는 아무 내색도 않고 성의껏 빚어주군 했다.

《아버지! 일없겠어요?》

《뭐가 어쨌게. 중참이랑 좀 하면서 일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차 맥이 나는데두.》

《웁아요.》

그때 《밀차사전》 후로 인근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땅밖에 모르던 그가 며칠새에 땅을 초탈한 사람처럼 되고말았던 것이다. 감탕관을 둘러보군 하는 그의 눈에는 처절한 음영이 짙게 비끼었다. 했으나 그의 거동은 그전보다 진중해지고 지어는 억센것까지 느끼질 정도였다.

온 종일 밀차를 밀고난 저녁에도 그는 갈발을 오래도록 헤매었다. 그러다 집에 들어설 때면 싱그러운 갈냄새가 풍겨오군 했다.

일너는 채 아몰지 않은 아버지의 상처자국에 고약을 발라주었다.

《무슨 소문 못들었어요?》

《소문이라니?》

《무섭오빠가 글썄 가뜨놈의 너편네와 처제년을 죽였대요. 알섬구경가던 놈들의 너벅선에 농어를 산채 던졌다던지. 성난 농어가 펄떡 뛰는통에...》

《글썄.》

《에이... 아버지 다 알고도 모르는척. 맞지요, 예?》

《적실한 소린진 모르겠다만 거 어쨌든 가슴이 후련하구나. 조선사람 죽이려다 제놈이 그 농어한테 맞아죽어? 헛헛했.》

《그런데 무섭오빠는 어떻게 되었을가요?》

일너는 요즘 그 생각에 저도모르게 한동안씩 빠져 있군 했다. 정말이지 그게 사달이라면 무섭이는 얼마나 사내다운가 비록 가뜨놈은 죽이지 못했어도 왜놈에게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기만은 놀랄만 한것이다. 또 왜놈들을 골탕먹인 그 숨썬 얼마나 신통한가.

일너는 지금껏 자기가 은근히 그러마지 않던 사람도 바로 그런 사내가 아니었을가 하는 생각에 소스라지듯 놀랐다. 그리고는 얼굴을 붉혔다. 무슨 놈의 계집애가 새빠지게...

동녘하늘에 둥근 달이 뜨고있었고 소슬한 바람결에 갈숲이 몹시 설렘거렸다.

인근은 뱀장어를 잡는 낚가락모양의 갈구리를 어깨에 걸치고 휘적휘적 걸었다.

그는 오늘도 흰오리가 섞인 자기 머릿통을 스스로 쥐여박았다. 무섭이 《농어잡이》로 나갈때 말릴 생각만했지 왜 합심해서 가뜨같은 왜놈들을 쳐엎앨 궁릴 못했는지 바보짓을 했지, 바보짓을... 그 두억시니같은 왜놈들이 있는 한 땅에 대한 소망을 풀수 없다는걸 왜 몰랐을가. 하긴 이제라도 늦지 않았지. 어디엔가 숨어있을 무섭이를 만나 아광구지의 왜놈들을 요정넬 의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인근은 온몸이 육신육신 쭈셔오는것도 아랑곳않고 어디서나 눈에 잘 띄우는 점포의 물가턱으로 나가는것이다.

이때 갈숲너머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인근은 바짝 긴장해졌다. 혹시 무섭을 잡으려고 갈밭을 뒤지는 십장놈들이?!

피곳 그의 눈에 칼을 절걱거리며 먼발치로 사라지는두 왜놈이 떠웠다. 다리를 저는놈은 가뜨였고 키가 작달막하고 중절모를 쓴 다른 한놈은 알수가 없었다.

방금 인근이가 본 《중절모》는 서울에서 내려온 스즈끼였다. 북해도의 궁해빠진 촌락에서 마름으로 굴러먹다 조선에 진출하여 총독부토지국에 들어앉은 놈은 이 땅의 기름진 미개간지들에 대번 현혹되었다. 이런 비계덩이들이 아직 미개척지로 남아있다는게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놈은 만주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가뜨를 부추겨댔다.

《우리에게 일확천금의 기회가 닥쳐왔다. 이 땅이 얼마나... 아! 실로... 반도인들을 거머쥐고 동쪽을 쌓으라! 빨리.》

그러지 않아도 일확천금을 꿈꾸던 가뜨는 인부들을 동쪽공사에로 미친듯이 내몰았다. 시설이 불비하고 인부들이 허기지다보니 수렁에 빠져죽는 수가 부치기수였으나 놈들은 그우에 감탕을 덧쌓으며 나갔다. 스즈끼는 여기에 미신적인 의미를 덧붙였다. 동쪽은 억년 드눌지않을것이라고...

이날 스즈끼는 불행하게도 너편네와 처제를 잃고 기절초풍한 가뜨를 위로하기 위해 갈밭산보에 오른것이다.

《가뜨상! 진정하게. 우린 그런 비극을 감당 못할 사무라이가 아니지. 우리에겐 세계를 제패해야 할 커다란 의무가 있네. 이 땅에서 약간 비위거슬리는 일이 있었기로서니.》

가뜨는 눈실을 찌프렸다.

놈은 점점 스즈끼가 미워났다. 땅에 대한 그놈의 터무니없는 탐욕때문에 불행만 겪는건 빌어먹을 가뜨 제놈이 아닌가. 이번에도 너벅선을 타고 알섬구경가다 새로 시작할 간척지를 돌아보자는 바람에 그걸 보다 더끼머리의 농어세례를 받지 않았던가. 부아통이 돌히는 일이었다.

하여간 두고보자. 동쪽막은 다음에는 내것으로 될수 있을지도 몰라. 네놈을 물어메치고 아광구지를 한손에 읊아넣어야지...

양옥집에 이르러 놈들은 2층 객실로 올라갔다. 사꾸라꽃그림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객실은 아늑한감보다 침침한 무덤같은 인상을 더 질게 주었다.

하녀가 가져온 차잔을 손에 들고 약간 경멸의

빛을 띠운 눈으로 가또를 바라보던 스즈끼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물론 나도 울적한 때가 종종 있네. 태평양전쟁도 시원치 않지, 바야흐로 공산군이 쳐나올수 있다는 설도 공공연히 나돌고있고.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 처지는… 가만 저게 뭐가?》

가또놈도 벌떡 일어섰다.

놈들의 시선이 창밖에 던져졌다.

보름달이 환히 비치는 물가에서 무엇인가 갈구리같은것으로 감탕판을 찢러대는 한 인부의 모습이 안겨왔다. 인근이었던것이다.

그는 유표하게 드러나는 흰 수건을 머리에 걸끈 동이고 무른 감탕을 찢러대며 걸음을 옮기곤 했다.

다음순간 스즈끼와 가또는 《어허.》 하고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인부의 그 예리한 갈구리끝에 흡사 뱀모양의 그 어떤것이 꺾이며 나왔는데 그것은 달빛이 그 득한 허공에서 맹렬하게 요동을 치는것이였다.

《배… 뱀장어다!》

두 야수들의 눈길이 한데 마주쳤다.

《실로 맹랑하다고 할가?》

《눈먼 갈구리에 뱀장어가 꺾이다니.》

왜놈들은 불길한 조짐이랄가, 어쨌든 거기에서 이 나라 사람들에 의해 종말을 고하고야 말 그런 운명적인 위구를 감쪽했다. 몸이 부르르 떨렸다.

《까또상!》

《스즈끼상!》

까닭없는 야심에 한껏 휩싸인 놈들은 양탄자를 밟으며 다가섰다. 그리고는 서로 부둥켜안았다. 다른 굵으로 흐르던 놈들의 리해관계가 조선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정복과 살륙이라는 한점에서 일치되었다고 할가. 아주 묘한 계기이기도 했다.

십장놈들을 위시하여 무섭을 기어이 잡아보겠다고 갈숲으로 나가던 가또는 일너와 맞다들었다.

《누군가?》

《…》

달빛에 창백해보이는 얼굴, 감탕이 군데군데 묻은옷, 가슴에 바짝 부둥켜안은 보자기…

가또는 그를 알아보았다.

아! 자갈을 합격준 그리고 언제인지 무섭의 도움으로 자기 손에서 빠진적이 있었던가? 순간 동물적인 야욕이랄가 그를 짓이기고싶은 그 무엇이 몸에서 꿈틀거렸으나 자기를 다잡았다.

《어텔 갔됐는가?》

가또는 씹씹기리며 다가가 일너의 가슴에서 보자기를 나귀겠다. 주먹밥이 굴러떨어졌다.

《더꺼머리에게 먹일건가?》

놈은 일너를 노리보다가 칼을 뽑아 그 끝으로 갈숲을 가리켰다.

《좋아! 내 그럼 그놈을 만나게 해주지. 말뚝을 박고 이년을 목어놓으라. 갈매기도 돌을 던지면 모여드는데 하물며 그 더꺼머리가 오지 않겠는가. 으하하.》

《개… 개놈들!》

일너는 총알같이 내뿔고 뛰려 했으나 우악스런 손들에 잡히고말았다.

하늘에선 비꼬치가 떨어지고 바람이 불었다.

그러니 그를 비끄러맨 바줄은 조여들기만 했다. 구름이 가뭇 사라진 밤, 일너는 하염없이 하늘만 올려다보았다. 조각달은 별들의 바다를 헤엄쳐 어디론가 끝없이 달아나는것 같았다.

그의 입가에서는 무섭이가 부르던 노래가락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에헥

물새들은 강변을 슬피 날아도

어딘가는 기다려줄 보금자리 있다네

먼발치에 숨어 일너를 지키고섰던 십장놈들이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주위는 고요하였다. 놈들은 아마 가까이에는 술집에 처박혔을것이다.

갑자기 갈숲이 술렁거렸다.

순간 일너는 누군가 불쑥 앞에 나타나든 바람에 《악!》 하고 소리쳤다.

《일너!》

무섭이었던것이다.

일너는 차마 믿어지지 않아 멍하니 머리보다 그만 머리를 떨구었다.

《왜 이제야 왔어요? 예?》

바다바람에 탈대 로 탄 두볼로 맑은것이 자꾸 자꾸 샘솟듯 흘러내렸다.

《그만 울어.》

그새 더 커진듯싶은 무섭의 술뚜껑같은 손이 어깨에 와닿을 때마다 일너는 흠칫거리곤 했다.

그러자 무섭은 그를 어떻게 달래알지 몰라 찢찢 매며 칼로 바줄을 끊기 시작했다.

《벼락맞을놈들!》

일너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냥 뒤두세요. 놈들이 나를 풀어주면 동쪽을 허물어버리겠다고 했어요.》

《뭐, 뭐 동쪽?》

무섭은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었다.

《개놈들! 동쪽을 허물겠으면 허물고 우린 가자. 아버지랑 판데 가서...》

《아니예요. 우린 아광구지를 떠날수 없어요. 여기서 가또놈이랑 왜놈들을 끝까지... 무섭오빠 경옥언니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뭐, 우리 경옥이?》

《머칠전에 아버지가 <정신대> 에서 도망쳐온 처녀를 구원해주었는데 그가 바로 경옥언니와 함께 있었대요. 그날 가또놈과 스즈끼놈이 이 갈숲에서 그를 겁탈하고 소문이 두려워 <정신대> 로 뽑아치웠다는거예요.》

《그... 그놈들이?!》

무섭은 머리를 싸쥐고 황소처럼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경옥아-》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결에 갈숲이 대구 설레이기 시작했다. 어디서 한무리 날아올랐는지 밤갈매기들이 성가시게 가락대며 그들의 머리위로 떠갔다.

일너는 눈굽을 훔쳤다.

《무섭오빠! 우리 걱정은 말고 어서 떠나요. 우리가 바라는게 이젠 뭘지 알겠지요?》

《안다. 하지만 일너! 너를 이렇게 두고 간다는 건...》

《제발 그러지 말라요. 동쪽에 묻힌 술한 령혼들의 피타는 웨침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경옥언니의 저 원한의 목소리 가...》

일너의 머리칼이 나뭇졌다.

무섭의 눈에서 섬광과도 같은것이 번쩍- 하고 빛났고 주먹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졌다.

《내 아광구지의 왜놈들을 몽땅 동쪽에 처넣기 전에는.》

《기다리겠어요. 꼭 기다리겠어요.》

일너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가가스로 누르며 무섭을 떠밀었다.

낮이든 밤이든 말쪽에 서있는 일너의 입술깨문 모습은 가또를 어지간히 전율케 했다. 그의 곁에는 밥을 날라오곤 하는 인근이가 곱방대를 쥐고 곳곳이 서있었다. 하루이틀이면 정신적인 허탈감

에 미치든지 쓰러지든지 할줄 알았던 이들이 대체 무슨 힘에 저렇게 버티어대고있는것인가. 대일본제국이 이 민족을 정복했다는게 사실은 사실인가?

그런데다 어제밤에는 어떤 괴한이 집에 뛰어들어 가라말을 타고 달아나더니 오늘아침엔 왜십장 하나가 목이 멧경 떨어진채 감탕관에 처박히는 일이 벌어졌다. 그야말로 복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가또는 일너와 인근을 살기편 눈초리로 쏘아보다 뚫어오르는 객기에 모자를 벗어 갈밭에 홀 던졌다. 그리고는 옆구리에 찼던 칼을 뽑아들고 갈밭에 접근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억센것이 잔뜩 얹어져있는것만 같은 갈숲을 짓뭇개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릴것 같지 않았다.

했으니 빼곡이 들어선 갈대조차 그놈을 조롱이나 하듯 자꾸만 건들거렸다.

가또는 힘껏 후려치기 시작했다.

한대 두대 ... 열대...

갈숲은 무섭게 술렁대기 시작했다.

놈의 입에서는 쇠비린내가 헉헉 뿜어나왔다.

《죽여라! 죽여!》

한동안 미친듯이 지랄을 쓰던 가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성냥을 꺼내들었다.

《흥, 더꺼머리는 네놈들을 버렸다. 아니아니, 이 갈숲이랑 몽땅 버렸다. 개자식!》

이 땅을 휘여잡지 못할바엔 차라리 불질러 애버리고싶은 무지스런 충동이 꼭뒤통까지 치밀었다. 그러나 시퍼런 갈잎사귀들이 불당길리 만무했다.

악에 반칠대로 받친 가또는 인근에게 다가갔다. 인근은 목석처럼 서있기만 했다. 더욱 발광증이란 그놈은 엉마같이 해진 인근의 옷자락에 드옥- 성냥을 그어댔다. 했으나 소금기에, 땀에. 아니 피눈물에 절을대로 절은 옷은 불에 당기지 않았다.

가또는 이를 사러물고 성냥 한팩을 다 그어댔으나 결코 단 한점의 불길도 일으킬수 없었다. 있다면 부녀의 가슴속에 왜놈들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 복수와 증오의 불길만을 세차게 피워올렸을뿐.

가또와 스즈끼는 동쪽공사장에서 떠드는 북적소리에 놀라 일어섰다.

두툼한 창가림을 홀 제끼니 해풍이 미친듯이

붙어들었다. 어찌보면 고기찌끼들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고삭은 목전냄새갈기도 하고 갓 건져놓은 미역냄새갈기도한 해감내가 코밀을 성가시게 들쑤셔댔다.

동쪽공사장에서는 지금 가래쌈이 한창 벌어지고있었다.

아광구지 인부들의 가래쌈은 실로 구경스러울 정도였다. 동쪽을 향해 떠서 던지던 크고 실한 흙밥을 무슨 심사에 뒤틀렸는지 다른편 가래패들에게 날려보낸다. 여섯명씩이나 붙어서 가래줄을 당겨야 하는 대가래의 흙밥은 동이보다 컸다. 흙밥을 얻어맞은 쪽에서도 가만있지 않는다. 흙밥들이 허공에서 엇갈리다 부딪쳐 떨어질 때면 갓 쌓은 감탕동독이 경련이라도 일으키듯 부르르 떤다.

《으하하.》

그쯤되면 온 공사판이 하나의 시험마당으로 변하기가 일쑤였다. 이들의 싱갱이질이 어찌나 드살차고 열정적이었던지 십장들도 감히 말리지 못하고 주변을 돌면서 먼 개짓듯 고아대기만 하였다.

스즈끼는 이것을 하나의 아광구지풍경이라고 묘사하군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스즈끼의 눈알은 차갑게 번뜩이였다.

《가또상! 인부들의 가래쌈을 다시 한번 눈여겨 보라. 거기에는 분명 무서운 배일감정이 깔려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조선인들속에 은밀히 잠재해있는 <반일감정> 이란 물건짝은 베버리기가 대단히 힘들다. 비유해말하면 한뿌리를 끊으면 열, 스물, 백으로 검질기게 뻗는 갈뿌리와도 같다고 할가? 아니, 갈대 한대를 흔들면 수백수천의 갈꽃이 구름처럼 흩어져 하늘을 뒤덮는 그런 리치랄가. 그래서 내가 그놈의 몸뚱아리들을 가차없이 동독에 묻어버리라고 한것이다.》

《그 말의 깊은 뜻이 이제야 비로소...》

《그런데... 아광구지는 지금 우리를 배반하고있다. 가또상! 2호동독을 허물어버리라!》

가또의 상통이 새하얗게 질렸다.

《허물다니? 땅. 그것만은 아까운...》

《최쇼, 동독은 얼마든지 다시 막을수 있지만 아광구지에 갈숲처럼 자라난 반일감정만은 묵과할수 없다. 이거야말로 백만정보의 땅을 얻는것보다 더 큰 의의가 있다. 이들의 반일감정의 작은

씩도 쟁그리 뭉개버렸을 때라야 반도의 미개간지들을 개척했다고 말할수 있다.》

가또의 온몸은 사시다무떨듯 했다.

《예.》

어찌된 영문인지 아광구지 인부들은 좀체 동독을 떠나지 않고 낮을 맞고 밤을 새우는것이였다. 이들이 왜놈들을 살피는 눈초리도 그전같지 않았다. 일거일동을 주시하는것 같기도 하고.

동독을 터쳐버릴 틈을 찾을수 없게 되자 가또놈은 사색이 되였다. 서울에 올라간 스즈끼가 소식을 기다리겠는데 언제까지 앉아몽꺄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총칼을 동원시키면 인부들의 무서운 반항에 우선 제목숨부터가 위태로울것 같다.

밤이 되자 가또는 동독으로 나갔다.

구두가덕까지 빠져들어가는 곳에 이르러서는 잠시 사위를 두리번거렸다. 짙을 곳이 별로 없는데 대해 지금껏 관대해왔지만 오늘은 왜서인지 화가 꼭뒤편까지 치민다.

동독우에 군데군데 꽃은 말뚝에서는 신작인지 옷조박인지 한것이 검스레한 내굴을 피워올리며 타고있었고 그 주위에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옷들을 걸친 인부들이 서성대고있었다.

《놈들 주제에 감히... 혹시 어떤 김새라도?》

인부들은 바다바람이 퍼그나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동독을 수시로 오가거나 앉아있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마라초를 붙여무느라 부시럭거렸고 또 한쪽에선 저희들끼리 뭔가 쑥덕거리기도 한다.

《요즘같은 대사리에... 밤에 무슨 일로들 나와 있는가?》

가또놈의 물음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이한 기침이 물방으로 터질뿐이였다.

그놈은 가까이에서 있는 어느 한 인부쪽에 눈길을 돌렸다.

《막걸리생각이 없는가?》

그러다 불에 덴듯 와뜰 놀랐다. 배수건을 둘러감아 보통인부러니 했는데 고개를 드는걸 보니 일너가 아닌가.

서로의 눈길이 마주쳤다.

《있어요!》

일너의 대답은 의외에도 명랑하게까지 들려왔다.

가또놈은 이를 갈았다.

《좋다! 야! 막걸리를 되병채로 가져와.》

뒤따르던 십장놈들이 히물기리며 막걸리를 가

지려 급히 떠났는데 저쪽에서 흐느끼는듯 한 타령소리가 들려왔다.

에헬

물새들은 강변을 슬피 날아도

어딘가는 기다려줄 보금자리 있다네

...

일너는 활랑거리는 가슴을 부여 안았다. 무섭 오빠가? 얼마전 까또놈의 가라말을 타고 번개같이 나타나 왜놈들이 동쪽을 허물어버릴 공궁이를 한다고 알려주고 가서는 소식이 없었는데... 오늘은 또 무슨 급한 일로? 그런데 가또놈이 눈에 쌍심지를 켜달고 찾는데 여기로 오면 어쩐단 말인가.

바다쪽에서 검은 구름장들이 밀려들었다.

술에 취한듯싶은 그가 인부들의 부축을 받으며 다가오고있었다. 동쪽우로, 동쪽우로, 동쪽우로...

그를 향해 새처럼 날듯이 달려가던 일너는 걸음을 멈춰세웠다.

뜻밖에도 그는 아버지였던것이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데서 술을?)

인근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걸었다.

《이 넓은게 다 랑이렸다. 땅, 아! 얼마나 희한한가 동쪽막구... 싯누런 버를 심어 허리가 시큰하게 김을 매보지구... 했건만... 네가, 아니 이 땅이 통곡을 한다, 통곡을...》

인근은 그만에야 동쪽에 엎어졌다가 일어섰다. 그러다 또 엎어졌다.

가또놈이 흉물스럽게 웃으며 가까이로 오자 온몸이 감탕투성이가 된 인근은 두손을 버쩍 쳐들고 그놈에게 한발작한발작 다가가기 시작했다.

부들부들 떠는 두손, 무섭게 홉뜬 눈, 해풍에 날리는 희끗희끗한 머리칼...

이때 잔뜩 밀려든 구름장사이로 시퍼런 번개가 일며 동쪽우로 쭉- 내리쬘었다. 이어 파르릉-팡 하고 고막을 찢는듯 한 우뢰소리가 동쪽을 대구 흔들어댔다.

가또의 눈이 금시 뒤집힐듯 휘둥그레졌다.

《척쇼!》

《똑똑히 알아두라! 동쪽은 우리가 쌓은거다 우리 땀, 우리 피, 우리 시체... 조선사람들의 혼이 들어있는 이 동쪽을 감히... 감히 건드렸다간 천벌을 받을줄 알아라.》

창살같은 비가 광막한 공간을 가득 메우고야

말았다.

인근은 청동으로 주조해놓은듯 굳어져있었다 아무리 모진 비발이라 해도 그의 손에 묻은 감탕은 한점도 씻어 내리지 못 했다...

그때에야 되병을 들고 나타난 놈팽이들이 가또의 손에 쥐여주려 했으나 그놈은 경풍이라도 인듯 외들와들 떨기만 했다. 미신적인 공포감에 가또는 완전 넋을 잃고말았던것이다.

일너는 추악한 그놈의 물골을 쏘아보며 되병을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비꼬치가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 보며 병을 입가로 가져가 천천히 기울였다.

한 처녀의 도전적인 자태앞에 가또는 뒤걸음쳤다.

《으... 으... 으악.》

흔백을 빼앗긴것만 같은 가또의 비명소리가 스산하게 울려갔다.

무연하게 펼쳐진 갈숲으로 미쳐버린 가또가 방황한다는 말이 나돌았다.

《죽여라! 모조리 죽여라!》

이렇게 고향을 지르며 옷이 다 해지도록 갈숲을 대구 헤매인다는것이다. 그러고도 이 땅에 어지간히 감질이 났던 نوم인이라 고향인 일본의 복해도로는 가지 않고 호시탐탐 복수할 기회만 노린다는것이다.

새로 공사장주임으로 내려온 스즈끼는 가또가 쓰고쓰던 양옥집 객실에 앉아 려송연을 피나물었다.

《시리베같은 자식! 우선 가또 네놈부터 저송길을 걷게 해주지. 그 다음엔...》

스즈끼는 입에 게거품을 물었다.

《조선놈들이 감히 엇따대구... 싹.》

인근은 밤마다 동쪽을 돌아보았다.

며칠전에 말을 타고 어데론가 사라졌던 무섭이가 아광구지에 바람처럼 나타나 내돌린 말이 가슴을 들먹이게 한다. 그의 말이 이제 머지 않아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백두산장수들이 일제놈들을 모조리 때려 눕힌다한다. 그러면 나라도 땅도 다 우리의것이 된다 한다.

하긴 요새 여겨보면 왜놈들이 허둥대는 꼴이 험동하다. 그러고보면 무섭의 말이 적실한것 같다.

심장이 흥벽을 세차게 두들긴다.

말라버린듯 싶던 눈굽에 뿌ית한것이 핑그르 내

돋기까지 한다.

어쩌면 인생이 이제야 흰해지는가?

감탕내음새에 심신을 썩이며 걷던 인근은 앞에서 무엇이 얼썩하는 바람에 긴장해졌다. 검은 형체는 도적고양이처럼 날쌔게 움직여 동쪽에 다가붙어서 뭔가 파고있었다.

인근은 그놈이 남포질을 해서 동쪽을 허물려고 한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번개같이 달려가 그놈의 사등뻬를 걷어찼다.

《이놈아! 당장 걸어치우지 못할가.》

자빠져 덩구는걸 보니 스즈끼였다. 그의 눈에서 불이 일었다.

스즈끼는 인근을 알아보자 코웃음을 쳤다

《너같은 거리지들이 땅을 부쳐먹으라구 동쪽을 그냥둘줄 아느냐. 천만에.》

어느새 자세를 수습한 그놈이 불의에 몽둥이를 휘둘렀다. 했으나 인근을 쓰러뜨리기엔 몽둥이가 너무 보잘나위 없었다.

스즈끼는 이를 사려물고 으르렁댔다.

《네 놈들을 몽땅... 동쪽에 물어버리고.》

인근의 무쇠같은 주먹이 스즈끼의 관자노리를 힘껏 후리갈겼다.

이때 어둠을 타서 인근의 뒤로 슬그머니 다가서는 놈이 있었다. 머리칼이 온통 형클어지고 옷이 너덜너덜한... 가또놈이었다. 미친놈이긴 해도 뿌리깊이 박혀있던 그 어떤 의식이란것이 작용했던지 인근을 보자 눈에서 푸른 빛을 내뿜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인근의 목을 꽉 붙잡았다.

《으흐흐. 으흐흐.》

들은 엇치락뒤치락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스즈끼는 피춤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잘됐다. 둘 다 천당으로!》

가또놈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인근이도 두어방 맞았다.

희심의 미소를 지으며 남포심지에 불을 가져다대던 스즈끼는 《억!》 하고 그자리에 꼬꾸라졌다. 언제 나타났는지 무섭이가 몽둥이로 그놈을 내리쳤던것이다.

했으나 헛맞은 놈은 갈숲으로 내빼기 시작했다.

갈숲에 들어선 놈은 우뚝 멈춰섰다. 인부들이 앞을 막아섰던것이다. 옆으로 빠져달아나는데 거기서도 한패의 인부들이 불쑥 나타나는것이였다. 뒤를 돌아보니 거기도 또...

갈숲이 마치 하나의 커다란 함정처럼 여겨졌다. 이게 혹시 환각이? 갈숲이 이렇게 되다니...

아! 갈숲, 그 어떤짓을 해도 침묵밖에 모르던, 반항하거나 소리치거나 날뺨줄을 모르던, 순응하고 또 순응하던 이 갈숲이 언제 이렇게 됐단 말이나. 언제

스즈끼는 머리칼을 쥐여뜯다 제 배때기에 찌를 칼을 뽑아들었다.

무섭은 인근을 물쳐업으려 했으나 그는 머리를 저었다.

《그만하게. 내 명이 다 된것 길네. 땅을 찾아 한생을 헤맸건만... 그래그래 왜놈들과 한하늘을 이고사는 한 조선사람들의 소망이 풀릴수 없다는걸 나는 푹푹히 알았네. 이제 나라가 해방되면 일너와 함께 실컷 농사를 지어 보라구. 그러구.》

인근은 무섭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었다.

하늘 땅 한가득 갈꽃이 흩어져날렸다.

그해 8월, 드디어 나라가 해방되였다.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셨던것이다. 어제날 아광구지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던 무섭이와 일너를 비롯한 술한 인생들이 새봄을 맞았다. **김일성** 장군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동쪽은 뻗어나갔고 모두에게 땅이 차례졌다. 갈숲은 비옥한 논벌로 그 모습을 달리했다. 이제는 창대처럼 솟아 설렁이던 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원한 많은 세월에 갇은 수난을 당해온 이 고장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갈숲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갈숲은 세월과 더불어 후대들의 가슴속에도 뿌리를 깊이 내리었다. 대대손손 이 고장 사람들의 가슴속에 천갈래, 만갈래 뿌리내려 설레이는 갈숲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아직도 이 땅을 탐내며 재침의 기회를 노리는 원썩이가 이 하늘아래 있다고,

우리의 땅. 우리의 생활, 우리의 미래를 해치려는 제국주의침략무리가 있는 한 손에서 총검을 놓지 말라고 끝없이 속삭이고있다.

녀성과 군복

리라순

무릇 사람들은 녀성의 행복을 두고 가정과 먼저 결부시켜 말하군 한다. 한가정의 살림살이로부터 아이들과 남편, 시부모님들을 살뜰히 돌보아야 할 의무속에 자기를 바치는것이 녀성들의 행복이라고...

물론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선군시대에 사는 우리 녀성들의 행복의 전부가 아닐것이다.

평범한 취재길의 어느날이었다. 어느 산골군자그마한 지방공장에 얼마간 나가있던 나는 일을 끝내고 평양으로 돌아오려고 철도역이 있는 읍거리로 가는 뺨스에 몸을 실었다.

기다리는 정다운 식솔들을 그려보며 뺨스에 오른 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습관적으로 책을 펼쳐들었다.

그때였다.

《어머니, 오늘도 외할머니가 기다리겠지요?》하는 총각애의 목소리가 머리우에서 들려왔다.

고개를 드니 내앞에는 뜻밖에도 녀성군관이 에닐곱살난 사내아이의 손목을 잡고 서있었다.

나뿐이 아니라 뺨스의 손님들도 놀라운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어린애가 있는 녀성이 처녀병사들처럼 군복을 입은것이다. 그 녀성은 어린애를 데리고있었지만 단정하고 맵시있는 군복차림으로 하여 생소한 젊음에 넘쳐있는듯했다.

《여기 앉으십시오. 군관동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자리를 양보했다.

《아니, 괜찮아요.》

녀성군관은 땀젖은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웃은 얼굴로 사양했다.

나는 얼른 일어나 아이부터 덥석 끌어다 앉혔다. 어쨌선지 내 자리를 꼭 그들에게 양보하고 싶었다. 아마 그것은 이 녀성군관이 나와 같은 나이의 녀성이라는 남다른 충동때문인지도 모른다.

서둘러 아이를 내 자리에 앉히자 그는 《고마워요.》하고 사의를 표시했다. 주위에서는 따듯한 웃음이 피여났다. 나는 머루알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사내아이의 두볼을 다독여주었다.

《참, 귀엽구나. 몇살이나요?》

총각애는 작고 통통한 손가락을 모두 퍼올렸다.

《일곱살이에요.》

아이의 귀여운 목소리에 사람들은 가볍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들을 보느라니 언젠가 취재길에서 알게 된 한 녀성군관의 모습이 떠올랐다.

몸은 비록 크지 않은 40대의 녀성군의. 그는 적들과의 해상격전에서 치명상을 입은 부상자들을 완쾌시켜 초소에 다시 세운 훌륭한 녀성이었다. 병사들의 친어머니, 친누이가 되어 몇밤을 꼬박 새워가며 정성을 다해가던 그 녀성군의. 그때 나는 피를 주고 살을 떼여준 그 녀성군의에게서 의사로서만이 아닌 높은 군인품성을 지닌 고상하고 아름다운 군인을 본것으로 하여 인상에 남았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생각키운것은 그 녀군의에게도 남편과 아이들이 있고 돌보아야 할 가정이 있었다는 그것이다. 왜 그때 그를 가정을 가진 같은 녀성이라는 생각을 못했던지...

어느새 종착점에 와당은 뺨스가 정류소에 멎어섰다.

《할머니!》

차에서 내린 총각애가 한쪽에서 기다리고있던 할머니에게로 달려갔다.

《어이구! 우리 철이가 이제야 오는구나.》

넘어질듯 안기는 손자를 부둥켜안으며 할머니는 만시름을 잊은듯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두 참, 마중오지 마시라는데...》

딸을 알아본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듯 외손자의 머리를 정겹게 쓸어주었다.

《뭐라냐. 이렇게 나오면 네 급한 걸음이 조금

이라도 멀어질텐데... 걱정 말고 어서 가거라.》

순간 아들을 맡긴 여성군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비꼈다.

나는 옷매무시를 바로하며 그들과 헤어져 오던 길로 되돌아 멀어져가는 여성군관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도 나와 같은 여성이 아닌가,

예로부터 여성이라면 아이를 낳아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것을 《직분》으로 여겨왔으며 그래서 우리 여성들을 두고 생활의 꽃, 행복의 꽃이라고 불렀다.

남편과 아이, 따스한 보금자리인 가정... 그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어 여성들은 자기를 바쳐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가꾸가는데서 기쁨을 찾는것이다.

허나 여기에만 여성의 행복이 있는것이 아니었음을, 여성과 행복, 여성과 군복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것이다.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사랑과 행복의 상징인 여성과 총대로 이어지는 군복.

어찌보면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서로 다른 의미로 보일지도 모른다.

누구나가 그렇겠지만 잊을수 없는 《고난의 행군》...그 나날 누구보다 더 많은 짐을 걸머진 연약한 우리 여성들이었지만 이들은 쓰러지지 않았으며 모든것을 이겨냈을뿐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맞받아나갔었다. 바로 우리 여성들을 일으켜세워주고 떠밀어준 위대한 힘은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총대철학, 빛나는 선군령도였다. 그 선군령도를 따르는 걸음속에 시련을 이겨내는 비결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기에 우리 여성들이 것처럼 강해질수 있는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바라는 행복, 아니 인생의 소중한 모든 행복은 한가정의 작은 울타리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고 품어주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받드는데 있음을 행복의 철리로 터득한것이다.

하기에 우리 여성들은 그것을 한가정의 주부로서만이 아닌 여성들의 공민적의무로 받아안은 것이였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미제에 대한

무서운 증오와 분노를 재운 총대를 잡고 우리 행복, 어머니조국의 안녕을 지키는 수호자로,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메고나가는 선군시대의 역센 못으로 성장한것이며 남자들과 어깨 나란히 선군시대의 장엄한 흐름에 발을 맞춘것이다. 그러니 어찌 여성에게 군복이 어울리지 않는다 하랴.

지금 저 여성군관도 한가정의 행복보다 조국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이밤 자기 초소로 가고 있는것이다. 진정 돌이켜보면 지나온 우리 혁명의 력사에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손에 총을 잡고 항일혈전의 불바다를 헤쳐온 녀투사들도 있었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수류탄을 안고 적땅크밀에 뛰어든 조순옥영웅도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군인가정》의 모범으로 내세워주신 엄복순녀성과 남편의 뒤를 이어 군복을 입고 초소에 선 길영조영웅의 안해도 있으며 묵묵히 자기 초소에서 병사들을 돌봐주는 수많은 여성군의들도 있다.

이들은 총대와 이어진 이 군복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드는 우리 여성들의 참다운 행복이 있으며 선군시대 공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길이라는것을 절감하였기에 장엄한 이 선군시대의 흐름에 발맞춘것이리라.

나의 가슴은 흥분으로 높뛰기 시작했다. 군복을 입은그 여성군관의 모습이 왜 그리도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던가를 비로소 깨달은듯 싶었다.

이 땅에 군인가정이 새롭게 태어날 때마다 그리도 기뻐하시며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비껴 군복입은 여성들은 누구나 반할만한 녀성, 세상 아름답고 행복한 녀성으로 돋보이는것이 아니겠는가. 이 아름다움, 이 행복에 대해 글을 쓰리라. 그리고 비록 군복은 입지 않았으나 나의 생활도 군인품성을 닮은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으로 가득 채우리라.

나는 그 여성군관의 걸음, 선군시대의 보폭에 마음을 맞추는 심정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림형빈교수

최윤의

어제일이였다.
 막장에서 일을 끝내고 숙소에 돌아오니 책상우
 에 전보 한장이 놓여있었다.
 나는 전보를 집어들었다.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림형빈선생 사망. 급래.》
 나는 자신을 다잡을수 없었다.
 (스승이 세상을 떠나다니...)
 림형빈교수가 앓고있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었
 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증병에 있
 은줄은 몰랐다.

눈앞으로 스승의 모습이 우뚝이 떠올랐다.
 희슬희슬한 머리에 불이 훑쭉한 가냘픈 얼굴...
 도수높은 안경을 낀 사려깊은 눈길...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다.

만나본지도 벌써 몇해가 지난 스승, 그래서 늘
 그리움을 묵새기며 언제건 그에게로 달려가 회포
 를 맘껏 나누리라 버르었건만 이제는 그가 세상
 에 없다.

나는 즉시 차도 떠났다.
 집에 찾아가니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나를 맞
 이했다.

사위도 딸도 왔었다.
 사위는 나를 만나자 《류민이, 나는 운단 말이
 요. 학자도 바이올린수도 못했다고 운단 말이요.
 내 형편이 이게 무슨 꼴이요?》하고 알지 못할
 녀두리를 하였다.

다음날이 장례식이였다.
 우리는 산에 함께 올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교수선생 부인이 나에게 떠나기
 전에 집에 꼭 들렀다 가달라고 당부했다.
 대학에 들려 일을 보다가 며칠후에 집에 다시
 찾아갔다.

부인은 나를 한 방으로 안내했다.
 《이 책들을 선생이 자네에게 맡기라고 했네.》
 방은 림형빈선생의 서재였다.
 부인은 나에게 따로 골라낸 책들을 가리켰다.
 《지하수동력학과 그 계산》

나는 그 책이 림형빈교수가 생전에 가장 애착
 을 느끼던 책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사위한테도 필요한것이겠는데요?!...》
 나는 림형빈교수의 사위가 나를 만나자 알지
 못할 녀두리를 하던 생각이 나서 조심히 물었다.
 《오늘 아침차에 그는 떠났네.》
 《...》
 《탄광에서 글도 쓴다지?》
 부인이 은근히 나에게 물었다.
 《예.》

《가만, 저 장에 있는 수첩도 자네에게 잊지 말
 고 꼭 주라고 했는데...》

부인은 한 장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나에게
 주었다. 나는 그 수첩을 받았다.

낮익은 자그마한 수첩이였다.
 스승이 평소에 가장 요긴한것들을 그속에 꼭꼭
 적어두었다는것을 나는 알고있었다.

나는 책장의 책들을 정히 썼다.
 갈피마다 스승의 손때가 오르고 사색이 무겁게
 실린 책 들이였다.

그것을 스승은 나에게 넘겨주었으니 어떤 크나
 큰 기대와 엄숙한 요구가 그속에 담겨있을것인가.
 차시를 떠나는 날 부인이 역에까지 따라나왔다.
 드디어 손을 흔들며 보내주는 부인의 모습이
 차창밖에서 사라지자 나는 눈을 감았다.

언젠가 스승이 나를 그렇게 보내주던 생각이
 났다. 스승은 서늘한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
 을 쓰다듬으며 《자주 오오.》 하고 짙막히 당부
 하곤 하였다.

지금은 부인이 그렇게 나를 보내주고있었다.
 림형빈교수는 지난 나의 대학시절에 잊을수 없
 은 깊은 추억을 남긴 선생이였다.

10년전 일이였다.
 어느날 림형빈부교수가 (그는 그때 부교수의
 학직에 있었다.) 강좌에 들어서는 우리에게 물었
 었다.

《이 설계를 동무들이 해낼수 있겠소?》
 그의 손에는 《천체철소 확장공사건설장 열간
 압연직장 영구배수구조물설계》라고 쓴 종이 한

장이 정히 들려있었다.

《선생님… 그건… 그건 전문설계일군들도…》

우리들중 누군가 얼버무렸다.

그는 고개를 꺾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전문설계일군? 그래 동무들은 전문설계일군들이 아니요?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게 된 동무들이?...》

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현장설계일군들은 이런 큰 대상설계를 처음 하는것을 고려하여 외국설계를 가져다 참고하려고 하고있소. 그럴수도 있소. 그런데 그 설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요.》

그의 눈에서는 그 어떤 불길의 황황 일고있었다.

다음날 그는 나를 강좌에 불렀다.

방안에 들어서는 나를 이윽히 보다가 그는 물었다.

《요즈음 어떤 시를 쓰요?》

나는 숨을 죽이고 서있었다.

사실 그 당시 나는 공학을 배우면서도 짬짬이 시를 쓰곤 하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사랑했소. 그러나 그 현줄에 과학을 용해시키지 않았소. 그가 바이올린을 왜켰는지 아오?》

스승은 그냥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과학을 위해서요. 자, 보오. 우리가 해야 할 설계요. 이속에도 시가 있소.》

림형빈부교수는 어지간히 흥분했었다.

다음날부터 우리는 현장에 침실을 전개하고 설계전투에 들어갔다.

부지조사, 기존설계문건검토, 기초자료수집, 각이한 방안들의 설정...

낮과 밤을 모르는 긴장한 탐구의 로동속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었다.

나는 그날 종일 비를 맞으며 야외조사를 하던 끝에 감기에 걸려 눕게 되었다.

동무들은 멀리 다른 연구소들로 설계기초자료들을 수집하러 떠나고 없었다.

고열과 싸우며 쓸쓸히 누워있는데 림형빈부교수가 소리없이 들어섰다.

그는 나의 이마를 조심히 짚어보고 말했다.

《아직도 열이 있구만. 일어나 이걸 먹소.》

파, 마늘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다.

그가 미음을 쑤어온것이였다.

그는 평소에 말이 없고 엄격한, 지어 딱딱해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에게서 이런 다심한 정을 보게 되니 절로 눈곱이 뜨거워났다.

미음을 먹는 나를 이윽히 지켜보던 그가 느닷없이 물었다.

《시도 써야지. 이제 바다가에 펼쳐질 거대한 변혁이 그대로 시가 되고 노래로 될수 있소.》

그는 창문가에 다가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전우들도 시를 썼지.》

스승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그 무슨 생각에 잠겨 다시 고개를 돌렸다.

《이 건설장에서 생활체험을 하니 이런 생각이 떠오르오. 모래바람만 몰아치고 파도소리 울리던 이 벌판에 오늘은 어떤 전변이 일어나고있는가. ...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이 건설장. 세월의 비바람에 시달리면서도 애써 피어나려는 희망을 간직한듯 해당화꽃들만 쓸쓸히 피어있던 이 벌판에 우리가 묻은것은 무엇이며 안아올리는 건 또 무엇인가?》

그리고 돌연 나를 돌아보는것이였다.

《동무는 자기가 계산하는 설계수치 하나하나에 자기지식만이 아닌 열정도 다 쏟아부어야 하오. ...》

나는 며칠전에 설계계산을 하며 기초자료들을 선택할때 안전성을 보장하느라 허용수치를 넉넉히 보았는데 스승은 정확하게 다시 계산할것을 요구했다.

《그 수치, 그 점 하나에 수많은 자재와 로력, 자금이 낭비될수 있다는데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하오.

자기 창조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바로 시가 아니겠소.

하기에 설계란 연습이 아니라 창조요. 대답해야 하오.》

그때 우리는 건설부지인 허허벌판을 걸었다.

무연한 벌판에 방금 세우기 시작한 콘크리트기둥들만 줄지어 서있었다.

굴착기들이 여기저기에서 팔을 휘저으며 흙을 퍼내고있었다.

안경을 낀 그의 두눈이 해빛에 번쩍거렸다.

《몇년후에 이곳에도 와보오. 그때면 거창한 생활이 태동할거요. 바로 그때에는 공지만이 아닌 환희가 시처럼 나래칠거요.》

하나의 허용오차에도 엄격한 그였지만 남다른 열정으로 고무해주었다.

스승의 지도를 받으며 설계를 끝내던 때의 기쁨이 지금도 가슴에 젖어든다.

잠시후 렬차는 ㅈ시의 바다가에 있는 ㅈ제철소 옆을 지났다.

나는 차창밖에 눈길을 박고 움직일줄 몰랐다.

그 철의 기지가 흘러가고있었기때문이다....

×

어느날 탄광마을에 있는 우리 숙소에 우편통신원이 웬 소포와 등기편지를 가져다주었다.

나는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았다.

뜻밖에 림형빈교수의 가정에서 보내온것이였다.

소포를 풀었다. 색이 바랜 오랜 실험일지들이 나왔다.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림형빈교수의 일기들이였다.

소포와 함께 편지도 왔다.

림형빈교수의 사위의 편지였다.

《류민동무!... 장모의 허락을 받고 나는 오늘 이 소포를 꾸미네. 솔직히 말하네만 나는 지금 자네에게 부끄럽네. 나는 오늘 자신을 심각히 돌이켜보네. 나는 이책들을 소유할만 한 존재가 못되네. 이것을 웅당 자네가 보아야 하네. 책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동무가 더잘 알거네. 이제라도 나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네.》

그 편지를 읽고 나는 생각에 잠겼다.

10여년전 스승과 함께 지냈던 대학시절의 일들이 나를 사로잡는것이였다.

론문실습 나날의 어느날 밤의 일이였다.

길가에서 우연히 림형빈부교수의 딸을 만났다.

스승의 집으로 가던 길이였다.

나는 처녀와 함께 걸었다.

《류민동무는 시를 쓴다지요?...》

처녀가 문득 나에게 물었다.

《죤...》 나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류민동무가 제일 사랑하는것이 뭐예요?》

《물.》

《물?》

달빛을 받아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의 얼굴에 일순 아연해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깔깔 웃었다.

《물?... 물을 사랑해요?》

나는 열을 올리며 지질학에서 물의 작용으로 거대한 광상이 형성된것이 있고 우리 유기체도 물에서 생겨났다고 말했다.

《류민동무는 우리 아버지와 꼭 같군요.》

《?!...》

《우리 어머니는 과학은 예술과 거리가 먼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는 시무룩해졌다.

그날 부교수 집에 들어서니 부인이 나에게 물었다.

《이 사람을 아나?》

한 청년의 사진이 책상우에 있었다.

《3년 상급생입니다.》

《지금은 설계연구소에서 일하지.》

림형빈부교수가 그때 방안에 들어서며 말했다.

《그 최우등생이란 녀석이 심장은 차갑단 말이요. 난 오히려 시가 종단 말이야.》

나는 모닥불을 뒤집어쓰는것만 같았다.

스승의 집을 자주 찾는터여서 이미 구면이 된 그의 딸이 곱게 생겼고 명랑한 성격이어서 총각들이 적지 않게 눈독을 들인다는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나의 장래와 결부시켜 생각해보지는 못한 나였다.

그럼에도 그 말은 이상한 여운을 주는것이였다. 대학시절에 그 청년을 나는 종종 만나곤 하였었다.

예술소품공연을 준비할 때(우리는 종종 그렇게 했다.)그 청년이 (그는 합창을 지휘했다.) 한번은 나에게 말했다.

《부교수선생집과 가까이 지내지?》

《가까이 지냅니다.》

《나를 소개해줄수 없나. 학부가 다르다보니 섯 찾아가기가 힘들구만.》

대답이 없자 그는 내가 들고있는 책을 펼쳐보았다.

《확률론책이구만. 예습을 하오? 밑줄이 많이 그어져있는걸 보니 예습을 많이 했구만!》

그는 빙긋 웃었다.

《대학시절에는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해. 최우등부터 하고 보아야 하니까.》

그는 바이올린을 켜는데도 명수였다.

게다가 또 미남자였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청년에 대해 며칠전에 림형빈부교수가 성을 냈었다.

졸업후 그는 설계연구소 심사원으로 일하고있었다.

나에게 말했었다.

《설계가 대단하구만... 세계적인 학자가 될걸 꿈꾸나? 나라에서 손꼽히는 과학자가 될걸 희망하겠지? 지금은 우리 주위에서 능력이 있다고 불리우길 바라고... 그런데 쉽지 않아... 그래 그래.》

그걸 안 부교수는 소리쳤었다.

《그렇단 말이요. 그 녀석에게는 그렇게 모든것이 사리정연하단 말이요. 너무나도 논리적이요.》

그런데 몇달후 어느날 숙소에 스승이 나타났다.

스승은 무슨 보푸레미를 들고 서있었다.

《우리 애가 시집을 갔소.》 스승이 말했다.

순간 눈앞에서 무엇인가 언뜻 스쳐지나가는것 같았다.

스승의 얼굴은 불그레했다.

눈길은 초점을 잃은듯 흐릿했다.

(림형빈부교수는 평소에 술도 안마시고 담배도 안피우던 사람이였다.)

우두커니 서있는 나를 보고 그는 말했다.

《우리 딸 잔치음식이요. 어서 드오.》

찬물을 마시는 그의 손은 떨렸다.

《대학시절부터 계속 쫓아다니더니 끝내 제 어머니를 녹여냈군.》

스승은 혼자 중얼거렸다.

왜서인지 마음이 쓸쓸해났다.

딸을 《잃었다》는 상실감은 결코 아니였다.

스승이 자기 딸을 남에게 건주어보던 그 믿음을 받을만 한 자격이 나에게 없었다는 새삼스러운 회오랄가... 아니, 그보다는 《바이올린현줄에 과학을 용해시킨》 그 청년에 대한 실망감때문일 것이다.

《선생님은 청춘시절에 부인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스승은 대답을 피하듯 인차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후에 숨을 푹 내쉬였다.

《동무와 같은 시절에 나는 과학탐구에만 몰두했지. 과학하고 연애했다고 할가. 녀성에 대한 문제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그 어디선가 나의 반려도 있으리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지.

그 반려자가 뜻밖에도 스승의 소개로 나서게 될줄은 나도 미처 몰랐소.》

스승은 생각속에 잠겨 밖을 바라보았다.

《생활에는 사랑때문에 자기 남편인 과학자의 재능을 희생시킨 녀성들이 더러 있소. 그에 비하면 나는 다행했다고 볼수 있지. 어떤 소설을 보니 연애란 결코 고귀한 감정만일수 없다고 썼더군.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오. 그러나 동무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되오. 청춘시절에 자기가 관심하는 과학적인 탐구와 연애와 같은 파란곡절이 많은 감정과 뒤섞지 말자고 생각하지? 결코 그렇게만 사랑을 대하지 말리구. 사랑도 힘이 되니까.》

나는 그날밤 스승의 말이 귀전을 땀돌아 오래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까지도 창문으로는 자동차들의 경적소리가 이따금씩 들려오고 전조등빛이 유리를 스치고 지나가군 했다.

멀리 천체철소쪽에서 울리는 그 무엇인가 둔중한 음향의 알릴락말락 땅을 은은히 울리어 들려 오기도했다.

깜박 잠들었던 나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번쩍 떴다.

림형빈부교수가 옆침대에 없었다.

머리를 드니 부교수는 책상을 마주하고있었다.

그는 탁상등빛이 나에게 비치지 않게 가리워놓고는 책상위의 설계계산을 하나하나 검토하고있었다.

눈을 가늘게 쪼프리고 안경을 추어올리고는 계산자의 눈금을 맞추고있었다.

그 모습에는 무엇인가 사업을 위해 개인적인 아픔을 무시해버리는 완강한 정신력이 번쩍이는 듯 했다.

《이리 와 이 도면을 보오. 설계를 훌륭히 했소. 시도가 대담하군.》

그는 침대에서 일어난 나에게 말했다.

《건설을 훨씬 앞당길수 있을것 같소. 이 기초자료들이 얼마나 신빙성있는가. 환상이 나래치거든. 여기에는 시가 있소.》

아침 첫 버스를 타고 스승은 대학으로 돌아갔

다.

나는 흥분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어쩌면 내가 간밤에 청춘과 사랑에 대하여 복잡한 생각을 했던것 같았다.

×

나는 생각에서 벗어났다.

사위가 보낸 림형빈교수의 일기장을 보았다.

일기의 한 대목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류민이를 나는 만났다. 몰라보게 변했다. 그런데 무언가 서운한 감정, 아쉬움같은것이 자꾸 갈마든다. 그것은 무엇때문일까?》

전류같은것이 찌르르 내 마음을 누벼나갔다.

불현듯 나는 그 무엇이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그때 일이 너무도 방불하게 눈앞에 되새겨지는 것이었다.

×

…그랬다. 나는 그때 몇년만에 대학을 찾았었다.

렬차가 촛역에 가까와오자 차창으로는 멀리 바다가의 공장지구와 고층건물들이 하나둘 바라보이기 시작했다.

아, 몇년만에 다시 보는 도시인가. 촛시는 더 새로와진것 같았다.

그것은 무엇때문일까? 나의 마음이 더 새로와졌기때문일까?

아니면 도시가 언제나 나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기때문일까?

역에 내려 구름다리를 넘어 한창 가노라니 백양나무숲속에 서있는 모교의 청사가 멀리 바라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이 울렁거려 왔다.

언제나 잊지 않은 모교였다.

그래서인지 현관실습을 마치고 모교에 다시 찾아오는듯 한 기분이 들었다.

사실 나는 탄광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로 스승의 도움을 받자고 찾아왔었다.

《그동안 왜 자주 오지 않았소? 동무가 대학을 다 있었는데가 하였고. 동무를 얼마나 나무랐는지 모르오.》

스승의 그 편지를 받고 나는 자신을 얼마나 꾸지람했던가.

스승에게 자주 편지를 못했다.

왜 그랬을까?

스승에게 찾아오자면 그럴 권리가 있어야 했다.

그 권리란 무엇일까?

물속을 뚫고 갯을 굴진해 들어가야 했다.

그것은 탄광의 장래운명과 관련한 중요한 기술적문제였다.

나는 새 방법을 강구하려 하였다.

그것이 성공할것인가.

고심하고있을 때 림형빈교수가 편지를 보내왔다.

꼭 왔다가라는것이였다.

강좌에 찾아갔다.

방에 들어가니 선생들은 강의에 들어가고 없었다.

창문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운동장 한쪽에 새 실습공장을 건설한것이 내다보였다.

시추기, 굴착기, 새 채탄기들이 서있었다.

백양나무가 더 무성해진것 같았다.

여러해전에 3대혁명소조사업을 마치고 대학을 다시 찾아왔을 때 림형빈교수는 나에게 물었었다.

《어디에 가서 일하러 하오?》

《수력발전소건설장에 아니면…》

나는 선뜻 대답할수 없었다.

스승은 나를 이윽히 바라보다 말했다.

《탄광에 가야겠소.》

《예?》

《석탄이 많이 나와야 하지. … 그래야 전기가 나오지않겠소?》

나는 그저 스승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지금 탄광들에서 지하수때문에 고생하오. 그 물과 싸우시오. 동무는 지하수전문가가 아니요. 물이 많은 탄전으로 가시오.》

나는 그래서 탄광에 갔었다.

방안을 둘러보았다.

책상우에 학생들의 실험보고서가 한무더기 놓여있었다.

나는 그것이 림형빈교수의 책상이라는걸 알았다.

가슴이 설레여왔다.

스승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것만 같았다.

실험 보고서들을 한장한장 읽고있는것만 같았다.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어려여있다.

실망의 빛이 떠오르기도 한다. 화를 낸다. 혼자 낮을 찡그리고 성을 낸다.

어느덧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오른다.

미래의 빛나는 꿈들... 새로운 랑만의 세계들이 그의 눈앞에 언뜻언뜻 펼쳐지고있다.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렸다.

문가에 한 선생이 들어섰다.

림형빈교수였다.

그는 들어서다 말고 나를 이윽히 바라보며 서 있었다.

《선생님...》

나는 스승의 손을 꼭 잡았다.

스승은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았다.

《물라보게 변했소. 물라보게.》

나를 이끌어 결상에 앉혔다.

내가 조심히 내미는 론문과 설계를 주의깊게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는 흥분의 불꽃이 튀겨올랐다.

《음... 그래서 찾아왔단 말이지? 훌륭하오 훌륭해.》

그는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았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얼굴에는 흥분해하는 빛과 어울려 대견해하는 빛이 떠올랐다.

《그 어디에도 이 자료만은 없단 말이지? 전혀 새로운것을 개척한다는것이 얼마나 흥미있는 일이지?》

그의 눈에서는 흥분의 빛과 어울려 만족의 빛이 번뜩이었다.

스승은 자그마한 수첩을 꺼냈다.

바로 그 수첩이었다.

그는 그속에서 내가 앞으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름들을 불러주었다.

《세계적으로 해결 못했는데 우리가 해낼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려하는건 자기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수 있소. 뛰어넘어야 하오. 남의 뒤를 따라갈 필요가 없소.》

그는 책장속에서 자기가 보관해두었던 연구자료철을 꺼냈다.

한장한장 정색해서 이야기하며 넘겨주었다.

그것은 참으로 귀중한것이였다.

그런데 잠시후 스승은 그 무슨 생각에 잠겨있다가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오후에는 어떻게 하려 하오?》

나는 오후에 해당 기관에 일을 보고 저녁차에 인차 떠나려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스승의 얼굴에 갑자기 놀라와하는 빛이, 지어락심해하는 빛이, 아니 실망해하는 빛이 떠올랐다.

《우리 집에는 언제 들리겠소?》

《시간이 있으면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결상에서 일어나 스승은 창문쪽으로 다가갔다.

잠시동안 그는 밖을 내다보며 말없이 서있었다.

《시간이 없소. 시간이 없을수 있소. 그럴수 있지. 우리 집엔 안들려도 좋소. 그건 사사로운 일이니까.》

부인의 안부를 묻고 다시 슬며시 스승의 눈치를 살폈다.

《사위는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나는 스승에게 물었다.

《평양으로 올라갔소.》

스승은 이마살을 찌프리고 웬 일인지 어두운 기색을 하며 말했다.

《연구기관이 아니라 행정일군으로 말이요. 과학연구와 멀어졌소.》

그는 인차 화제를 돌려 나에게 돌아섰다.

《시간을 내서 ㄸ체철소에는 가보지 않겠소?》

순간 나의 머리속에서 그 무엇인가 번쩍이는것이 있었다.

그 말은 그 순간 나의 의식을 세차게 흔들어 일으키며 온몸에 뜨거운 피가 솟구쳐오르게 하였다.

그 말은 나를 정신차리게 하였다.

나의 심혼속에 잠자던 그 무엇을 눈뜨게 하였다.

《시, 동무는 시를 쓰지 않소.》

아니 직접 찾아가 보오. 동무는 10년전에 설계를 해놓은 사람이 아니요.》

나는 오후에 일을 본후 새로 확장건설된 그 철의 기지로 가보았다....

저녁에 ㄸ역에 나왔다.

스승이 나왔다.

나는 스승에게 새로 일떠선 ㄸ체철소에 가본 인상을 이야기했다.

설계한 구조물은 훌륭히 운영되고있었다.

우단점이 있었지만 큰 결함은 없었다.

그것들은 앞으로의 설계에 꼭 참고로 해들것들

이었다.

현장기사들과 만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설계한 구조물의 운영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중의 한 기사는 이미 내가 아는 기사였다.

10년전에 대학논문실습을 할 때 사귀었던 제대 군인이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글쎄 우리를 잊었던 말입니까? 잊고 그냥 떠나려하였다니.》

그는 열정에 넘쳐 말했다.

《응당 설계가는 자기가 설계한 창조물의 운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교량설계가는 자기가 설계한 다리우로 첫 열차가 지날 때 그 열차우에 자기가 직접 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무는 설계의 시공과 운영에도 참가 못했지요? 정말 안됐습니다. 이건 림형빈교수가 나에게 한 말입니다.》

청년에게 말했다.

《꼭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게 몇몇이 다시 만나 뵈을 권리를 가지고 다시 오겠소.》

청년기사와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스승은 웃으며 말했다.

《그동안 대학을 찾을 권리가 없어서, 나를 만날 체면이 없어서 찾아오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체면과 그 권리란 무엇이겠소? 자기 창조물에 대한 긍지가 아니겠소.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은 조국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요.》

사실 나는 그때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그냥 열차를 타고가며 차창으로 건설장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였다.

그러나 스승은 나를 그 철의 기지로 제발로 걸으며 새 눈으로 음미해보게 불렀다.

깊이 생각해볼수록 과거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사랑할수 없다.

구조물은 과거생활의 창조물이다.

창조적로동의 결과이다.

우리 투쟁의 보람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그때 스승이 10년전 대학시절에 그 건설장에서 마지막 대학졸업논문실습을 할 때 건설장을 걸으며 우리 생활의 시란 어디에 있는가고 나에게 말하던 생각이 났다.

10년후의 건설장을 그는 그때 벌써 상상했었다.

그후에 그는 나를 그 땅우를 직접 걷게 하였다.

스승은 그때 나를 바래주며 말했다.

《언제나 미래를 안고살아야 하오. 현실에서 자기의 힘을 소유한 사람만이 미래를 사랑하게 되오.》

나는 눈길을 들었다.

생각에서 벗어났다.

창박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구호가 보였다.

나는 스승이 살아있다고 생각되었다.

스승은 우리에게 늘 《남의 창조물을 기다리지 말고 자기의 창조물을 남에게 선사하라.》는 말을 뇌이군하였다.

나는 그것이 그가 평생 나에게 가르친 시라고 생각한다.

스승과 헤어진후 나는 그 새 수직갱건설에서 성공하였다.

그것은 국제과학기술축전에도 출품되었다.

그때 그 철의 기지를 찾아가 지난날의 설계의 우단점을 다시 찾아보지 않았더라면 그후의 설계에서 이런 성공을 이룩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스승은 살아있다.

그가 생전에 자기의 모든 사랑과 생명, 모든 진심을 다 바쳐 기울여온 그 사업은 남아있다.

그의 사색은 지금 빛을 뿌리고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승의 사위에게 그렇게 립장을 썼다...

통일은 우리 손에

윤정길

뜨겁게 부여잡으니

톡톡 피가 통하누나

남녘의 동포

범민족대회장으로

달려온 나의 형제들아

갈라져선 안될것이 갈라진 땅에서

가슴헤쳐 애타게 통일을 부르며

분렬세월의 아픔속에

통일의 념원으로 불타는 맹세가

마주잡은 우리 손에 맥박치지 않느냐

분렬, 그 아픔으로 하여

행복과 불행을

량손에 쥐고 살아야 했던 우리

통일의 대문을 열고자

이 손으로 얼마나 타는 가슴 두드렸더나

형제여

초불의 바다우에

그네들의 주먹이 솟구쳐오를 때

내 또한 이 손을 부르짖고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가며

출근길을 다우쳤거니

6.15북남공동선언 그 정신으로

《우리 민족끼리》 그 리념으로

겨레의 힘을 합쳐 민족의 넋을 불러

오늘에 펼친 범민족대회장에 넘치는것

어이 상봉의 기쁨만이라 할것인가

피가 뛰는 통일념원의 신아홉해

이제 더는 아픈 나이를 먹을수 없는

해방해에 태어난 세대들이

분렬세월에 60돛 생일을 맞을수 있단 말인가

그 손을 다오

굳게 맞잡으니 더 큰 주먹 아니냐

이 주먹으로 분렬장벽 깨부시고

통일의 대문을 열어제끼자

북과 남을 이어주는

철길처럼 도로처럼

온 나라가 한마당으로 된 범민족대회장에서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치여

뜨겁게 굽이치는 혈육의 정

민족의 피줄기

울고 웃으며 열싸안고

틀어진 북과 남의 손으로

통일대문 활짝 열어제길

아, 범민족대회장

겨레여 민족이여, 마주잡은 우리 손안에

통일은 벌써 톡톡 뛰며 오지 않는가

한줄기

남해물나라 여러 룡들가운데서 유독 청룡만이 대를 물리며 왕위를 차지할수 있었다.

까닭에 《청룡》이라 할 때 그것은 곧 룡왕을 뜻하였다.

며칠전 아흔아홉대 룡왕이 승하(임금의 죽음)하고 그의 애젊은 아들이 왕통을 이어 왕위에 올랐다. 즉위식에 온 나라 신하들이 다 모여들어 새 룡왕의 장수와 선정을 축원하였다. 젊은 청룡은 왕이 된 다음날 혼례식을 올리였다. 신하들은 그를 두고 복을 쌍으로 누리는 행운아라고 부러워마지 않았다. 드넓은 남해물나라를 통치하게 되데다가 만가지 복의 근원인 혼례까지 치르었으니 어찌 안그러겠는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였다.

무슨 까닭인지 그는 《행운아》가 된 다음부터 우울증에 걸렸다. 걸핏하면 발끈 성을 내기가 일쑤였고 밤낮 무슨 생각에 골몰해있느라 곁에서 누가 무어라고 여쭈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룡궁신하들은 말할것 없고 온 물나라가 근심에 잠겼다. 그들가운데서도 새 왕비는 누구보다도 애타게 속을 썩이였다.

(혹시 어느 다른 룡녀에게 마음이 끌려서일가?... 아니, 그럴수 없어. 하다면 왕좌를 노리는 어느 간신평문일가?...)

룡왕의 얼굴에 그들이 질어갈수록 왕비의 근심도 더더욱 커갔다.

이리하여 남해룡왕부부는 첫 사랑을 주고받아볼 사이도 없이 제나름의 고민에 싸여버렸다.

젊은 임금이 새 완비의 애를 태운 까닭은 무엇이었던가?

왕좌에 오르기 이전에 청룡은 하늘 멀리까지 날아다니지 못하였다. 한것은 근심많은 부왕이 아직은 어린 그가 룡궁으로부터 먼곳에서 미처 돌봐줄 사이없이 어떤 불상사에 빠질가보아 겁을 냈기때문이었다. 외세에 대한 단속은 자못 엄하였다.

왕이 된 직후 청룡은 마음껏 날아볼 마음을 먹었다.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데다가 나라를 다스리자면 바깥세상을 잘 알아야 할뿐아니라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끝까지 상세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었던것

이다. 하여 먼길을 떠난 그의 첫눈에 띄운것은 일망무제한 바다북쪽에 자리잡은 큰 땅덩이였다. 어마어마한 땅덩이는 바다마냥 끝이 보이지 않았다. 생전 처음인 구경거리는 참을길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곧 부지런히 날아서 물의 상공에 이르렀다. 물세상 못지 않게 거대한 땅덩이- 물은 그 어디를 보나 물속과는 판이한 황홀경을 펼쳐놓았다.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메부리들에 구름떼들이 걸린 광경도 웅장하지만 거부기잔등같이 낮은산들은 그것대로 아담하기가 그지없었다. 바다처럼 끝간데를 모를지경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들판이며 그 한가운데로 굽이굽이 흐르는 은빛강물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굽어볼수록 탐나는 땅이었다.

이런 물을 거느리지 못하고 따분한 물속의 왕자리를 차지한 자신의 처지가 한스럽기까지 하였다.

몽땅 다 가지고싶은 땅덩이가운데서도 남쪽으로 조금떨어진 하나의 큰 섬이 한번 눈길을 끌어당긴 다음에는 당초에 놓아줄줄을 몰랐다. 가로 퍼진 조개마냥 둥그스름한 섬의 둘레에는 온통 눈부신 흰 모래가 깔려있어 마치 섬전체가 은테속에 들어앉은것 같았다. 울울창창히 뒤덮인 형형색색의 나무들 마다에는 붉고 누런 과일들이 가지가 휘도록 주렁주렁 열리였다. 왕문머리통만큼씩이나 큰 굴들은 개개가 황금빛이요, 타는듯 붉은 복숭아들에서 입맛에 앞서 풍겨나는 향기엔 숨이 다 막힐 지경이었다.

정신이 펄쩍 들고 오장이 시원한 이런 향기는 룡궁에는 정녕 없다. 이뿐이 아니다. 바다속의 진주나 신호에 비길수없이 아름다운 이 섬의 한가운데에는 풍치수려한 산이 하나 우뚝 솟아있는데 놀랍게도 그 꼭대기에는 큰 못이 있었다. 기암괴석들과 갖가지 과일나무숲으로 둘러싸인 못은 마치 거울인양 번쩍번쩍 빛이 났다. 그것은 분명 물로 이루어진 못이라기보다 하나의 보석덩이같았다.

절경에 넋을 잃고 섬우를 끊임없이 날아보던 그는 날이 저물어서야 룡궁으로 되돌아왔다.

왕비와 함께 자리에 누웠건만 한쪽의 그림인듯 아름다운 섬의 모습이 자꾸만 생생히 안겨와서 도저히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이리뒤척 저리뒤척하여 혼자서 꿈꿨거리는 그를 보다못해 왕비가 피로

운 어조로 물었다.

《어디가 편찮으세요?... 그럼 왜 그리... 혹시 저에게서 무슨 큰 허물을 보시고 그리시는것이 아니신지?》

《아, 아-니,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고달픈 작사랑처럼 그 섬에 정이 끌려 그런다고는 차마 대답할수가 없었다. 그 정도 역시 정이다. 모든 정을 다 독차지하고싶을 안해가 그것을 좋아할리 없지 않는가.

다음날 이른아침이었다.

젊은 룡왕은 조희고 접견이고 다 걸어치운 다음 바깥 섬으로 날아갔다. 마침 해가 솟아오르고있었다. 해빛을 받은 섬은 진좌 보석인양 아니, 해의 한 부분이 떨어져내린듯싶게 눈부신 빛을 뿌렸다. 울창한 숲으로 각 덮인 산도 별의별 열매가 쪽 깔린 들판도 모두 찬란한 황금빛속에 생기가 넘치고 무르녹는 향기에 휩싸였다. 보면 볼수록 더욱 탐스러운 땅이요. 밟을 사로잡는 보물이였다.

청룡은 천천히 날아돌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저 산마루의 못속에 나의 궁궐을 꾸리자 해빛이 잘 비쳐들고 바람 시원한 산기슭 어느 한 절경에 자리를 잡으면 좋으련만 나는 룡이라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지않는가...

황홀한 경치에 파묻혀 바다를 내려다보며 물나라를 다스린다면 얼마나 멋있을가! 나의 선대왕들은 어찌하여 하늘이 내려보내준 이러한 성지를 보지 못하고 어둡시 근한 바다밑에 궁전을 꾸렸을가?!...

이러나저러나 궁궐역사는 다음 일ियो. 수정같이 맑은 물속에 몸부러 잠가보고싶은 욕망이 청룡의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났다. 하늘의 해와 섬의 온갖 경치가 한꺼번에 다 비끼는 못은 기막힌 매력으로 온몸을 빨아들일듯 유혹하고있었다.

한껏 달아오른 몸이 바야흐로 물에 닿으려는 순간이었다. 별안간 물속으로부터 어떤 그 무엇이 와 탁탁 올려받아 그를 기슭으로 내동댕이쳐버렸다. 아찔했던 청룡이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이 새하얀 룡 한마리가 몸을 절반쯤 물밖으로 내놓고 사납게 눈을 부라리며 큰소리로 울러대는것이였다.

《야! 너는 대체 누군데 남의 땅에 기여드느냐. 이 제 또 한번만 얼씬했다간 가만 두지 않을테다!》

《?!》

청룡은 깜짝 놀랐다. 분하였다. 도적이 매표 들이도 분수가 있지 내 세상에서 나를 모욕하다니?!

그는 노기가 발발해서 처음 보는 백룡을 사정없

이 꾸짖었다.

《내가 누구인줄 알고 네가 감히 나를 들이받을수 있으며 또 반말질까지 하느냐. 응? 네가 도대체 모가지가 몇개나 되기에 그따위 망발이나, 이놈!》

《내가 남해 물나라임금 청룡이지 누군 누구겠느냐.》

《그렇다. 난 이 바다의 주인이다. 이 섬은 내가 다스리는 물나라안에 있는것인즉 바로 내가 주인이 분명케늘 뭇이 어찌구 어찌? 하늘높고 바다깊은줄 모르는 놈같으니. 내 이제 꽃계군사들을 불러다가 네놈을 당장 탕쳐버리고 말테다!》

이발이 으드득 갈리도록 성이 난 청룡은 금방 씹어삼킬듯 무서운 기상으로 백룡의 머리우를 휘휘 날아돌며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못주위의 숲이 좌좌 몸부림치고 잔잔하던 바다에선 세찬 파도가 일어났다. 아난게 아니라 서슬 푸른 위엄을 떨쳐대며 으르렁대는 그의 기상을 보면 틀림없는 당당한 주인의 기상이였다. 하지만 백룡은 몸 한번 떨지 않고 태연히 대답하였다.

《이 섬이 네것이라구? 한개 물나라를 다스리는 룡왕이 알고본즉 청맹파니로군. 똑똑히 듣거라.

이 섬은 저 북쪽 큰 물의 머리인 백두산의 한줄기이다. 까닭에 바다의 주인이 너일지는 몰라도 이 섬의 주인은 백두산이다!》

《뭐라구? 나의 바다품에 안겨있는 섬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네놈이야말로 청맹파니요, 날도적놈이다. 내 이제 당장 네놈을...》

《가만, 서두르지 말고 내 말을 듣소.》

백룡은 말투를 점잖게 고치며 그를 막았다.

《이보소 남해룡왕, 내 한가지 묻겠소. 바다밑 바위굴속에 잠든 문어가 다리 하나를 넘치들이 돌아치는 밖으로 내어밀었다해서 그 다리가 넘치들의것이겠소?》

(?...)

대답이 궁해진 청룡은 백룡의 천연스러운 물음속에 심상치 않은 그 무엇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가만 있자. 그러니까 이 섬은 굴속의 문어가 굴밖으로 내놓은 다리처럼 바다건너 북쪽물의 한 가지란 말인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품고보니 남해룡궁 조상들이 일찌기 이 섬에 자리를 잡지 못한 원인도 비로소 짐작되는듯싶었다. 지 백룡의 뿔뿔한 기품만 보아도 그렇다. 이 섬이 내가 다스리는 땅, 진실로 내것이라면 저 백룡이 이렇게 팡팡 울러댈수 없지 않는

가. 도적이 매를 든대도 분수가 있거늘.

《종소, 그럼 나도 하나 묻겠소.》

청룡은 어쩐지 반말이 나가지 않아 례의로 말투를 바꿨다.

《그대는 어떻게 돼서 여기 주인노릇을 하오?》

《나는 백두산천지 룡왕님신하로서 백두산줄기의 한가지인 이 섬을 지키고있소. 이를테면 이 섬의 파수병이란 말이요.》

《백두산줄기의 한가지를 지킨다?!》

《그렇소.》

《...》

그제야 청룡은 잘 가늠해보고 처신해야지 서둘러 접어들다가는 큰코 다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룡은 자기가 직접 백두산에 가본적은 없지만 룡궁에서 자라면서 백두산이 천하제일명산으로 물의 조종이란 말은 많이 들어왔었다. 그러나 물에 붙었다면 모르되 수백리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 그와 잇달린 한줄기라니 그를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다. 굴속문어에 대한 비유가 뜻을 안고있기는 하여도 그것을 선뜻 인정할수 없었다. 큰 물과 섬사이에 가로 놓인 바다를 《문어의 바위굴》로 보는것도 전혀 리해가 안되었다. 아무리 백두산이 천하조종이라 할진대 바다를 건너 수백리 여기까지 자기의 가치를 뽐칠수야 없지 않는가...

어쨌든 상대가 만만치 않고 벌어진 일이 심상치 않은즉 욱다짐으로도 일을 치러낼수가 없음을 그는 알수 있었다. 하여 룡왕으로서의 자존심을 꺾자니 얼굴이 뜨거웠지만 사태수습을 위해 일단 자리를 피할 결심을 가지었다. 그는 짐짓 웃어른다운 아량을 보이며 백룡을 은근히 타일렀다.

《남해룡왕이란 이름에 누가 끼칠것이 저어되어 참는것이 덕이 된다는 말을 따를가 하오. 허나 그대의 주장은 거짓이 분명커늘 나는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되오. 숙인 머리는 बे지 않는 법이라 그대 벌을 두려워말고 내앞에 용서를 빌것인즉 그러면 다짐컨대 죄를 묻지않겠소.》

...

청룡이 시름에 싸여있고 왕비를 불안하게 만든 까닭은 바로 이런 사정때문이었다.

정사도 근신들도 연회도 지어 안해까지도 모두다 시들하게만 여겨지고 눈앞에는 진주보석처럼 아름다운 섬과 위풍당당한 백룡만 얼른거릴뿐이었다. 그럴수록 줄기야 어디에 붙었든 시야비야 가릴것 없이 그 섬을 가로 타앉고싶은 욕망이 불길처럼 타

올랐다. 설사 백룡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 하여 단념해버리기에는 섬의 값이 너무도 컸다.

왕비는 속이 타서 왜 우울해있느냐고 자주 물으며 그까닭을 알고싶어 몸살을 앓다못해 며칠후에는 《...아무래도 임금님께서서는 날 믿지 못해 속마음 그토록 숨기시는가 본데 믿음을 받지 못할바에야 나같은것이 궁중에 있어 무얼하리오.》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기까지 하였다.

그제야 안해를 너무 괴롭혔구나 하는 미안한 생각이 든 청룡은 그의 손목을 잡고 애끓는 사연을 전부 드러내놓았다.

《전 임금님께 그렇듯 마음 피로운 일이 있는줄은 미처 모르고 위안을 드릴대신 언짢게만 여겨왔으니 죄송하오이다. 널리 용서하시오이다. ... 그 섬 못의 백룡이 한 말은 믿을수가 없다고 보오이다. 바다 한복판의 땅이 큰 물의 한가지라니... 그 섬은 어느 모로 보나 물나라땅이 틀림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차지해야 하오이다. 새 임금의 본때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걸 드릴수 없소이다.》

왕비는 물나라에 그쯤한 섬을 타고있을 힘이 넉넉한데 무엇을 그리도 근심하는가고 왕을 위로하였다.

청룡은 그 말을 듣고보니 신심이 생겼다.

《장하오. 그대가 아니고서야 누가 날 이처럼 도와주겠소. 부부일심이라더니 과연 옳은 말이요.》

그는 즉시 철갑을 쓴 꽃게무리들과 대적할자없이 사나운 상어떼, 바다를 들었다놓는 힘장사 고래들을 몽땅불러 섬을 덮치라는 명을 내렸다.

딱지로부터 발끝까지 창점으로 무장한 수만마리 꽃게들이 섬위로 새까맣게 기여올랐다. 고래, 상어 무리는 울타리치듯 섬을 에워싸고 단번에 짓몽개버릴듯 길길이 뛰여오르며 산더미같은 파도를 일으켰다. 이우로 청룡부부가 빙글빙글 날아돌며 정황을 살폈다.

보면 볼수록 왕비의 머리속에서는 이제 터지게 될 싸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졌다. 본물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산의 황홀한 경치에 온 정신이 쏠린것이다. 과연 임금의 녀를 말끔 빼앗을만큼 섬과 산은 기막힌 절경을 이루고있는것이였다.

그와는 달리 청룡은 눈정기를 모아 바야흐로 싸움이 벌어질 못가를 사방 훑어보았다.

온몸에 돌처럼 딱딱한 갑옷을 입고 발끝마다 창을 든 수천수만의 꽃게무리가 거의 산정가까이까지 기여올랐으나 못은 그전과 다름없이 고요할뿐 달라

지는 기미는 조금도 띄이지 않았다.

(아-니, 백룡이 질겁하여 벌써 넘어졌는가? 아니면 어느새 도망을...)

눈치 빠른 왕비는 그의 이런 생각을 대변에 알아챈 듯 《암, 그렇고말고요!》 하고 노래가락처럼 외우며 방글방글 웃는 표정으로 날아왔다.

청룡은 저 섬이 쉽사리 내것으로 되는가 싶어 사뭇 가슴이 설레이기는 하면서도 당당하던 백룡의 기백을 되새겨보느라니 목에 큼직한 가시라도 걸린 듯 덜쳐드는 불안을 어쩔수 없었다.

와글거리는 꽃게들이 서리발 창검을 쏘나든채 산마루에 거의다 다달았을 때였다. 별안간 못물이 부글부글 끓더니 낮익은 그 백룡이 불쑥 솟구쳐올랐다. 그는 훌쩍 날아 못둘레의 제일 높은 돌봉우리 위에 내려앉았다. 순간 아롱아롱한 오색구름이 확 피어나면서 그를 덮어버렸다. 조금 지나서 구름도 백룡도 가뭇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눈같이 흰 사슴 한마리가 나타났다. 청룡은 흠칫 놀랐다.

(아! 백룡이 흰사슴으로 변했구나!)

흰사슴은 주위에는 아무일도 없는 듯 천연스레 북쪽을 향하여 돌아서더니 몇 번 고개를 주억거렸다.

때를 같이하여 마치 그가 그러기를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 물이 있는 북쪽으로부터 시꺼먼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옥 밀려들었다. 창졸간에 사위는 캄캄해지고 주먹같은 우박이 와드드 쏟아져내렸다. 그것에 얻어맞은 꽃게들은 몸이 터져나간다고 비명을 질렀다. 사면팔방에 아우성이 휩쓸었다. 상어와 고래떼들은 언제 기세를 올렸더니 싫게 물속 깊이 숨어버렸다. 돌사태처럼 무서운 우박에 질겁했던 것이다.

왕비가 기겁하여 소리쳤다.

《임금님! 우리 군사들이 몽땅 녹아나오이다! 힘을 쓰시오이다. 바다흐름을 돌려세우는 입바람을 어서 뿜으소이다!》

어리벉벉해있던 청룡은 그제야 펄쩍 정신이 들었다. 그는 북쪽에서 밀려드는 구름을 마주 향해 있는 힘껏 입바람을 내뿜었다. 했지만 먹장구름떼는 조금도 흩어지지 않고 우박은 사태가 진 듯 그냥 쏟아졌다. 청룡은 당황했다. 턱이 와들와들 떨렸다. 왕비도 급히 곁에 붙어서서 입바람을 내뿜는데 합세했다.

룡왕부부가 숨이 넘어갈 지경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였다. 그들이 죽거나 살거나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태연히 서있던 사슴이 북쪽을 향해 다

시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폭풍이 들이닥쳤다. 덤벼드는 무리들을 우박사태로 모조리 죽탕을 쳐놓은 다음 그것을 폭풍으로 말끔히 날려버릴 잡도리같았다. 삼시에 바다는 뒤집히고 룡왕부부는 돌개바람에 높이 뜬 가랑잎마냥 마구 나딩굴며 멀리로 날려갔다. 다행히 두손을 서로 맞잡을수 있는 그들은 멈춰서보려고 발버둥질을 했으나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

절망에 빠진 청룡은 왕비에게 물었다.

《여보, 이러다간 우리 목숨이 끝장나지 않겠소. 그러니 어쩌면 좋소?》

《...》

《아무래도 이 번피는 저 흰사슴이 쓰는 도술이 아니라 그가 바라는대로 북쪽에서 도와주는 거대한 힘인것이 틀림없소. 흰사슴이 고개를 한번 주억대면 구름이 밀려들고 바람이 터지는걸 보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오이다.》

그렇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착한 사슴이 저렇듯 태연자약할 땐 분명 크게 믿는것이 있기때문이다.

그의 움직임에 따라 북쪽에서 엄청난 힘이 휩쓸어나오는 사실로 보아 참말 이 섬은 백두산의 한줄기일수있다. 하기에 파수가 주인에게 머리를 끄덕여 응원을 요청하고 주인은 즉각 응해나선것이 아닐가. 하다면 나는 이 대결에서 망할수밖에 없을것이다. 이제라도 사태를 분별있게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청룡은 왕비의 의견을 물음새없이 폭풍이 얼마간 잠잠해진 틈에 흰사슴에게로 가서 타협안을 내놓았다.

《그대는 백두룡왕의 신하로서 물의 한끝을 지킨다고하지만 나는 나대로 물나라지경안의 땅을 남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단 말ियो. 아무튼 량자간의 주장에 합당한 제 나름의 근거가 있는만큼 어느편이 정당한지 까밝히지 않고서는 안되오. 밝히되 싸움이 아닌 다른 방도를 찾아야겠소 이를테면 그쪽에서 이 섬이 백두산의 줄기임을 증명해놓기만 한다면 난 곱게 물러나겠단 말ियो. 설사 넘치는 굴뚝으로 나온 문어다리를 제것이라할지 몰라도 나는 근본까지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소.》

왕비는 그 말이 옳다고 성급히 덧붙였다. 우박과 폭풍에 한절반 얼혼이 나가버린 그는 상대편에서 양보하지 않을가 보아 겁을 먹었던것이다.

흰사슴은 잠간 생각을 더듬고나서

《애당초 그렇게 나왔어야지... 아무튼 늦게라도 채심했으니 다행이요. 이 섬이 백두산줄기로만 판명되면 영원히 탐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늘에 하오.》하고 엄하게 요구했다.

청룡이 하늘을 우리러 맹세를 다진 다음이었다. 다시금 룡으로 변한 흰사슴은 그들부부를 이끌고 북쪽으로 날아갔다. 백두산에 이른 청룡은 가뜩이나 툭 불거져나왔던 통방울눈이 뒤집힐듯 휘둥그레졌다.

신비하고도 장엄한 백두산의 기상에 그만 놀라 정신이 날아날것 같았다. 천하를 거느리고 하늘에 닿은 백두산!... 그가 한껏 송엄한 마음으로 성산의 기상에 심취되어있을 때 못(천지) 한복판에서 어마어마한 백룡 하나가 점잖게 솟아올랐다. 눈에서는 푸른빛이 번개처럼 번뜩이고 온몸을 뒤덮은 은색비늘엔 마치 거울인듯 주위의 만물이 그대로 다 비껴 있었다. 마치 온몸이 천지만물로 이루어진듯싶었다. 보다 놀라운 광경은 천갈래만갈래의 기나긴 수염이었으니 그것은 바람 한점없이 고요한 날인데도 기운차게 훑날리면서 사방아득한 멀리를 휘돌고 있었다. 그것의 한가닥이 자기가 것처럼 탐내여마지 않는 그 섬에까지 가닿았을지도 모른다고, 그 수염이 우박도 불러오고 폭풍도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청룡은 서늘한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섬의 《파수》 백룡이 그앞에 공손히 절을 하면서 안부를 물은 다음 청룡을 향해 《이분은 백두산 천지 룡왕님이시오.》 하고 소개를 하였다. 청룡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천지룡왕은 청룡의 손을 잡아 일으켜세우며 먼길을 오느라 수고가 많았겠다고, 이렇게 찾아와주어 고맙노라고 거듭 치사를 하였다. 계속하여 모처럼왔던 길이 보람을 못보고 끝나서야 되겠는가, 그대가 백두산을 찾아온 오늘을 계기로 우리 서로 도우면서 화목하게 살 마음을 굳히자고 정중하게 자기의 뜻을 밝히었다. 그가 주인으로서 영접례의를 마치고 물속으로 사라지자 파수군 백룡은 땀흐르는 청룡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를 못가로 불렀다.

《백두산천지물로 목을 추기고 땀도 식히오.》

수정같이 맑고 남해의 가장 귀한 보물인 청옥처럼 푸른 천지물에 룡왕부부는 서둘러 입을 댔다. 처음 생각에 두서너모금 넘기면 목추김으로서는 족할 줄 알았는데 웬걸, 마시면 마실수록 꿀처럼 달아서 자꾸 들이빨게만 될뿐 도저히 입을 땔수가 없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점점 더 입을 크게 벌려 들입다

들이켰다. 꿀걱꿀걱 넘어가는 물에 허까지 말려드는것 같았다. 그러던 청룡은 눈앞에서 무엇이 번쩍하자 흠칫 놀랐다. 아뿔싸! 허밀에 간직되어있던 여의주가 어느새 굴러나와 쏜살같이 가라앉고있지 않는가. 기겁하여 그것을 도로 물려고 번개치듯 따라내려갔지만 새벽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여의주는 어떻게나 재빨리, 사라지는지 죽을기를 다 써도 붙드는 재간이 없었다. 끝내 그것은 잠간사이에 종적을 감춰버리고야 말았다.

《어이쿠! 이런 변이라구야!》

청룡은 미칠듯 날뛰면서 비명을 질렀다. 이제 와서 그에게는 섬파워쯤은 안중에도 없었다. 왕위를 잃게 된 위험으로 하며 정신이 기절초풍할 지경에 이르렀던것이다.

억센 힘이 되고 온갖 재주를 다 일으키는 여의주가 없이는 청룡이 룡왕은커녕 룡으로서의 구실도 못하기때문이었다.

절망에 빠져 헤엄비는 그의 귀에 왕비의 슬픈 탄식소리가 들려왔다.

《임금님, 우린 저 백룡의 꾀임수에 빠져 망했소이다. 아이고, 원통해라!》

그 소리에 청룡은 번쩍 정신을 차렸다.

(그랬구나!)

천둥같이 성이 난 그는

《천지의 물맛으로 날 속여넘기고 내 열이나 다름 없는 여의주를 빼앗다니. 당장 여의주를 돌려주지 못할가!》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드잡이를 일으킬듯 백룡앞으로 달려들었다.

백룡은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점잖지 못하구만. 룡왕답게 처신하오. 제 잘못으로 일을 치고도 남을 원망하는건 어리석은 행실이요. 푹푹히 듣소. 백두룡왕의 신하는 천만이 넘어도 누구하나 속임수란 모르오. 여의주는 반드시 도로 찾게 될것이니 걱정말고 날 따라오오.》

청룡은 위엄있는 그 말에 놀리워 어쩔수없이 주눅이 들기는 하였지만 고분고분 따르기에는 부아도 나고 근심도 하도 커서 은연중 반발을 일으켰다.

《대관절 여의주는 어디에 빠졌는데 어디로 가자는게요, 응? 이 자리에서 그걸 내놓소. 난 그걸 찾기전엔 아무데도 못가!》

백룡은 제 먼저 유유히 날아오르며 시답지 않은 듯 한마디 던졌다.

《여의주가 그림자 않고 임금노릇하기가 시끄럽

거든 맘대로 하오...》

《?!》

청룡은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 갈팡질팡하였다.

왕비가 안이 달아 추겨댔다.

《따라가자요. 이젠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어이구! 그만 코를 꺾었구나. 공연히 땅을 욕심 부려가지구 내 손으로 내 눈을 찢렸구나...》

백룡의 뒤를 따라 하늘을 한참 날아가다가 멈춰선 곳은 바로 싸움이 한창이었던 그 섬의 산마루였다.

《떠났던 그 자리로 되돌아오다니?... 여의주는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응?... 아, 이젠 정말 망했구나, 망했어. 기막힌 내 신세야!》

기절할 지경으로 절망에 빠진 그는 비명과도 같은 소리를 내지르고야 말았다.

그사이 확 피어오르는 오색꽃구름속에 파묻혔던 백룡은 어느덧 또다시 흰사슴이 되어 못가에 내려가면서 조용히 타일렀다.

《락심은 아직 이르오. 그렇게도 담이 작고 참을 줄을 몰라서야 어떻게 왕자리를 지켜내겠소. 악의를 버리면 살길이 열리기 마련이라 그대 착한 마음을 지녔거든 근심을 툭 털어버리고 물가에 다가가 앉소.》

그 말이 하도 침착하고 진지하여 청룡은 저으기 믿음이 갔다. 이미 백룡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수 없게 된 자기의 처지를 새롭게 느끼면서...

물가에 바투 앉은 그는 어떤 알지 못할 힘에 이끌려 호수가에 눈길을 던졌다.

그런데 왜서인지 무었에 홀린듯 청명경이 지나도록 꼼짝할수가 없었다.

어느 때쯤이나 되었던지... 문득 물밑에서 번쩍하는 빛이 눈을 찢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세히 내려다보니 둥근 덩어리 같은것이 서서히 떠오르면서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아! 내 여의주!》

청룡은 미칠듯이 부르짖으며 첩병 뛰어들어 그것을 덥석 물었다. 그림자처럼 뒤따라 뛰여든 왕비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자기도 좀 보자며 안이 달아보게였다.

《아니, 그러다간 또 잃을수 있소.》

청룡은 질겁하여 입을 더욱 굳게 다물며 도리머리를 했다. 왕비는 청룡의 몸에 바싹 다가붙다가 별

안간 목메인 환성을 올렸다.

《임금님, 눈정기가 그전처럼 빛이 나요! 분명 여의주 덕이에요!... 아- 내 정신도 맑아졌어요!》

...남해물나라 임금 청룡은 왕비와 함께 흰사슴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실을 알아보고 분별있게 처신할대신 어리석게도 망동을 부린데 대하여 심심히 사죄를 한후 못내 감개무량 해하며 경탄을 터치였다.

《백두산천지에 떨어진 여의주가 3천리밖 이 섬의 못에 나타났으니 틀림없이 내 여의주는 저 백두산으로부터 이 섬으로 뻗어내린 한줄기를 따라 굴러왔소. 줄기가 끊어졌다면 어찌 이렇듯 희한한 일이 일어날수 있겠소. 과시 이 섬은 백두산의 한줄기요. 한줄기! 그런것도 모르고 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던지 왕비가 《가만 좀 계시오이다!》하고 그의 말을 막더니 부리나케 옆드려 못물을 마셨다.

《아! 물맛도 천지물맛과 신통히도 같사오이다!》

《아무렴, 그럴게요.》

청룡은 의미심장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흰사슴의 두손을 잡았다.

《이 섬이 백두산의 한줄기일뿐아니라 나의 나라인 이 남해도 근본이 백두산천지에 있는줄 내 오늘 비로소 깨달았소. 이번 백두산에 갔다가 천지에서부터 동서로 흐르는 두 강을 보았는데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곧 동해를 이루고 서쪽으로 흐르는 강은 서해를 이루었으며 동서해가 이 남쪽에서 합쳐져 남해가 되지 않았겠소. 그런즉 남해를 다스리는 나는 백두산의 품에 안겨있는것이 아니겠소. 내 지금껏 미련하여 아직도 근 본을 모르고있었소. 자못 죄가 크오. ... 흰사슴형님, 형님은 벌써 일이 이렇게 번져질줄 미리 다 내다보면서 우리를 백두산으로 안내했겠지요?! 이 못난 아우를 용서하오.》

청룡은 흰사슴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를 따라 왕비도 절을 하며 공손히 아뢰었다.

《백두산천지 룡왕님의 신하이신 어르신께 분수 모르는 이 제수가 인사를 드리오이다.》

...

그후부터 남해룡왕들은 대대로 변함이 없이 백두산룡왕을 받들어 섬기면서 남해가운데 섬(제주도)을 성의껏 보호하였다. 그로써 근본에 충실하였다.

오늘날 한나산마루의 화산호-자연못이 이 백록담(흰 백, 사슴 록, 못 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진 까닭도 이 전설의 《흰사슴》과 깊은 련관을 가지고있다.

리빈

복수하리라

-신천박물관에서-

(로씨야)알렉산드르 브레쥬네브

눈물없이
이 땅에 서있지 못하리
죽음의 고비들
넘고넘어온
영웅병사들
머리속이며
주먹으로 눈물을 닦는다

여기 이 땅이 통채로
관통상을 입은듯
몸부림치며 신음하는
너 신천이여!

눈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무쇠도
바위도
분노에 떨게 하는
사무친 원한이여

조선인민의 피로 얼룩진
미국의 교형리들
너털웃음치며 서있거니
내 오늘 신천땅에서 보았노라
인류력사가 알지 못하는
파쑈 미제의 야만행위를
신천땅의 산천초목도
어린이들의 울음소리 새겼고

온 신천땅이 피로 젖었다

자동총 억세게 틀어잡은
병사는 나에게 말한다
《양키들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
죽어도 기어이 복수하리라》
끓어번지는 조선의 심장
얼음산도 녹여버리리

복수, 복수를 부른다
애어린 령혼들이
임신부들의 령혼들이
복수를 부른다 천백배의 복수를
살아남은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고아들이
소리높이 웨친다
원췌 양키들을 복수해달라!

머리를 번쩍 드니
피 거꾸로 솟는다
힘줄이 불끈불끈 일어선다
나는 로씨야사람
허나 내 맹세하노니
조선이 흘린 피값을
기어이 받아내리라



《역사이야기와 전설들은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인것만큼 널리 발굴수집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역사설화

단군대와 천주석

우리 나라의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을 세웠다는 단군이 어느날 궁술훈련을 하다가 지친 몸으로 돌베개를 벤채 그대로 잠이 잠빻들었었다. 한동안 잠을 자다가 수만개의 무리화살들이 바람을 일구며 멀리서 날아드는것 같은 이상한 기척에 단군이 눈을 떠보니 향산천 건너편 산마루에 있는 천주석우에 웬 위엄있는 한 장수가 나타나 《네 이 화살을 받을 지어다.》 하면서 자기를 겨누고 활줄을 당기는것이였다. 화살을 막든가, 아니면 몸을 재빨리 피하든가 하지 않으면 영낙없이 그 장수의 화살에 맞게 될 그러한 위급한 순간이였다.

그는 몽롱한 잠결에 벌떡 몸을 일으켜 옆에 있던 검을 빼들고 번개같이 휘돌려쳤으나 날아드는 화살을 막지 못한채 발을 빗디디고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니 자기를 겨누었던 화살은 그대로 머리위를 스쳐지나갔고 계속 날아드는 화살들은 바위벽에 마구 부딪쳐다가는 산산이 부서져서 바위바닥에 흩어졌다.

단군은 부러진 화살조각들이 주변에 너지분히 널려있는것을 보면서 또 잠에 취해버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해는 서산에 뉘엿뉘엿 기울어 곤한 잠에서 깨어나본즉 너지분한 화살조각들은 어디로 다갔는지 두루 살펴보아도 눈에 띄우지 않았다. 다만 자기를 겨누고 날아들던 화살

만이 바닥에 고스란히 놓여 신기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보니 그것은 사람의 세상에서는 구할수 없는 신기하고도 훌륭한 은빛화살이였다.

(내가 아까 검으로 받아치지 못한 화살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고 그가 생각하면서 은빛화살을 집어들고 살펴보는데 여태까지 눈에 띄우지 않던 바위벽의 조그만 흠집에서 눈부신 빛발이 또 뿜어나오는것이였다.

《저것은 어이된 빛인가?》

단군은 곁에 다가가서 그 흠집을 더듬으며 자세히 보았다.

그것은 자기 어깨기만큼한 높이에 새로 생겨난 흠집이였는데 화살에 맞아 그렇게 된것이였다. 그런즉 그것은 단군이 화살을 막아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위를 스쳐지나 바위벽을 맞힌 자리가 분명했다.

단군이 유심히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자책하기를 《고마운 일이다. 화살 하나 제대로 막지 못했으니 하늘에서 내려오신 환웅아버님께서 나의 궁술련마가 아직도 부족한것을 헤아리고 깨우쳐주려 함이로구나.》 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후에 단군은 결심을 다시 다지고 궁술련마에 온정력을 다하였다.

남쪽에 바라보이는 천주석을 과녁삼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궁술련습을 계속하였다.

단군은 날마다 자기의 미흡한

궁술련마를 완성하기 위해 정력을 다하였는데 그 궁술이 얼마나 신묘했는지 천주석을 맞힌 화살이 단군대에 다시 되돌아왔다. 뿐만아니라 단군의 궁술이 아주 원숙한 수준에 이르러 천주석을 맞히고 되돌아온 화살이 단군대 바위벽의 화살자리를 매번 명중시키곤 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고이 궁술터에 보관하여둔 그 은빛화살은 단군의 궁술이 이렇게 신묘한 높이에 이르자 곧 어디론가 사라져 없어지고말았다 한다.

그리하여 후날 단군은 어떤 적이 어느 순간에 어디로 공격해오든지간에 적을 능히 쳐물리칠수 있는 궁술과 검술로써 자신을 무장하고 고조선시조로서의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고 한다.

훗날 생긴 그 화살자리에 지금도 귀를 대고 들으면 쉬익-쉬익- 하는 무슨 바람소리같은 음향이 마치 활촉 날아가는 소리같다고 해서 후세사람들은 단군이 화살을 되돌려세우는 묘술로써 맞히곤 하던 신기한 활촉음향이 그 금 간 자리에 오래간직되어있기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있다.

묘향산의 만폭동에서 향로봉으로 올라가는 중턱에 단군이 활쏘기훈련을 하였다는 단군대가 있는데 그 바위벽에 아직도 화살자리가 남아있다고 한다.

력사의 선언

박전걸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펼칠 때면
치솟는 민족의 분노
참을수 없는 증오의 끓는 피가
이 몸을 불태운다

유구한 민족사의 그 갈피마다
일제 너의 가증스러운 낯짝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
찬란한 우리 민족사에
불행과 고통을 끊임없이 던져온 네놈들

보인다 세월의 안개발을 헤치면
이 땅에 동방의 강성국가가 서던 아득한
그때로부터
좁도적처럼 기여들다 뺄소니치던 그 물결이
세월의 징검돌에 계다작을 끌며
우리 조국의 남단에 칼을 물고 달려들던
오랑캐들의 상통이

내 나라의 가까운 지척에
칼부림밖에 모르는 무지스런 사무라이
네놈들이있어
언제한번 조용한 날이 없었던 이 땅
백성의 피가 내물로 흐르던
임진의 그 아픈 상처는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있거니
이 땅에 파몰아친 전란의 그 무수한 년대들
결코 가버리지 않았다

한 나라의 왕비를 칼탕쳐죽이고도 모자라
삼천리 이 강토를 끝끝내 타고왔은 침략의 무리들
네놈들의 총칼아래 쓰러진 무고한 생명들이 그
얼마인지
이 땅을 도록내며 강탈한 문화유적과 금은보화

기름진 곡식과 재부는 또 얼마인지
우리 똑똑히 결산할 때는 왔다

긴긴세월 당한 그 많은 불행
오늘까지 우리앞에 지은 그 죄악을 생각할 때
이 분노는 조금도 잠재울수 없나니
력사란 결코 지나간 과거만이 아니다
세월을 넘어 쌓여지는 민족의 피맺힌 원한
아, 눈감지 못하고 간 선대들의 부릅뜬 눈

지구상엔 수많은 민족들이 살아도
유구한 세월 한 민족을 그토록 괴롭혀 온
그 결산이 어떤것인지
이제 알게 되리라
력사의 뼈아픈 상처와 피맺힌 원한
쌓이고쌓인 조선민족의 분노가
어떤것인지 너희들은 똑똑히 알게 되리라

오, 유구한 역사의 이름으로
우리는 단호히 선언한다
우리 민족의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네놈들처럼 교활하고 포악스러운 족속들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다더냐
그것도 모자라 재침의 핵이발을 오늘도 갈고있는
불행의 영원한 화근 너 일본군국주의

인간의 양심 민족의 초보적인 체면따위는
애초에 있어본적없는 네놈들과는 다른길이 없다
네놈들과는 오직 천백배의 결산뿐
그것도 하루빨리 우리 대에
우리 대에 총결산만이 있을뿐이다
지구밖으로 영영 뿌려던질것이다
우리의 백년속적에겐 자비란 없거니

세계작가일화

소꼬리와 소꼬리털에 대한 이야기

어느날 모순에게 광말약이 찾아왔다. 광말약으로 말하면 주체 10(1921)년에 진보적인 문학단체인 《창조사》를 조직하고 그 지도적인물이 되어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대한 무자비한 반항과 사회의 급진적인 변혁을 주장한 량만주의를 제창하면서 혁명적인 문필활동을 벌려온 작가였다. 량만주의와 사실주의라는 서로 다른 창작방법을 추구하였으나 광말약과 모순은 다같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문학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였다. 두서없는 이러저러한 화제 끝에 광말약이 룡담삼아 이렇게 말하였다.

《모순선생, 언젠가 로신선생이 나에게 자기는 인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소가 되겠다고 말했소. 그래 난 그에게 그러면 난 그 소의 꼬리가 되어 인민을 위해 복무하려 한다고 말해주었소.》

이 말을 듣고있던 모순은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소와 소꼬리라 그것 참 비슷한 말이요. 그러면 난 그 꼬리에 돋은 털이 되려하오. 그래서 소의 피를 빨아 먹는 등이나 모기를 막아주게 말이요.》

두 작가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이름없는 집

웨 꼬쨌브니꼬브

남 해 역

연기에 싸인 집들은 해전에 참가한 군함들처럼 전투의 도가니속에 들어있었다. 강력한 박격포일제 사격으로 파괴된 건물은 배처럼 기울어지다가 와르르 허물어져 폐허가 된다.

여러날째 계속되는 이 전투에서 많은 집들은 마땅히 전투함선들에 불인것과 같은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울만 하였다.

고미다락방에는 죽은 파쑈놈들이 닳새째나 덩굴고있었으나 그것들을 처리할 겨를이 없었다.

이와선은 증기관총을 잡고 엎드려 거리에 대고 사격하고있었다. 프롤로브와 켈레즈네브, 씹킨은 이웃집 지붕꼭대기에 있는 도이쉴란드자동총수들을 쏘아눕히고 찔킨은 빼치까굴쪽옆에 앉아 빈 탄창들에 총탄을 채우고있었다.

사실 찔킨은 다리가 잘리워나갔으니 쓰러져서 아픈소리를 질러야 하겠으나 앉은자리에서 장탄을 하는것이였다.

다른 부상병은 혼수상태에 빠져있든가 죽었는가 싶다.

푹어진 고미다락방의 지붕으로 바람에 눈가루가 들이불렸다. 그러자 찔킨이 기여가 군용밥통에 눈을 쓸어담아가지고 몇가치의 나무불에 녹여 증기에 넣으라고 이와선에게 주었다.

무수한 구멍이 푹린 고미다락방 지붕밑이 차츰 현해졌다.

이와선의 돌격조는 닳새전에 대답하고 성공적인 기습으로 이 집을 탈취하였다. 아래층에서 반땅크 포사수와 맞붙어 육박전을 때리는 사이에 두명은 불붙는 계단을 따라, 두명은 하수도관을 따라 전투원 넷이 고미다락방에 기여올라 거기에 있던 적 자동총수들을 제쳐버렸던것이다.

집은 장악되였다.

전투에 참가해본 사람은 승리의 기쁨이 어디에도 비길데 없음을 안다. 이 기쁨을 체험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것인가를 아는 법이다.

이와선은 궁지감에 사로잡혀 전투원들을 향하여 말하였다.

《동무들, 우리가 침략자들에게서 빼앗아낸 이 집은 그저 보통 집이 아니요.》 이와선은 이 건물이 지형상 우뚝 솟아있으므로 전술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려 했으나 그런 말은 너무 유치한것 같았다. 그는 엄숙하고 고상한 다른 말을

찾아냈다. 그래서그 말을 하였다. 《이 집은 오랜 력사적건물이요.》 하며 이와선은 감동어린 눈길로 탄알자리가 난 벽돌을 휘둘러보았다.

씹킨이 말하였다.

《여기서 살았던 집주인의 이름으로 부르자는것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한치도 물러서지 말아야지요.》 프롤로브의 말이였다.

켈레즈네브는 《이 집이 그런 특별한 집이라니 중구만.》 라고 하였다.

그리고 찔킨은 (그때는 아직 그의 발이 성해있었다.) 허리를 굽히고 마루바닥에서 짓밟혀진 식기를 집어들어 창문턱에 정히 올려놓았다.

파쑈놈들도 집을 빼앗기려 하지 않았다. 새벽에 적들은 우리의 전투원들을 2층으로 올리밀었고 두번째날에는 전투가 3층에서 벌어졌으며 이제는 다락방까지 밀리게 되자 이와선은 놈들을 포위할것을 명령하였다.

네명의 전투원이 지붕을 타고 집의 네면으로 해서 땅에 내려가 1층으로 돌입하였다.

이와선과 세명은 다락방에 있던 건초를 가져다 불을 붙여 한아름씩 안고 다닥방계단을 따라 밑으로 돌격하였다.

격동된 사람들을 보자 파쑈놈들속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이것은 수많은 파편이 날리는 수류탄이 폭발하게 끔하기에는 충분하였다.

이와선은 적들에게서 로획한 반땅크포결에 켈레즈네브와 프롤로브를 남겨두고 자기는 두명의 전투원들을 데리고 다시 증기관총과 부상병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돌아갔다.

적땅크가 이웃집 모퉁이에 숨어서 소이란을 쏘기 시작하였다. 고미다락방에 화재가 일어났다.

이와선은 부상병들을 우선 4층에, 이어 3층으로 옮겨갈것을 명령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3층에서도 역시 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발밑에서 마루널에 불이 달려 꺼져내리기 시작하였던것이다.

맨 아래층에서 켈레즈네브와 프롤로브는 포를 출입문가에 굴러내다놓고 땅크에 대고 사격을 퍼부었다. 사격할 때마다 땅크란놈이 집모퉁이에 숨어와서 맞히기가 어려웠다. 이때 창문가에 한다리로 서서 기관단총을 쏘던 찔킨이 사격을 멈추고 마루에 주저앉아 이제는 더이상 견디여내지 못하겠으니 당

장 기여가서 땅크를 까부시겠다고 하는것이였다.

이와선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동무가 너무 아파서 분별을 잃었다면 땅크를 까부시는것도 필요없어.》

《아니, 난 분별을 잃은게 아니요.》 찜킨이 대답하였다. 《나는 그저 저 빌어먹을놈이 집모퉁이에 숨어서 쏘는게 악이 나서 그러는거요.》

《그래,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지.》 하고 이와선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반대없소. 뛰어나가보게.》

《나는 뛰어다닐수 없는 몸인걸.》 찜킨은 그의 말을 시정시켜주었다.

《알고있소. 성내지 말라구. 내가 말을 잘못했구만.》

그는 무거운 반땅크수류탄들이 놓여있는 구석으로 갔다. 수류탄 한개를 가지고 돌아왔으나 찜킨에게 주지는 않고 손수건으로 열심히 닦기 시작하였다.

《그러지 말게.》 하며 찜킨은 손바닥을 내밀었다.

《자네 혹시 수류탄에 나비땀기라도 매주고싶어 그러지 않나?》

이와선은 수류탄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쥐었다.

《아니, 내가 가는게 더 나아.》

《소원대로 하게.》 찜킨이 말하였다. 《난 한타리로 서있자니 형편없이 아슬따름이야.》

《그럼 누워있을게지.》

《누워있자고 해도 총소리가 귀전에 울릴 때마다 신경을 자극하거든.》 그러더니 찜킨은 이와선의 손에서 무거운 수류탄을 조심스레 빼내었다.

《내가 마당까지라도 데려다주지.》

《그래주게. 그 다음엔 내절로 해내겠어.》 그러다가 찜킨은 놀라와하며 물었다. 《자네 왜 나한테 입맞추어주는거야? 내가 뭔가, 애인인가 아니면 고인인가?》 마당에 나가서 이렇게 소리쳤다.

《자네들 통줄임 먹을 때 날 뺄지 말라구. 대접을 안해주면 돌아오지 않을데야.》

땅크포에서 번쩍하는 섬광이 건물이 불붙는통에 벌겍게 반사된 눈과 그우에 납작 엎드린 사람의 형체를 비치었다.

어디선가 머리우에서 불붙는 들보가 떨어지는 바람에 천정이 울리었다. 캄캄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연기때문에 눈이 쓰리고 지독하게 매캐한 내굴이 코로, 입으로, 폐로 밀려들었다.

충충대 란간에 불길이 일어 고양이 기여가듯 밀로 불어내려간다.

이와선은 켈레즈네브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저 친구가 상하지 않게 포신을 약간 들어올려 포탑을 쏘게.》

《알겠네.》 하고 켈레즈네브가 말하였다. 그러더

니 조준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채 덧붙였다. 《난 막 울고싶어지누만! 저 사람 얼마나 훌륭하오! 이자방금 그가 한 말이 얼마나 고상한가!》

《이제 다들 올게 될것세.》 이와선이 말하였다.

《그는 이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줄거야.》

만일 포탄이 자기 주위의 두발자국안에서 터진다면 그 폭발소리가 어떠한지를 말하기 어려울것이다. 이와선은 쓰러지면서 폭음에, 뒤이어 타격력에 머리가 빼개지는감을 느끼었다. 모든것이 시뻘겍게 보이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였다.

땅크포탄이 포신밑에 떨어져 도를 뒤집어엎고 휘뿌려진 포신이 벽을 뚫고 나갔던것이다. 파괴된 완충기에서 기름이 흘러나오자 곧 불이 당졌다.

켈레즈네브는 벽을 짚고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부당한 팔을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마루바닥에 서있는 고무나무화분으로 다가갔다. 고무나무를 화분통에서 밀등채 뽑아들고 흙이 잔뜩 들어불은채로 불길을 후려치기 시작하였다.

이와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흔들여보았다. 그러더니 불쑥 일어서서 비칠거리며 문쪽으로 향하였다.

《어디 가나?》 하고 켈레즈네브가 물었다.

《물 마시러.》

켈레즈네브는 마루널을 한장 집어들고 창문으로 내밀어 눈을 퍼들었다.

《먹게.》 그는 이와선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이와선은 먹지 않고 털모자를 찾아들자 거기에 눈을 퍼담은후 머리에 뒤집어썼다.

《벗으라구. 감기들겠네. 그러다가는 평생 앓을수 있어.》 하고 켈레즈네브가 말하였다.

《땅크를 까부시는 소리가 울렸나?》

켈레즈네브는 팔을 처매느라고 이발로 봉대끝을 물고 있어와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 다음 봉대를 다 감자 말하였다.

《내가 한손으로는 할수가 없어서 그러니 자네들이 수류탄에 퇴관을 끼워주게나.》

《그가 땅크를 까부셨을가?》 하고 이와선이 다시 물었다.

《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켈레즈네브가 말하였다. 《내 귀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오누만.》

《난 딱 술취한것 같애.》 이와선의 말이다. 《당장 막 토할것 같네.》 하고는 마루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다가 머리를 들자 찜킨이 옆에 와있는것을 보고는 놀라지도 않고 다만 《살았나?》 하고 물을 뿐이였다.

《살았네.》 찜킨이 말하였다. 《내 좀 누워도 편찮겠지?》

《늑게.》 라고 말한 이와선은 안간힘을 써서 일어섰다.

켈레즈네브는 기관단총을 창문턱에 올려놓고 쏘

그리고앉아 사격하였다. 그가 총을 한손으로 쥐고 쏘니 짧은 총신이 마구 요동치다가 원형탄창을 탕터모서리에 대고 쏘자 이제는 드물지 않았다.

이와선은 쉐레즈네브의 어깨를 잡고 귀에 대고 소리쳤다.

《내 말이 들리나?》

쉐레즈네브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부상병들에게 가보게.》

《나는 부상자를 간호할줄 모르는데.》 하고 쉐레즈네브가 대꾸하였다.

《가보라는데.》

《가봐야 그들은 어쨌든 혼수상태일텐데 뭐.》

이와선은 프롤로브에게 가구와 나무를 있는것 가져다가 집의 창문들과 출입문가에 쌓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런 바리케트나 가지고서야 적들을 막아낼것 같은가?》

《그렇게 하라구.》 하고 이와선이 말하였다. 《명령을 집행하시오.》

바리케트가 다 되자 이와선은 인화병을 집어들고 그것을 가벽에 놓여있는 장에 대고 치려 하였다. 그러나 프롤로브가 만류하였다.

《인화병이 아깝군요. 허락한다면 내 숨저고리로 합시다. 이왕 완충기유에 젖었는걸요.》

바리케트가 불붙기 시작할 때 찻깁이 이와선에게로 다가섰다.

《조장동지, 소심하게 굴어 미안합니다만 난 이런 일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불속에 몸을 던지는 편이 낫지.》

《동문 뭘 못한다는거요?》 이와선이 물었다.

《이것말입니다.》 찻깁은 고개짓으로 불길을 가리켰다.

《우리가 뭐요, 구교도들인가, 뭐란 말이요? 난 사람들이 숨이나 좀 돌리게 해주자는거요. 불이 난것을 보면 적들이 잠잠해있을거란 말이요.》

이와선은 성이 나서 어성을 높이었다.

《적들을 숙여넘기려고 그러는겁니까?》 하고 말하며 찻깁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잖구.》 이와선이 웅글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헌데 숨을 쉴수가 없었다. 군용외투가 뜨거워져서 모직천이 누는 냄새가 역하게 풍겼다.

불길이 너울거리며 벽을 핏고 1층에서 밖으로 내뿜치였다. 바람이 휘익 불자 불길은 빨간 천조박들처럼 어둠속으로 홀날리었다.

파쑈놈들은 방위자들이 집안에서 끝장난줄로 믿고 건물을 둘러친 쇠울타리의 돌기초뒤로 기여들었다.

갑자기 너울거리는 불의 장막을 헤치며 창문으로 네사람이 뛰쳐나와 파쑈놈들에게 달려들었다. 프롤

로브는 한놈을 쫓아가서 울타리문가에서 인화병으로 대가리를 내리쳤다. 불길에 휩싸인 파쑈놈은 얼마동안 더 갈팡질팡하다가 곧 빠드러졌다. 프롤로브는 자기의 옷에 달린 불을 끄느라 눈우에 누워 덩굴기 시작하였다.

적들의 기관총결에 엎드리며 찻깁은 이와선에게 말하였다.

《아마 내 머리속에 검댕이가 짙 들어찬 모양입니다. 이렇게도 돌대가리라구야!》

《머리속에 검댕이가 앓을수야 없지.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구만.》

쉐레즈네브가 성한 팔로 찻깁을 부축하며 거리로 기여나왔다.

《그 사람은 왜 데리고 오나?》 이와선이 어깨너머로소리쳤다.

《이 사람이 이제 괜찮다요.》 쉐레즈네브가 말하였다. 《이 친구가 제2기관총수로 될걸세. 우리야 어쨌든간에 누워있어야 할 몸인데 자유로운 바깥이 더 좋지 뭐.》

파쑈놈들이 또다시 맹공격을 하는 바람에 방위자들은 부득이하게 다 타버린 건물로 들어갔다. 마루가 있던 자리에는 채와 따뜻한 부스레기들이 들어찬 웅덩이가 입을 썩 벌리고있었다. 전투원들은 창문을 화점삼아 뜨겁게 달아오른 쇠돌보우에 올라서서 사격을 계속하였다.

전투의 옛새째날이 지나가고있었다. 하여 찻깁이 누구에게라 없이 《나는 부상당하지는 않았지만 눈을 좀붙이지 않으면 당장 죽을것 같아요.》 라고 말하였을 때 그 말을 누구도 놀랍게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진맥진하였던것이다.

그러자 찻깁이 《나는 부상당하다보니 다리가 아파서 잠을 전혀 잘수가 없어.》 라고 했는데 역시 누구도 놀라와하지 않았다.

피를 많이 흘린탓에 몸시 추워하는 쉐레즈네브가 이발을 딱딱 마주치며 말하였다.

《이 집에 난방설비가 좋은게 있소. 네데를란드제요. 그 안은 따뜻할텐데.》

《이 판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프롤로브가 대꾸하였다.

《일단 이제 오랜 력사적건물이라면야 아무튼 복구할테지요.》 하고 찻깁이 성난 어조로 말하였다.

《불에 탄것은 별로 의의가 없어요. 벽은 성한채 있으니까.》

《자넨 잠이나 자지.》 찻깁의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죽을터인데. 력사적인것이든 뭐든 명령이나 똑바로 집행하라구. 그러면 그만이야.》

《웁소.》 하고 이와선이 긍정하였다.

《나는 명령을 두고 말한것이 아닌데요 뭐.》 찻깁이두덜거렸다. 《그저 이 집이 특별하다니까 좋아서 그리는거지.》

적들은 방위자들을 집에서 쫓아내려고 네번이나 시도하였으나 네번 다 뒤로 물러섰다.

마지막에는 놈들이 건물안으로 뚫고 들어오는데 성공하였다. 어둠속에서 그놈들에게 벽돌장들을 던졌다. 사격의 섬광을 보지 못한지라 적들은 어디에 대고 총을 쏘아야 할지 몰랐다. 놈들이 밖으로 내뿜자 창문가에 시키면 사람형체가 나타났다. 그는 한 손으로 기관단총을 틀어쥐고 권총을 쏘듯 단발사격을 하였다. 그가 넘어지자 그 자리에 다른 시키면 형체가 일어섰다. 이 사람은 한다리로 서서 손으로 창문틀을 잡고 역시 한손으로 기관단총을 쏘듯 권총쏘듯 하였다.

날이 밝을무렵에야 아군부대들이 도시의 강건너편구역을 점령하였다.

질고 포근하고 따스할것만 같은 눈이 내렸다. 눈은 거뭇거뭇 타버린 건물들을 살뜰히 애무하듯이 그우에 내려쬘었다.

거리로 땅크들이 지나갔다. 백곰같은 흰 위장복을 입은 특전대원들이 철갑우에 앉아있다.

그뒤로 흰 천을 씌운 기관총을 실은 작고 꺾직한 썰매들을 끌고 기관총수들이 달려갔다.

다음엔 견인차들이 포를 끌고 지나가는데 기다란 포신들이 마치 이 집들에 대고 절이라도 하는듯이 끄덕거렸다.

불타버린 건물에 둘러쳐있는 쇠울타리의 돌기초우에 세 전투원이 앉아있었다. 그들은 거뭇게 그슬리고 찢어진 옷에 얼굴은 극도로 지친 기색이었고 눈은 감겨있고 머리는 뒤로 젖혀졌다. 그들은 자고 있다. 다른 두사람은 눈우에 반듯이 누웠는데 눈은 뜨고있으나 그 눈에는 아픔이 어려있었다.

위생차가 나타나자 눈우에 누워있던 전투원이 말뚝잠을 자고있는 이들중 한사람의 발을 끄당겼다. 자던 사람은 깨어나 비틀비틀 도로에 나서서 손을 들어 차를 멈춰세웠다. 위생차가 울타리결으로 다가왔다. 위생병들이 우선 눈우에 누워있던 사람들을 담가에 실어올리고 이어 눈을 껏 감고 머리를 뒤로 젖힌채 울타리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눕히려 하였다. 그러자 차를 멈춰세웠던 이와선이 위생병들에게 말하였다.

《이 두사람은 다치지 마시오.》

《왜요?》

《성한 사람들이요. 너무 피곤해서 자고있는거요.》

이와선은 위생병에게서 담배 석대를 얻었다. 한대는 자기가 붙여물고 나머지 두대는 잠자는 사람들의 맥없이 벌어진 입술에 물려주었다. 그리고는 위생차운전사에게 돌아서서 말하였다.

《차를 조심히 모시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가!》

《알겠습니다.》 하고 운전사가 말하였다. 그리고는 눈을 꺾꺾꺾하며 고개로 집을 가리켰다. 《이

집을 지킨분들인가요?》

《그렇소.》

《동지들의 용감성에 대하여 이미 들었습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괜찮소.》 이와선이 말하였다.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가시오.》

이와선은 잠든 사람들을 한참동안이나 흔들여 깨웠다. 씹킨은 눈으로 량볼을 문질러주어서야 깨어났다. 그러나 그의 손을 뿌리치고 울타리결의 그 자리에 드러누울 잡도리이다.

얼마후 그들은 걸음을 옮겼다. 흰 눈이 내린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킨 그 집처럼 그렇게 불에 탄 건물들의 결으로 지나갔다. 이 술한 집들은 마땅히 전투합선들에 붙인것과 같은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울만하다. 《영광》 이라든가, 《대담성》, 《용감성》 혹은 《가브리엘 찢긴》, 《이그나찌 이와선》, 《게오르기 씹킨》 이라고 이름붙인다고 해서 나쁘게 무엇이랴? 이 역시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아닌가.

씹킨에 대하여 말할라치면 그는 남자털모자를 쓰고 량손에 무거운 보따리를 든 녀인을 보자 그에게 다가가 애써 점잖은 티를 내며 물어보았다.

《실례이지만 여보십시오, 이곳에 사시는가요?》

《그래요.》 녀인은 환희에 찬 눈으로 씹킨을 쳐다보며 대답하였다.

《미안하지만 이 집에서 누가 살았는지 이십니까?》 하면서 씹킨은 자기들이 지킨 집을 손으로 가리켰다.

《주민들이 살았겠지요.》

《꼭 적어 말씀하신다면요?》

《보통 로씨야사람들이지요.》

《이 집이 옛날건물인가요?》 씹킨이 실망한 어조로 물었다.

《옛날것이라면 아깝지나 않겠어요.》 녀인은 슬픔에 잠겨 대답하였다. 《전쟁 착 전에 건설한걸요. 정말 멋있는 집이었는데!》 그러다가 별안간 보따리를 땅에 떨구고 몸을 쪽 펴더니 흥분해서 소리내여 울기 시작하였다. 《아이 참, 이보세요. 내가 동무하고 무슨 집같은 소리를 하는걸가요. 난 동무의 심정을 이해해요. 귀중한 동지!》

씹킨이 동무들을 따라잡았을 때 이와선이 물었다.

《웬일인가, 아는 녀자를 만났었나?》

《아니요. 그저 좀 물어볼것이 있어서...》

눈이 내린다, 질고 따스할상싶은 눈이. 세사람은 정녕 이 포근한 눈우에 드러누워 자고 또 자고싶었다. 그러나 그들은 도시의 번두리로, 기관총소리가 푸루룩푸루룩 울리고 포소리가 쿵쿵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그곳으로 걸고 또 걸었다.

(작가단편집 《지구상의 평화를 위하여》 중에서)

널뛰기

널뛰기는 긴 널판의 중간을 고여놓고 양끝에 사람이 올라서서 구르며 높이뛰어오르기를 겨루는 여성들이 즐겨노는 민속놀이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날에 감옥에 갇힌 남편을 보기 위하여 여성들이 담장밖에서 널뛰기를 하여 감옥안을 넘겨다보았다거나 집안에 해종일 갇혀있다 싶어하는 여성들이 담장밖 세상을 보기 위하여 널뛰기를 하였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널뛰기가 봉건적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의 요구와 결부되어 생겨났다는것을 말해준다.

널뛰기는 발방아의 원리에 따라 창안된것으로서 고구려 이전시기부터 진행된것으로 보아지는 력사가 오랜 민속놀이이다.

오래전부터 해마다 설명절날과 정월대보름날이면, 여성들이 갖가지 옷을 차려입고 한데 모여 저녁 늦게까지 널뛰기를 하면서 즐겨놀았다.

옛날 속담에 《정월에 널뛰기를 하면 그해에는 발바닥에 가시가 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널뛰기는 몸단련에 좋을뿐아니라 몸매도 곱게 해주는 유익한 운동이다.

널뛰기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높이뛰어오르기와 실수없이 오랜 시간 뛰기를 겨루었다.

잘 뛰는 여성들은 여러가지 동작을 보기 좋게 하면서 뛰기도 하였다.

뛰어올라서 몸을 한바퀴 펴 돌려내려와 제자리에 떨어지는것을 《데사리》라고 하였다.

또한 높이뛰어올라 허리를 뒤로 한번 제꼈다가 내려오는것을 《중둥꺾이》라고 하였다.

또한 높이뛰어올라 발을 앞으로 쭉 뻗다가 내려오기도 하며 두발을 양옆으로 뻗다가 다시 모두면서 내려오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지방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가지 뛰기 방법들이 있다.

널뛰기는 오늘도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속놀이 전통으로서 명절날에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우리 인민들이 휴식의 한때를 보내며 즐기는것이다.

그뿐만아니라 우리 나라 교예무대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매우 우수한 자리를 차지하는 민속놀이 종목의 하나이다.

풍자시

머리가 돈 부쉬

김경기

부쉬는 이 밤도 잠꼬대한다
헤어졌던 애첩을 꿈속에서 만난듯
두손을 공손히 심장우에 포개었고
애원하듯
-나쟈! 나쟈! 나쟈!...

너편네가 팔굽으로 쥐여박는통에
쫄쫄 입을 다시며 돌아눕더니
이번엔 또다시 부른다
간절히 사랑을 청혼하듯
-안나! 안나! 안나!...

너편네는 모두발로 이불을 걷어찼다
-야 네가 열번 재미보면
나는 백번천번 재미본다야
그리고는 대뜸 전화를 걸었다

-포웰씨

나한테로 포알같이 날아와요
지금 대통령이
안나와 나쟈때문에 미쳐버렸어요
나두 포웰씨하구 미쳐보자요

-부인님 고정하십시오
오늘 이라크에서
미국병사들이 황천객이 됐다는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안나쥘리야에서... 나쟈푸에서...

-아니 뭐 안나... 쥘리야?! 나쟈... 푸?!...
너편네는 얼빠진듯 중얼거린다
-오 나쟈! 안나! 얼마나 좋았을가
그 이름이 차라리 애첩의 이름이었다면!
정말 좋았을걸 그랬어!
전쟁에 미치느니
차라리 계집에게 미쳤더라면!